■ 연구보고서 2017-04

충북 **산업구조**와 **여성고용**의 특성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충북여성재단
CHUNGBUK WOMEN FOUNDATION

발 간 사

여성의 고용률 증대 및 고용의 질 개선이 오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가 더디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북지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55% 수준이고 남성 경제활동참가율과 20%p 정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불안정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고, 임금 수준도 남성 대비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역의 산업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 고용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 여성 고용문제의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의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한 여성고용정책의 방향을 부족하나마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충북 지역 여성 고용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업구조적 특성 등 몇 가지 주목할 특징이 파악되었습니다. 충북의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을 고려한 여성 고용정책 방안 모색하기 역시 시도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충북지역 여성 고용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확장시키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고용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는 2017년 출범한 충북여성재단의 향후 연구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 재단은 총론적 성격의 이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여성고용정책 연구의 세부주제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론적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신 학계 관련분야 연구자, 여성고용 관련 현장지원기관 담당자, 기업 인사부서 담당자, 여성단체 활동가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권수애

요 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충북지역 여성 고용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여성고용정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총론적 성격의 연구로, 연구를 통해 충북 지역 여성 고용 문제의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 여성고용정책이 추진해야할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려고 함

○ 또한, 지역 여성고용 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고용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지역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후 지역 여성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의 산업 특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분석, 충북 여성고용특성 분석, 지역산업육성정책 현황 및 지역육성산업의 여성 고용현황 분석, 여성고용정책 추진 형황, 지역 여성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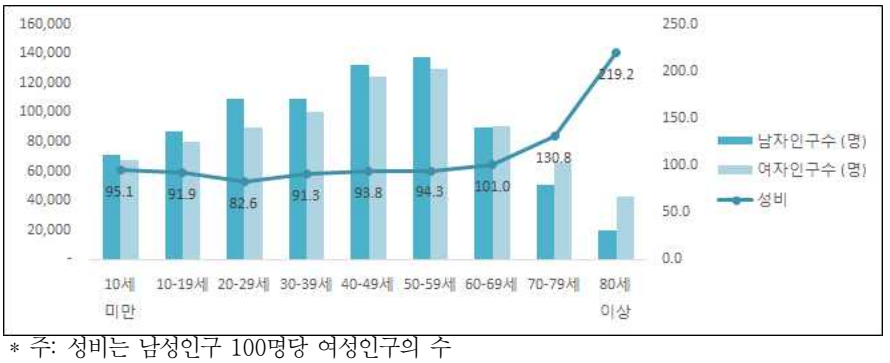
○ 이 연구는 주로 문헌 자료 검토 및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기업 인사 담당자 자문회의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Ⅱ. 충북지역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 충북의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08~'17년 연평균 성장률 0.53%) 충북은 순전출인구 보다는 순전입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남성 인구 증가율이 여성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국 기준으로는 여성인구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과 대조되며, 특히, 20대 여성 역외전출자가 20대 남성 역외 전출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그림] 충북 연령대별 성별 인구 및 성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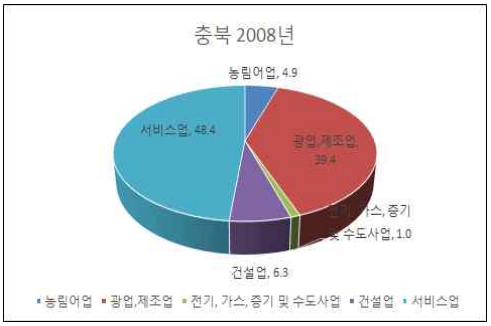
* 주: 성비는 남성인구 100명당 여성인구의 수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10.) KOSIS (검색일: 2017. 11. 26.)

○ 충북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충북 GRDP(2010=100)는 50조 2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실질 GRDP가 50조를 돌파했으며 2008~2015년 GRDP 연평균 증가율은 5.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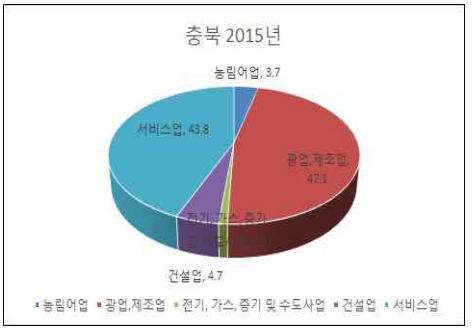
○ 충북지역의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종사자 수 등 산업별 비중을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충북지역 총부가가치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충북지역 산업 총 종사자 수 620,557명의 28.8%(178,424명)이 제조업 종사자임

[그림] 충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생산(2008)



*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http://kosis.kr)

[그림] 충북 경제활동별부가가치생산(2015)



*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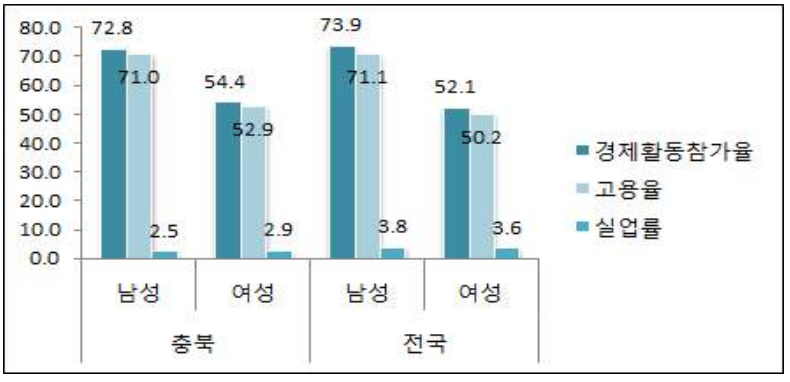
Ⅲ. 충북 여성고용 현황 및 특성

○ 충북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격차는 18.4%p (여성 54.4%, 남성 72.8%)이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경제활동참가율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격차는 여전히 더디게 감소하고 있음

–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2.3%p 높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충북은 1.3% 전국은 0.5%임

[그림] 경제활동참여 현황(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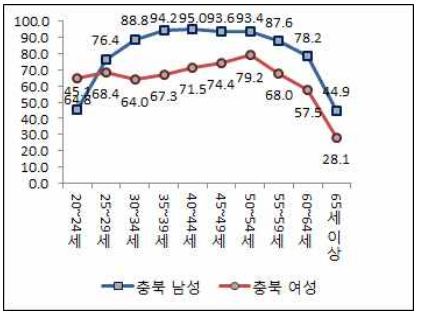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하반기) 원자료 분석

❍ 25~29세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중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때문에 충북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곡선의 우측이 발달하고 좌측이 꺼져있는 특징이 있음

[그림] 충북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전국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하반기)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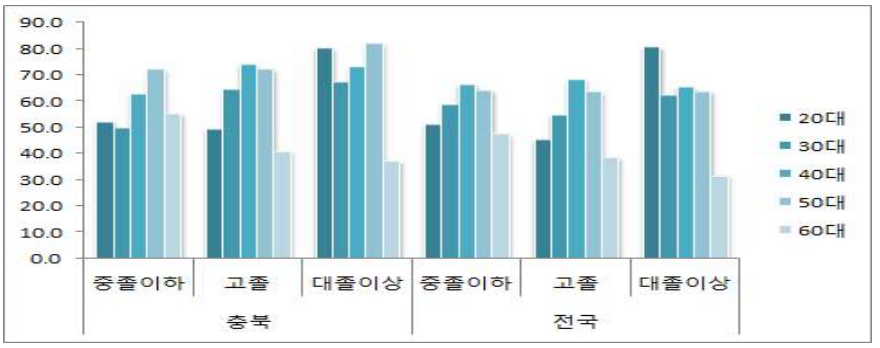
❍ 충북 15세 이상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296천명이며 20대 여성의 33.6% 30대 여성의 34.2%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보면 20대 고졸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50.6%로 높고, 20대 비경제활동여성의 22.9%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로 청년여성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냄

-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임

○ 충북지역 여성고용율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율은 대졸여성 70.5%, 고졸여성 60.6%, 중졸 이하가 38.6%이며,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L자형 곡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30대 이후에도 대졸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대졸여성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패턴과 차이점이 있으며, 고졸여성들의 경우 20대에 경력단절을 빠르게 경험한다는 특징과 30대 이후 고용율이 전국수준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동시에 나타냄

[그림]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충북 취업자의 19.7%는 제조업 분야 종사자이지만(167,049명), 여성과 남성이 종사하는 산업분야에 차이가 있어서 산업의 성별 분리 양상이 있으며, 지난 2011~2016년 동안 제조업은 여성 종사자 규모가 7,519명 감소한 반면, 남성 종사자 규모는 2,465명 증가함

-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5,791명, 15.1%), 제조업(48,127명, 13.0%), 도매 및 소매업(45,605명, 12.3%), 숙박 및 음식점업(43,925명, 11.6%) 순으로 비중이 많음(2016년 기준)
- 반면, 남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118,922명, 24.9%), 건설업(50,600명, 10.6%), 도매 및 소매업(44,672명, 9.4%) 순으로 비중이 많음

- 제조업의 경우 여성 취업자가 48,127명, 남성 취업자가 118,922명으로 제조업 내 취업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28.8%, 남성이 71.2%임(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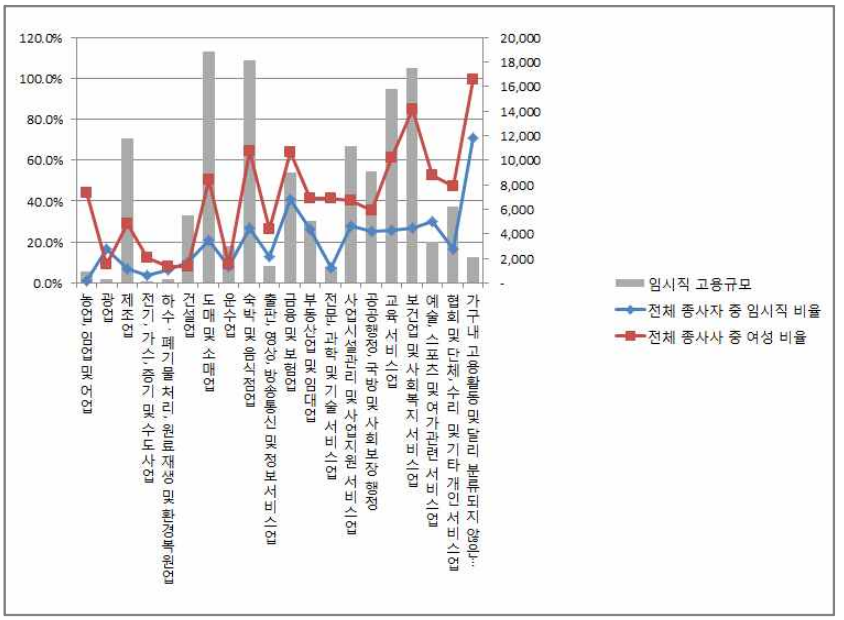
○ 충북 서비스 종사자의 71.5%는 여성,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남성 비율이 각각 92.2%, 85.7%로 직업의 성별분리 양상이 있으며, 제조업 내에서도 여성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4.0%), 단순노무종사자(31.1%), 사무종사자(22.3%) 순으로 비중이 높고, 남성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9.8%), 사무종사자(24.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1.6%) 순으로 분포함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과 남성 모두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여성 42.9%, 남성 51.3%) 여성은 임시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남성은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종사상 지위의 성별화 된 경향이 나타나며, 각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임시직 비율이 남성 종사자의 임시직 비율보다 높으며, 여성 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의 임시직 비율이 높음

- 여성 취업자 집중도가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임시직 비율 26.6%), 숙박 및 음식점업(임시직비율 26.7%), 도매 및 소매업(임시직비율 20.9%), 교육서비스업(임시직비율 25.6%)은 임시직 비율 역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그림] 충북 임시직 종사자 현황 및 임시직 고용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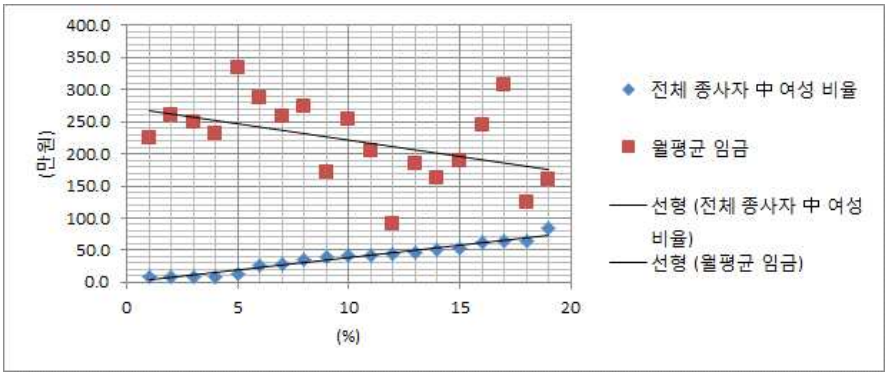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충북 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65만원, 남성 임금은 264만원으로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2.7%로 충북지역 남녀 취업자 임금은 모두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경향으로 나타나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성별 분리 양상에 대한 극복과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임금가치 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충북 여성 취업자의 임금은 200만원 미만에 70.4%가 분포하며 남성 취업자 임금은 200만원 이상에 71.1%가 분포함

[그림] 충북 산업별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 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Ⅳ. 지역산업육성 추진 및 여성고용 현황

○ 9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추진되어왔으며 현재에도 지역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전략이 추진되고 있고, 충북은 1·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1·2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대표산업 및 협력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해왔고, 도 차원에서 지정한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미래유망산업 역시 중장기적 지역산업육성의 일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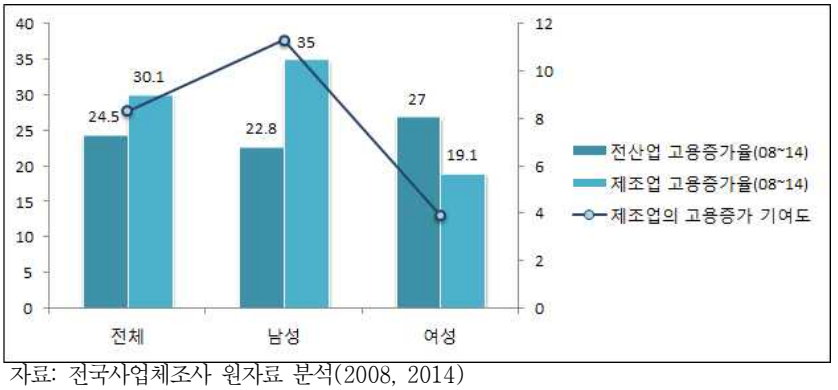
-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지정한 5대 주력산업 (반도체, 바이오의약,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과 3대 협력산업(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은 충북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온 대표적 지역 산업임

❍ 충북지역이 제조업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의 사업체 및 여성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충북 제조업 사업체는 11,564개이고 그 중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20.4%이며, 충북 제조업 종사자 수는 178,424명이며 여성 종사자는 27.9%이며(49,709명), 제조업 분야는 여성사업체 비율, 여성 종사자 비율,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에서 모두 충북지역 전산업 평균에 비해 낮음

- 여성 대표자 사업체 비중은 전 사업체의 39.1% (46,761개), 제조업 사업체의 20.4%이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41.6%가 여성인 반면 제조업 종사자는 27.9%가 여성이고, 제조업 분야 남성 종사자 수 증가율은 35.0%인데 반해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은 19.1%임

[그림] 충북지역 제조업의 고용증가율(2008~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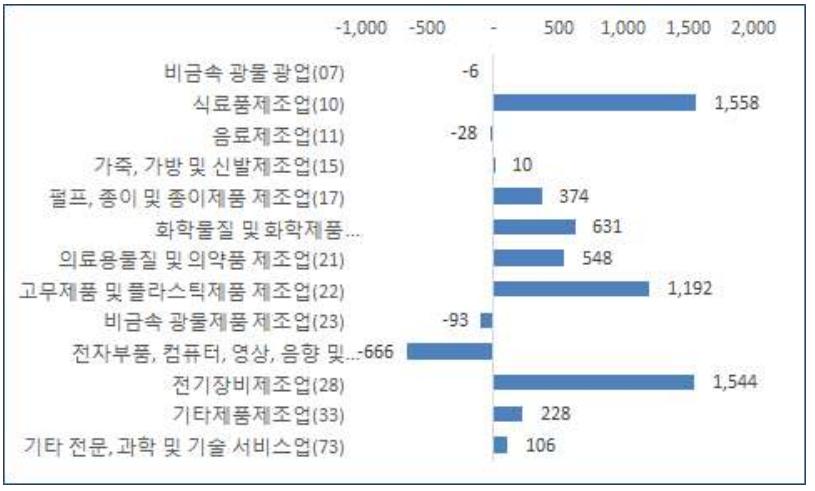
*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2008, 2014)

❍ 충북지역에 소재한 전국 상위산업군에 해당하는 13개 산업군의 사업체는 7,367개이며 이 중 여성 대표자 사업체가 21.8%(1,667개)이며, 13개 전국 상위산업군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5,826명이며 여성종사자는 38,191명(30.4%)이고, 13개 상위산업군 가운데 여성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식료품제조업(43.3%)이며, 13개 상위산업군 역시 여성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상용직 비율이 낮은 경향을 나타냄

- 식료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상용직 비율이 90% 미만이고 동시에 여성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임
- 충북지역에 소재한 전국상위산업군 13개 가운데 '08~'14년 동안 여성 종사자 수가 1,000명 이상 증가한 산업군은 식료품제조업(1,558명 증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1,192명 증가), 전기장비제조업(1,544명 증가)임

[그림] 충북지역 전국상위산업군 여성종사자 증가수('08~'14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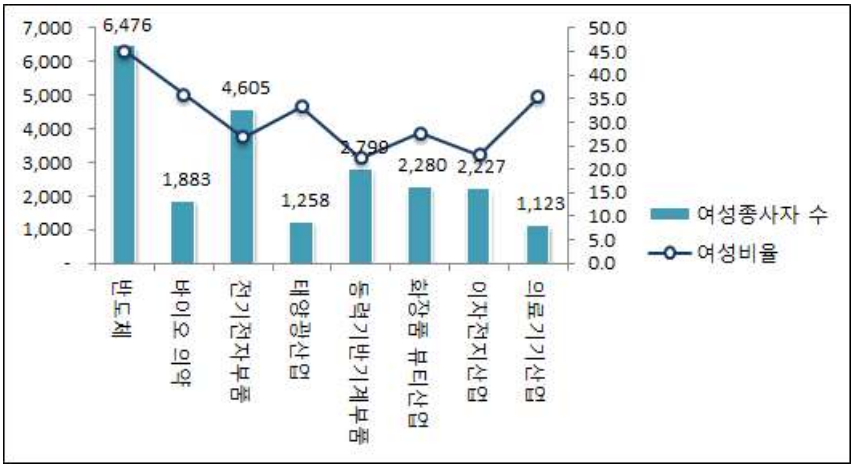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2008, 2014)

○ 충북 5대 주력산업과 3대 협력산업 사업체는 2014년 기준 1,282개이고 여성대표자 사업체는 12.7%(255개)로 13개 상위산업군에서 보다 여성대표자 비율이 낮으며,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74,215명이며 여성 종사자가 30.5%이고, 충북 5대 주력산업 및 3대 협력산업 가운데 여성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반도체산업(45.0%), 여성 종사자 비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동력기계기반부품산업(22.3%)임

- 지난 '08년~'14년 동안 남성 종사자 증가수와 여성 종사자 증가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산업은 전기전자부품산업으로 남성종사자 수가 4,571명 증가한 반면 여성 종사자 수는 975명 증가했으며, 이외에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화장품 뷰티산업 역시 남성종사자 증가수와 여성종사자 증가수의 차이가 2,000명 이상인 경우임

[그림] 주력 및 협력산업 여성종사자수, 여성종사자 비율

(단위: 명, %)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Ⅴ. 여성고용정책 추진 현황

○ 여성고용정책을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 정책", "고용상 성차별 구조 개선 정책", "여성 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정책",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정책"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충북 여성고용정책 추진현황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음

- 충북 여성고용정책 유형 가운데 예산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책임

- 전반적으로 충북의 여성 고용정책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책과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정책에 보다 비중이 있음
- 반면, 고용상 성차별구조 개선 정책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정책은 사업의 시행 내용 및 예산 편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추진되고 있음

○ 2017년 지역별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계획 가운데 충북에서는 비중 있게 실행하지 않지만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고용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사례들이 있음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분야
·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출,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정책 (서울 등)
· 여성 창업 지원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대전)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광주)

- 고용상 성차별 구조 개선 분야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정책 사례 (경기, 경남)

-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분야
·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사업 (대전, 경북 등)
·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세종 등)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분야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사례(제주)
· 가족친화마을 지원사업 (대구)
·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컨설팅(경기)
·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사례 (서울 등)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 아버지 학교 운영 사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Ⅵ. 결론 및 제언

○ 충북의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충북은 인구 측면 경제성장 측면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지만 성장의 효과가 여성들에게 적절히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점이 있음

○ 충북 여성고용 현황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형된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청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중장년층 여성의 높은 고용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 여성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냄

○ 충북 여성고용 현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의 성별화된 경향은 산업의 성별분리, 직업의 성별분리, 불안정 고용의 여성화, 성별임금격차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한 충북 지역의 산업 구조 특성은 이러한 산업의 젠더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과 완화시키는 측면이 동시에 있음

○ 충북지역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취창업 지원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여성고용정책이 보완적 끼어들기 정책을 넘어서 산업 구조와 고용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상 성차별구조 개선 정책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정책 분야의 확대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지역의 여성고용정책이 산업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는 경우 여성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 분야에 여성들이 더 평등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며, 여성들이 해당 육성 산업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기 어렵다면 해당 산업을 지역의 육성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이 논의 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하나마 이런 산업구조와 여성고용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런 문제인식을 제시하고자 했음

❍ 충북 여성고용의 특성을 검토했을 때 충북 여성고용의 우선과제로 “청년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 개선”, “여성경력단절 완화”, “중고령여성 열악한 고용여건 개선”, “성별임금격차 해소”, “산업의 성별분리 완화”,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 완화”를 우선 문제로 도출함

- 아래에 각각의 문제와 관련된 산업구조 특성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표] 충북 여성고용 문제진단 및 정책과제

문제진단 및 우선과제		산업구조 특성	정책과제
인적 자원 특성	청년여성 일자리 부족	- 생산위주 사업체 운영되고 있어서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 부족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력 지속이 필요한 일자리에 여성에 대한 비선호 강함 - 괜찮은 일자리에는 지역 외 출신이 채용되는 경향	- 전략산업 분야 기업지원시 고용지표 제출 의무화 (고용 지표에 여성인력 고용, 청년 세대 고용, 정규직 인력 고용 현황 등 지표 포함) - 산업별 여성고용 리포트 작성 및 여성 고용율이 낮은 전략산업 분야의 경우 해당 산업분야 여성 인력 고용 확대 정책 마련 - 청년세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인사운영 컨설팅 및 청년세대 채용 기업 인증제 - 청년 창업/청년 농업/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
	여성 경력단절	- 제조업 사무직 등 여성 인력 경력지속 어려움 -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운영 및 인력대체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제한	- 여성 경력지속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및 알가정 양립 일터 문화 조성 컨설팅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산단형 어린이집 확대 - 중소기업형 육아휴직 모델 개발 -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 여성 경력 지속 지원

문제진단 및 우선과제		산업구조 특성	정책과제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농업/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중고령 여성 열악한 고용 여건	- 제조업의 경우 단순노무직 중심의 직무 투입 - 서비스업 중고령 여성 일자리의 낮은 고용의 질	- 사업체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및 캠페인 - 고용상담 지원
산업 구조 특성	성별임금격차	- 여성 집중 산업, 여성 집중 직업의 낮은 임금 - 돌봄, 복지 등 여성 집중 직종의 낮은 가치 평가	- 여성 집중 직무 직무가치 평가 조사 - 고용상담 지원 - 충북형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 서비스업 일자리 임금 향상 지원
	산업의 성별분리	- 제조업 기술 공정 여성 진입 어려움 - 산업 특성에 따라 여성 수용성 높은 산업과 수용성 낮은 산업이 있음	- 일자리 상황판에 성별 고용격차 해소를 포함하고 성별분리 해소를 위한 도 자체 지표 수립 - 전문직, 기술직 분야에 대한 여성 진입 수월성 평가 및 관련 인력육성 플랜 수립 - 여성 수용성 낮은 기술공정의 여성인력 정착 사례 발굴 (* 여성인력이 해당 분야 기술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체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자원 활용이 어려운 문제 -> 기업 지원금 제공을 바탕으로 여성 기술자 정착 및 경력개발 사례 개발) - 중고생 대상 성별직업분리, 산업분리 고정관념 개선

문제진단 및 우선과제		산업구조 특성	정책과제
	여성의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보건업, 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 등 임시직 일자리 비중 높음 - 제조업의 경우 상용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제조업의 경우도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산업은 임시직 비율이 높음	- 고용불안정성 보상가치 개념 확산 - 산업별 고용의 질 평가 후 고용의 질 우선 개선 산업 선정 및 대책 마련 -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금지 -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고용의 질 개선 방안 수립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II. 충북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 7

1. 인구구조 분석 ····· 9
   가. 주민등록 인구현황 ····· 9
   나. 인구이동현황 ····· 12
   다. 장래인구추계 ····· 14
2. 산업구조 분석 ····· 15
   가. GRDP 현황 ····· 15
   나. 산업별 부가가치 현황 ····· 16
   다. 산업별 사업체 현황 ····· 19
   라. 산업별 종사자 현황 ····· 21
3. 소결 ····· 23

III. 충북 여성고용 현황 및 특성 ····· 52

1. 여성 경제활동현황 ····· 27
2. 여성고용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3
   가. 연령대별 고용현황 ····· 33
   나. 혼인상태별 고용현황 및 경력단절 여성 현황 ····· 53
   다. 학력수준별 고용현황 ····· 39

3. 여성고용의 산업구조적 특성 ····· 24
가. 여성고용의 산업별 분포 ····· 24
나. 여성고용의 직업별 분포 ····· 94
다. 여성고용의 고용형태 ····· 05
라. 여성고용의 임금수준 ····· 55
4. 충북 지역성평등지수 고용부문 ····· 95
5. 소결 ····· 61

IV. 지역산업육성 추진 및 여성고용 현황 ····56

1. 지역산업 육성 추진현황 ····· 76
가. 지역산업육성정책 전개과정 ····· 76
나. 현 단계 산업육성 정책 현황 ····· 47
2. 지역 육성산업 여성고용현황 ····· 77
가. 제조업 여성고용현황 ····· 77
나. 지역 특화 상위산업 ····· 18
다.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여성고용현황 ····· 29
3. 소결 ····· 99

V. 여성고용정책 추진 현황 ····· 103

1. 여성고용정책 추진 유형 및 전략 ····· 06
2. 충북 여성고용정책 추진 현황 ····· 07
3. 타 시·도 여성고용정책 추진 사례 ····· 08
4. 소결 ····· 124

VI. 결론 및 제언 ····· 127

1. 결론 및 요약 ····· 129
2. 충북 여성고용 우선 과제 및 정책 방안 ····· 131
가. 과제 1 : 청년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 개선 ····· 133
나. 과제 2: 여성 경력단절 완화 ····· 134
다. 과제 3: 중고령 여성 열악한 고용여건 개선 ····· 136
라. 과제 4: 성별임금격차 해소 ····· 136
마. 과제 5: 산업의 성별 분리 해소 ····· 137
바. 과제 6: 여성 고용의 불안성정 완화 ····· 138

■ 참고문헌 ····· 140

표 목 차

[표 Ⅱ-1] 주민등록인구 현황 ····· 9
[표 Ⅱ-2]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017. 10.) ····· 10
[표 Ⅱ-3] 충북 연령대별 시·도간 전입·전출자 ····· 21
[표 Ⅱ-4] 충북 20대 역외 전입 전출자 ····· 31
[표 Ⅱ-5] 충북 장래인구추계 ····· 51
[표 Ⅱ-6] 충북 및 전국 GRDP 현황(2008~2015) ····· 61
[표 Ⅱ-7] 충북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 ····· 71
[표 Ⅱ-8] 산업별 사업체 현황 ····· 91
[표 Ⅱ-9] 규모별 사업체 현황 ····· 02
[표 Ⅱ-10] 산업별 종사자 현황 ····· 12
[표 Ⅲ-1] 성별 경제활동 현황(15세 이상)(2016) ····· 72
[표 Ⅲ-2]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2008~2016) ····· 82
[표 Ⅲ-3]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2008~2016) ····· 03
[표 Ⅲ-4] 충북 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 13
[표 Ⅲ-5]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 23
[표 Ⅲ-6] 연령대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 33
[표 Ⅲ-7] 20대 여성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 43
[표 Ⅲ-8] 혼인상태별 고용 현황 ····· 53
[표 Ⅲ-9] 충북 성별 비경제활동 인구 연령대별 현황 ····· 63
[표 Ⅲ-10] 충북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현황 ····· 73
[표 Ⅲ-11] 비경제활동여성 취업 희망 여부 ····· 83
[표 Ⅲ-12]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여성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93
[표 Ⅲ-13] 교육수준별 고용현황 ····· 04
[표 Ⅲ-14]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비율 ····· 14
[표 Ⅲ-15] 충북 산업별 고용 현황 ····· 24
[표 Ⅲ-16] 충북 여성 취업자 산업별 분포: 연령대별·교육수준별 ····· 44
[표 Ⅲ-17] 충북 여성 취업자 종사 주요 산업별 종사자 규모 : 연령대별·교육수준별 ····· 64
[표 Ⅲ-18] 충북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1-2016) ····· 74

[표 Ⅲ-19] 충북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현황 ····· 94
[표 Ⅲ-20] 충북 제조업 분야 취업자 직업별 분포 ····· 05
[표 Ⅲ-21] 충북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분포 ····· 15
[표 Ⅲ-22] 충북 임시직 종사자 산업별 분포 ····· 35
[표 Ⅲ-23] 충북 취업자 월평균 임금 현황 ····· 55
[표 Ⅲ-24] 충북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 ····· 55
[표 Ⅲ-25] 충북 산업별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현황 ····· 75
[표 Ⅲ-26] 충북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 ····· 16
[표 Ⅳ-1] 1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사업 ····· 96
[표 Ⅳ-2] 2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사업 ····· 96
[표 Ⅳ-3] 1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 07
[표 Ⅳ-4] 2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 07
[표 Ⅳ-5] 충북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 17
[표 Ⅳ-6] 충청북도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 27
[표 Ⅳ-7] 충북 지역산업육성 투입 및 산출 ····· 47
[표 Ⅳ-8] 지역산업육성정책 현황 ····· 47
[표 Ⅳ-9] 6대 신성장산업 특화 분야 ····· 67
[표 Ⅳ-10] 3대 미래유망산업 특화 분야 ····· 67
[표 Ⅳ-11] 충북 사업체 수 현황(2008~2014) ····· 77
[표 Ⅳ-12] 충북 종사자 규모별 제조업 사업체 현황(2008~2014) ····· 77
[표 Ⅳ-13] 충북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2008~2014) ····· 97
[표 Ⅳ-14] 충북 제조업 고용증가율 ····· 08
[표 Ⅳ-15] 충북지역 전국 상위 산업군 현황 ····· 28
[표 Ⅳ-16] 충북지역 전국 상위산업군 사업체 현황(2008~2014) ····· 38
[표 Ⅳ-17] 충북지역 전국 상위산업군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현황 ····· 48
[표 Ⅳ-18] 충북지역 전국 상위산업군 종사자 현황 ····· 58
[표 Ⅳ-19] 충북지역 전국상위 산업군 종사상지위 구성 ····· 88
[표 Ⅳ-20] 충북지역 전국 상위 산업군 종사자 수 증감(2008~2014) ····· 98

[표 Ⅳ-21] 2015년 충북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투입예산 및 고용성과 ····2·· 9
[표 Ⅳ-22] 2015년 충북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투입예산 및 사업화매출액성과 ··3·· 9
[표 Ⅳ-23] 충북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사업체 현황(2008~2014) ·····4··· 9
[표 Ⅳ-24] 충북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현황 ·····5··· 9
[표 Ⅳ-25] 충북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종사자 현황 ·····7· 9
[표 Ⅳ-26] 충북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종사상지위 구성 및 임금수준 ·····9·· 9
[표 Ⅴ-1] 여성고용정책 유형 ····· 0
[표 Ⅴ-2] 충북 여성고용정책 추진현황 ····· 7 1
[표 Ⅴ-3] 정책사례: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901
[표 Ⅴ-4] 정책사례: 여성 창업지원 ····· 0 1
[표 Ⅴ-5] 정책사례: 여성기업지원 ····· 1 1
[표 Ⅴ-6] 정책사례: 여성 이공계 인력 육성 ····· 2 1
[표 Ⅴ-7] 정책사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질 개선 ·····3 1 1
[표 Ⅴ-8] 정책사례: 양성평등의식교육 확산 ····· 3 1
[표 Ⅴ-9] 정책사례: 공공부문 적극적 조치 ····· 4 1
[표 Ⅴ-10] 정책사례: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지원 ·····5 1 1
[표 Ⅴ-11] 정책사례: 여성농업인 지원 ····· 7 1
[표 Ⅴ-12] 정책사례: 가족친화지원센터 ····· 9 1
[표 Ⅴ-13] 정책사례: 가족친화마을 지원 ····· 9 1
[표 Ⅴ-14] 정책사례: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례 ·····0 2 1
[표 Ⅴ-15] 정책사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사례 ·····1 2 1
[표 Ⅴ-16] 정책사례: 남성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2 2 1
[표 Ⅴ-17] 정책사례: 아버지 학교 운영 ····· 3 1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충북 남녀인구 현황(2008~2017) ····· 9
[그림 Ⅱ-2] 충북 및 전국 연령대별 인구비중 ····· 11
[그림 Ⅱ-3] 충북 연령대별 성별 인구 및 성비 ····· 11
[그림 Ⅱ-4] 시도별 인구 순이동자 수 ····· 31
[그림 Ⅱ-5] 충북 인구 순이동자 수(2007~2016) ····· 31
[그림 Ⅱ-6] 충북 20대 성별 순이동자 현황 ····· 41
[그림 Ⅱ-7] 충북 GRDP 현황(2008~2015) ····· 61
[그림 Ⅱ-8] 충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생산(2008) ····· 81
[그림 Ⅱ-9] 충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생산(2016) ····· 81
[그림 Ⅲ-1] 경제활동참여율 현황 ····· 82
[그림 Ⅲ-2]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 92
[그림 Ⅲ-3] 시·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92
[그림 Ⅲ-4] 15~64세 인구 고용율 현황 ····· 03
[그림 Ⅲ-5] 충북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 33
[그림 Ⅲ-6] 전국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 33
[그림 Ⅲ-7] 충북 연령대별 고용율 ····· 43
[그림 Ⅲ-8] 전국 연령대별 고용율 ····· 43
[그림 Ⅲ-9] 충북 30대 여성 혼인상태별 고용율 ····· 63
[그림 Ⅲ-10] 충북 20대 여성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73
[그림 Ⅲ-11] 교육수준별 고용율 ····· 04
[그림 Ⅲ-12]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 14
[그림 Ⅲ-13] 성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 44
[그림 Ⅲ-14] 충북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1-2016) ····· 84
[그림 Ⅲ-15] 충북 제조업분야 여성취업자 수 ····· 84
[그림 Ⅲ-16] 충북 제조업 분야 남성취업자 수 ····· 84
[그림 Ⅲ-17] 충북 취업자 종사상 지위 성별 비율 ····· 15
[그림 Ⅲ-18] 취업자 종사상 지위 ····· 25
[그림 Ⅲ-19] 충북 임시직 종사자 현황 및 임시직 고용 규모 ····· 45

[그림 Ⅲ-20] 충북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 ····· 65
[그림 Ⅲ-21]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 ····· 65
[그림 Ⅲ-22] 충북 산업별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 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 ··· 68
[그림 Ⅲ-23] 충북 제조업 성별 임금 분포 ····· 95
[그림 Ⅲ-24] 충북 근로자 성별 임금 분포 ····· 95
[그림 Ⅲ-25]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06
[그림 Ⅲ-26] 충청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
[그림 Ⅳ-1] 우리나라 지역산업 육성사업 연혁 ····· 86
[그림 Ⅳ-2] 제조업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여성비율 ····· 08
[그림 Ⅳ-3] 제조업의 고용증가율 ····· 18
[그림 Ⅳ-4] 충북지역 전국상위산업군 종사자수 증가율 및 여성종사자 수 비율 ··· 87
[그림 Ⅳ-5] 충북지역 전국상위산업군 여성종사자 증가수('08~'14) ····· 19
[그림 Ⅳ-6] 충북지역 전국상위산업군 남성종사자 증가수('08~'14) ····· 19
[그림 Ⅳ-7] 5대 주력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 59
[그림 Ⅳ-8] 3대 협력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 69
[그림 Ⅳ-9] 주력 및 협력산업 여성종사자수, 여성종사자 비율 ····· 89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CBWF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충북지역 여성 고용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여성 여성고용정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총론적 성격의 연구로, 연구를 통해 충북 지역 여성 고용 문제의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 여성고용정책이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지역 여성고용 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고용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지역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후 지역 여성고용 문제 해소를 고려한 산업구조 형성 및 산업육성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의 주요 현안이며, 특히 여성 일자리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여성 고용정책은 지역 고용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필요가 있음

- 충북 민선6기 지방정부는 일자리정책을 최대 현안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전개해 왔으며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의 산업기반, 인적자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옴 (충청북도, 2014)[1)]
- 2017년 5월 출범한 새정부 역시 일자리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 여성은 노동시장 구조의 취약한 위치에 배치되어온 경향이 있고 고용 전반의 양적, 질적 저하는 여성들에게 더욱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고용시장의 축소, 청년 실업의 증가와 같은 상황이 여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수량적 유연화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남성보다

1) 충북 민선6기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1조 2,362억원으로 연도별로 약 2,500억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되었음 (충청북도, 2014: 4)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 고용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이주희, 2012), 실제로 저성장 국면에서 나타난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 여성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미치고 있어서 청년 여성들이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성차별 문제가 보고되고 있음[2)]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전략을 고려한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형성되지 못했으며, 그보다는 "여성"의 성별적 특성에 부합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으로 논의가 전개된 경향이 있음[3)]

- 대부분 고용정책이 중앙정부 주도 하에 추진됨에 따라 고용정책이 지역 노동시장의 복잡성, 특수성, 다양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지역 특성에 기반한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함창모, 2009)
- 그럼에도 여성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산업전략을 고려한 여성고용정책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지 못했으며 그보다는 "여성"의 성별적 특성에 부합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으로 논의가 전개된 경향이 있음[4)]
- 하지만, 이주희(2012)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성"을 특정한 고용정책은 여성고용을 개선하는 효과가 미비하거나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같이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낳는 역설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음

○ 이 연구는 충북 지역 여성 고용 문제의 특성을 진단하여 지역 여성 고용 문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충북 산업구조를 고려한 여성고용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고용의 정책방안을 지역 산업육성정책의 정책방향을 고려하며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임

---

2) 청년여성들은 "취업준비 3개월만 하면 페미니스트 돼요", "성전환 하고 싶단 생각까지 들었어요"라고 호소하며 청년 실업문제가 청년여성들을 더욱 취약하게 내몰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음 (세계일보, 2017. 1. 15. "취업준비 하다가 페미니스트 돼요")

3) 일례로 「2017년도 충청북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의 여성고용정책 전략은 "취약계층 특화 일자리 창출"로 제안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성 일자리 마련을 통해 여성경제인구의 해소"가 방향으로 설정되었음. 여성고용정책은 주류 정책을 성평등하게 추진하는 방향보다는 여성 특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4) 일례로 「2017년도 충청북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의 여성고용정책 전략은 "취약계층 특화 일자리 창출"로 제안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성 일자리 마련을 통해 여성경제인구의 해소"가 방향으로 설정되었음. 여성고용정책은 주류 정책을 성평등하게 추진하는 방향보다는 여성 특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지역산업구조 검토, 충북 여성고용특성 분석, 지역산업육성정책 현황 및 지역육성산업 여성 고용현황 분석, 여성고용정책 현황 및 추진전략 등으로 구성됨

- 첫째, 지역산업구조 검토에서는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개괄적 특성을 살펴봄(Ⅱ장)
- 둘째, 충북여성고용현황 분석에서는 여성고용 특성을 인적 자원 속성,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함 (Ⅲ장)
- 셋째,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전개과정 및 충북 산업육성정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지역 육성 산업에서 여성 고용현황을 분석함 (Ⅳ장)
- 넷째, 여성고용정책을 유형화 한 후, 충북지역 여성고용정책 추진 현황, 타 지역 여성고용정책 정책 사례를 검토함
- 끝으로,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지역 여성고용 우선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검토함

○ 이 연구는 주로 문헌 검토 및 통계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기업 인사 담당자 자문회의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8년~2014년), 지역별 고용조사(2008년~2016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충북지역 산업구조 및 여성 고용 특성을 진단함
- 충북 여성고용정책, 산업육성정책 관련 각종 계획,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검토함
- 연구 진행을 위해 관련분야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여성 취업 지원기관 실무자 자문회의, 기업인사담당자 자문회의를 개최함

II. 충북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1. 인구구조 분석
2. 산업구조 분석
3. 소결

CBWF

1.인구구조 분석

가. 주민등록 인구현황

○ 2017년 10월 현재 충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593,577명이며 여성 789,111명, 남성 804,466명으로 여성 인구의 비중은 49.5%임

- 지난 10년 동안 충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3%로 전국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0.49%보다 더 높음 (2008~2017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충북 0.53% 〉 전국 0.49%)
- 충북의 경우 여성 인구보다 남성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전국은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충북인구 연평균 증가율('08~'17) : 여성 0.50% 〈 남성 0.55%
  · 전국인구 연평균 증가율('08~'17) : 여성 0.53% 〉 남성 0.45%
- 2008~2017년 동안 충북 인구의 전국 대비 비중은 3.07% ~ 3.08%로 큰 변동이 없음

[표 Ⅱ-1] 주민등록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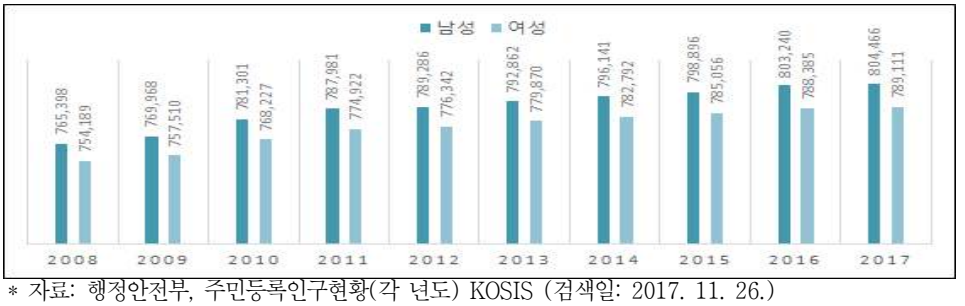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충북				전국				충북 비중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2008	1,520	765	754	49.6%	49,540	24,823	24,717	49.9	3.07%
2009	1,527	770	758	49.6%	49,773	24,930	24,843	49.9	3.07%
2010	1,550	781	768	49.6%	50,516	25,310	25,205	49.9	3.07%
2011	1,563	788	775	49.6%	50,734	25,407	25,327	49.9	3.08%
2012	1,566	789	776	49.6%	50,948	25,504	25,444	49.9	3.07%
2013	1,573	793	780	49.6%	51,141	25,588	25,553	50	3.08%
2014	1,579	796	783	49.6%	51,328	25,669	25,659	50	3.08%
2015	1,584	799	785	49.6%	51,529	25,758	25,771	50	3.07%
2016	1,592	803	788	49.5%	51,696	25,828	25,869	50	3.08%
2017	1,594	804	789	49.5%	51,769	25,853	25,916	50.1	3.08%
연평균 증감율	0.53%	0.55%	0.50%		0.49%	0.45%	0.53%		

* 주: 2017년 주민등록인구는 2017. 10월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 년도) KOSIS (검색일: 2017. 11. 26.)

[그림 Ⅱ-1] 충북 남녀인구 현황 (2008~2017)

(단위: 명)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 년도) KOSIS (검색일: 2017. 11. 26.)

○ 충북의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50~59세가 16.7%로 전국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할 때 충북은 50대 이상 중고령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20~30대 청년층 인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음

- 충북의 고령화율[5]은 15.8%로 전국 고령화율 14.1%에 비하여 1.7%p 높으며 특히 충북 여성인구의 고령화율(18.5%)은 남성인구의 고령화율(13.1%)에 비해 5.4%p 높음

[표 Ⅱ-2]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017. 10.)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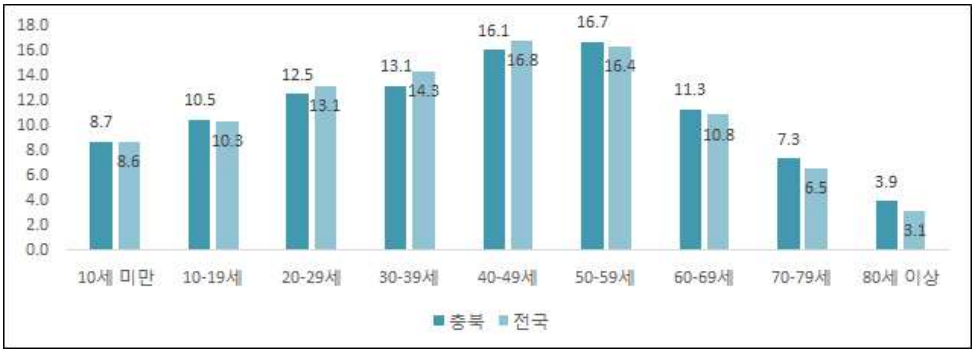
	충북				전국			
	총 인구수	남성 인구수	여성 인구수	총인구 대비 비중	총 인구수	남성 인구수	여성 인구수	총인구 대비 비중
계	1,594	804	789	100%	51,769	25,853	25,916	100%
10세 미만	138	71	67	8.7%	4,458	2,290	2,169	8.6%
10-19세	167	87	80	10.5%	5,335	2,773	2,561	10.3%
20-29세	199	109	90	12.5%	6,799	3,582	3,218	13.1%
30-39세	209	109	100	13.1%	7,418	3,794	3,624	14.3%
40-49세	256	132	124	16.1%	8,705	4,421	4,284	16.8%
50-59세	266	137	129	16.7%	8,471	4,273	4,198	16.4%
60-69세	180	90	90	11.3%	5,609	2,734	2,875	10.8%
70-79세	116	50	66	7.3%	3,364	1,473	1,890	6.5%
80세 이상	62	19	43	3.9%	1,610	512	1,098	3.1%
65세 이상 인구	251	106	146		7,311	3,109	4,202	
고령화율	15.8%	13.1%	18.5%		14.1%	12%	16.2%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10.) KOSIS (검색일: 2017. 11. 26.)

5) 고령화율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그림 Ⅱ-2] 충북 및 전국 연령대별 인구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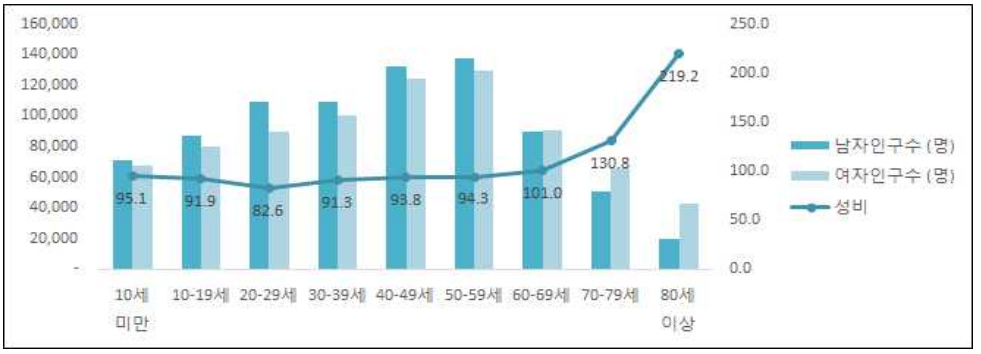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10.) KOSIS (검색일: 2017. 11. 26.)

○ 충북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에서 성비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이며 20대 남성 인구 100명당 20대 여성인구는 82.6명에 불과하며, 60세 미만까지는 남성 인구수가 여성 인구 보다 더 많다가 60세 이후에는 여성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경향임

- 전국의 인구 분포 역시 20대의 경우 남성 인구수가 여성 인구수보다 많지만 전국의 20대 성비는 89.8명으로 충북은 전국과 비교해서도 20대 여성인구의 비중이 낮음
- 60세 이후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져서 충북 80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219.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음

[그림 Ⅱ-3] 충북 연령대별 성별 인구 및 성비

(단위: 명)



* 주: 성비는 남성인구 100명당 여성인구의 수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7. 10.) KOSIS (검색일: 2017. 11. 26.)

나. 인구이동현황

○ 2016년 타시도에서 충북으로 전입한 인구는 78,523명, 충북에서 타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73,511명으로 5,011명이 충북으로 순전입했으며, 남성 순전입자(3,528명)가 여성 순전입자가(1,483명)보다 많으며 20대는 순전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타남

-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순전출보다 순전입 인구가 많은 시도는 8개이며 충북은 5번째로 순전입인구가 많은 지역임 (경기도 〉 세종시 〉 제주도 〉 충남 〉 인천 〉 충북 순)
- 충북의 순전입 인구는 2011년 8,079명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6년 5,011명으로 다시 증가함

[표 Ⅱ-3] 충북 연령대별 시·도간 전입·전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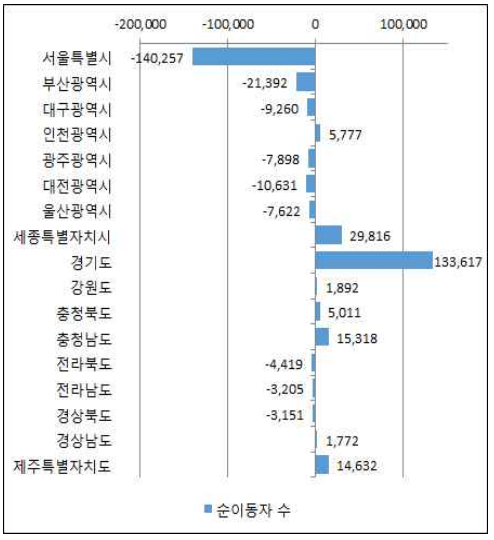
(단위: 명)

	전체			여성			남성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자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자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자
계	78,523	73,512	5,011	36,315	34,832	1,483	42,208	38,680	3,528
10세 미만	6,359	6,149	210	3,159	3,085	74	3,200	3,064	136
10~19세	5,946	5,972	-26	2,693	2,810	-117	3,253	3,162	91
20~29세	19,661	21,798	-2,137	8,407	9,874	-1,467	11,254	11,924	-670
30~39세	15,645	14,976	669	6,983	6,656	327	8,662	8,320	342
40~49세	10,972	9,683	1,289	4,769	4,241	528	6,203	5,442	761
50~59세	10,436	7,631	2,805	5,073	3,816	1,257	5,363	3,815	1,548
60~69세	5,655	4,060	1,595	2,739	2,120	619	2,916	1,940	976
70~79세	2,435	1,937	498	1,411	1,188	223	1,024	749	275
80세 이상	1,414	1,306	108	1,081	1,042	39	333	264	69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6) , 자료 다운일자 2017. 11. 2

[그림 Ⅱ-4] 시도별 인구 순이동자 수(2016)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6

[그림 Ⅱ-5] 충북 인구 순이동자 수(2007~2016)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국내이동인구통계, 2007~2016

❍ 2016년 충북 20대 여성 역외 전출자는 20대 남성 역외 전출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으며 (여성 -1,467명, 남성 -670명) 20대 남성의 경우 2007년 이후 역외 전출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성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의 경우 20대 여성 순전출자가 936명, 20대 남성 순전출자가 1,080명으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남성 순전출자는 점차 감소하여 2016년의 경우 670명인 반면, 여성 순전출자는 1,467명임

[표 Ⅱ-4] 충북 20대 역외 전입 전출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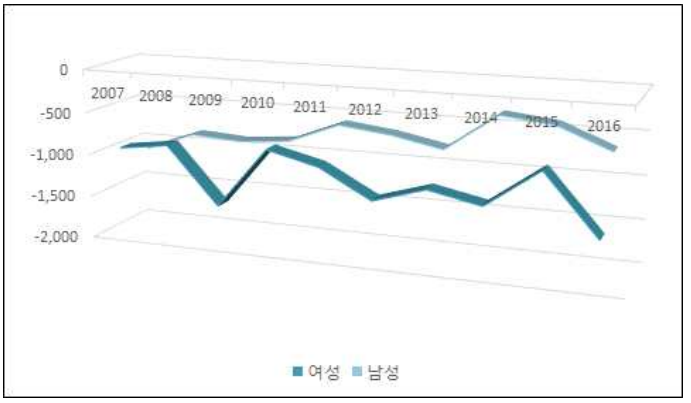
	20대 여성			20대 남성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자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자
2007	11,088	12,024	-936	11,811	12,891	-1,080
2008	10,117	10,974	-857	11,464	12,323	-859
2009	9,138	10,657	-1,519	11,029	11,925	-896
2010	9,146	9,953	-807	10,868	11,711	-843

	20대 여성			20대 남성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자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자
2011	8,772	9,726	-954	10,625	11,231	-606
2012	8,366	9,648	-1,282	10,198	10,873	-675
2013	7,959	9,056	-1,097	9,635	10,429	-794
2014	8,308	9,529	-1,221	10,748	11,108	-360
2015	8,842	9,620	-778	11,248	11,676	-428
2016	8,407	9,874	-1,467	11,254	11,924	-670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6) , (자료 검색일 2017. 11. 2)

[그림 Ⅱ-6] 충북 20대 성별 순이동자 현황

(단위: 명)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6) , (http://kosis.kr, 검색일 2017. 11. 2.)

다.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 2040년 충북의 인구는 1,737,373명으로 추정되며(여성 854,978명(49.2%), 남성 500,904명(50.8%)),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2017년 전체 인구의 71.6%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2040년에는 54.0%로 감소할 전망이며, 대신 2040년 고령인구는 2017년 대비 151.5% 증가하고, 유소년인

구는 1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여성 역시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한 패턴이지만, 여성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더 늘어서 2040년에는 충북 여성인구의 38.4%가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상됨

[표 Ⅱ-5] 충북 장래인구추계(2017, 2040)

(단위: 천명, %)

		2017		2040		증감율(%) ('17~'40)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계	총인구	1,605	100.0	1,737	100.0	8.2
	생산가능인구(15~64세)	1,150	71.6	938	54.0	-18.4
	유소년인구(0~14세)	211	13.1	184	10.6	-12.6
	고령인구(65세 이상)	245	15.2	615	35.4	151.5
남성	총인구	814	100.0	882	100.0	8.4
	생산가능인구(15~64세)	603	74.1	501	56.8	-17.0
	유소년인구(0~14세)	109	13.3	94	10.7	-13.2
	고령인구(65세 이상)	102	12.6	287	32.6	180.6
여성	총인구	791	100.0	855	100.0	8.1
	생산가능인구(15~64세)	546	69.1	437	51.1	-20.0
	유소년인구(0~14세)	102	12.9	90	10.5	-12.0
	고령인구(65세 이상)	142	18.0	328	38.4	130.5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중위추계 시나리오 기준) (http://kosis.kr)

2. 산업구조 분석

가. GRDP 현황

○ 2015년 기준 충북 지역내총생산(GRDP)(2010=100)은 50조 2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실질 GRDP가 50조를 돌파했고 전국대비 비중 역시 3.44%로 상승했으며,

2008~2015년 동안 충북의 GRDP 연평균 증가율은 5.4%임

- 충북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GRDP 기준으로 충북경제는 지속적 성장 추세임

[표 Ⅱ-6] 충북 및 전국 GRDP 현황(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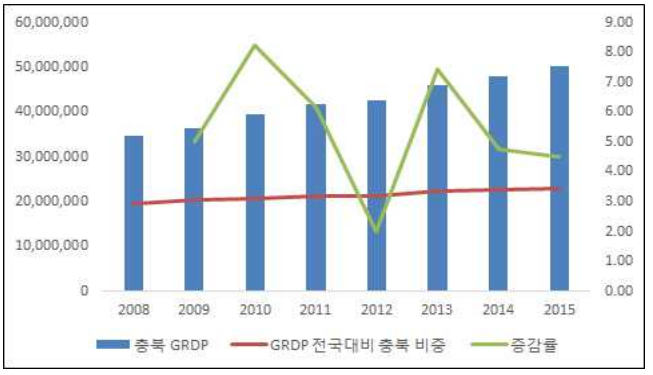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현황 (백만원)			전년대비 증감률 (%)	
	충북	전국	전국 대비 비중	충북	전국
2008	34,725,867	1,179,446,782	2.94		
2009	36,463,895	1,187,344,240	3.07	5.00	0.67
2010	39,469,541	1,265,146,117	3.12	8.24	6.55
2011	41,908,454	1,308,881,621	3.20	6.18	3.46
2012	42,750,841	1,338,985,832	3.19	2.01	2.30
2013	45,928,930	1,376,143,497	3.34	7.43	2.78
2014	48,111,348	1,422,192,144	3.38	4.75	3.35
2015	50,278,088	1,462,700,727	3.44	4.50	2.85
CAGR	5.4%	3.1%			

* 주 : GRDP는 2010년 기준 불변가격임
*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http://kosis.kr)

[그림 Ⅱ-7] 충북 GRDP 현황 (2008~2015)

(단위: 백만원, %)



* 주 : GRDP는 2010년 기준 불변가격임
*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http://kosis.kr)

나. 산업별 부가가치 현황

○ 2015년 충북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부가가치창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제조업은 전체 부가가치의 4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충북의 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음

- 충북 총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광업·제조업 47.1% 〉 서비스업 43.8% 〉 건설업 4.7% 〉 농림어업 3.7%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9% 순임
- 충북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08년 12조 5천억원에서 2015년 21조 5천억원으로 8조 9천억원 증가했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8.6%에서 46.6%로 증가함
- 2015년 전국 총부가가치는 광업·제조업이 31.6%, 서비스업이 60.0%를 차지해서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충북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46.6%)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43.8%)을 상회하고 있음

[표 Ⅱ-7] 충북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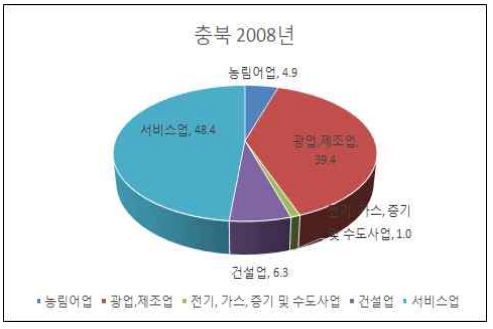
	전국		충북				
	2015년		2008년		2015년		CAGR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08~15
지역내총생산	1,462,700,727	100	34,725,867	100	50,278,088	100	5.4%
(순생산물세)	140,181,852	9.6	2,832,164	8.2	4,643,379	9.2	7.3%
총부가가치	1,322,641,855	-	31,890,854	-	45,688,510	-	5.3%
농림어업	29,204,609	2.2	1,550,653	4.9	1,706,630	3.7	1.4%
광업,제조업	417,830,945	31.6	12,577,320	39.4	21,503,135	47.1	8.0%
광업	2,430,147	0.2	254,473	0.8	213,792	0.5	-2.5%
제조업	415,400,798	31.4	12,322,847	38.6	21,289,343	46.6	8.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1,442,648	1.6	309,381	1.0	425,838	0.9	4.7%
건설업	60,635,173	4.6	2,008,005	6.3	2,134,586	4.7	0.9%
서비스업	794,070,287	60.0	15,436,135	48.4	20,020,239	43.8	3.8%
도매및소매업	123,116,136	9.3	1,543,693	4.8	2,100,762	4.6	4.5%
운수업	49,509,046	3.7	921,655	2.9	1,325,397	2.9	5.3%

	전국		충북				
	2015년		2008년		2015년		CAGR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08~15
숙박및음식점업	31,399,837	2.4	825,625	2.6	849,182	1.9	0.4%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6,301,463	4.3	512,576	1.6	603,747	1.3	2.4%
금융및보험업	88,663,175	6.7	1,226,747	3.8	1,628,162	3.6	4.1%
부동산업및임대업	98,408,550	7.4	1,951,637	6.1	2,088,198	4.6	1.0%
사업서비스업	95,668,324	7.2	1,173,233	3.7	2,266,408	5.0	9.9%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89,342,160	6.8	3,236,904	10.1	4,054,632	8.9	3.3%
교육서비스업	65,102,631	4.9	1,996,702	6.3	2,221,225	4.9	1.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8,736,686	4.4	1,080,215	3.4	1,655,287	3.6	6.3%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7,822,279	2.9	967,148	3.0	1,227,239	2.7	3.5%

* 주 : GRDP는 2010년 기준 불변가격임
*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http://kosis.kr)

[그림 Ⅱ-8] 충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생산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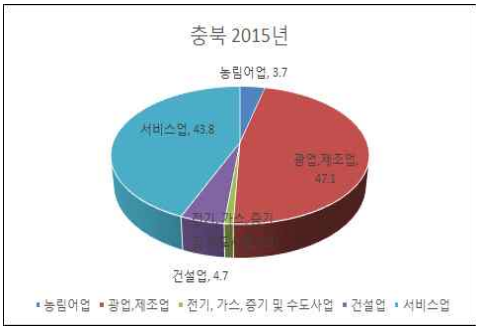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http://kosis.kr)

[그림 Ⅱ-9] 충북 경제활동별부가가치생산 (2015)

(단위: %)



*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http://kosis.kr)

다. 산업별 사업체 현황

○ 2014년 충북 사업체 수는 119,499개로 전국 사업체 수의 3.13%를 차지하며 사업체 수의 비중은 산업별로 도매 및 소매업(29,979개, 25.1%), 숙박 및 음식점업(25,087개, 21.0%), 제조업(11,564개, 9.7%) 순으로 많음

- 2014년 충북 사업체 현황에서 서비스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수의 85.8%를 차지해서 사업체 수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수임
- 제조업 분야 사업체 수는 2008년 8,801개에서 2014년 11,564개로 2008~2014년 동안 2,763개 사업체가 증가했으며(연평균 증가율 4.7%), 제조업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임(2014년 기준)

[표 Ⅱ-8] 산업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전국		충북					
	2014년		2008년		2014년		증감 규모 '08~'14	연평균 증가율 '08~'14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계	3,812,820	100.0	101,861	100.0	119,499	100.0	17,638	2.7
농업, 임업 및 어업	3,184	0.1	113	0.1	174	0.1	61	7.5
광업, 제조업	399,184	10.5	8,862	8.7	11,662	9.8	2,800	4.7
광업	2,013	0.1	61	0.1	98	0.1	37	8.2
제조업	397,171	10.4	8,801	8.6	11,564	9.7	2,763	4.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840	0.0	52	0.1	70	0.1	18	5.1
건설업	128,215	3.4	3,721	3.7	5,045	4.2	1,324	5.2
서비스업	3,280,397	86.0	89,113	87.5	102,548	85.8	13,435	2.4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761	0.2	258	0.3	418	0.3	160	8.4
도매 및 소매업	997,120	26.2	25,961	25.5	29,979	25.1	4,018	2.4
운수업	378,884	9.9	9,809	9.6	10,516	8.8	707	1.2
숙박 및 음식점업	703,364	18.4	21,527	21.1	25,087	21.0	3,560	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0,664	1.1	445	0.4	562	0.5	117	4.0

	전국		충북					
	2014년		2008년		2014년		증감 규모 '08~'14	연평균 증가율 '08~'14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금융 및 보험업	41,909	1.1	1,192	1.2	1,262	1.1	70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1,186	3.7	2,953	2.9	3,627	3.0	67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6,376	2.5	1,553	1.5	2,112	1.8	559	5.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785	1.3	965	0.9	1,620	1.4	655	9.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096	0.3	546	0.5	557	0.5	11	0.3
교육 서비스업	175,389	4.6	5,193	5.1	5,370	4.5	177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505	3.4	2,912	2.9	4,056	3.4	1,144	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635	2.7	3,233	3.2	3,594	3.0	361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9,723	10.5	12,566	12.3	13,788	11.5	1,222	1.6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2008, 2014)

○ 충북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109,520개(85.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2007년 86개소에서 2014년 99개소로 13개 사업체가 증가함

[표 Ⅱ-9]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전국		충북					
	2014년		2008년		2014		증감 규모 '08~'14	연평균 증가율 '08~'14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계	3,812,820	100	101,861	100.0	119,499	100.0	17,638	2.4
5인 미만	3,250,546	85.3	88,693	87.1	102,509	85.8	13,816	4.7

	전국		충북					
	2014년		2008년		2014		증감 규모 '08~'14	연평균 증가율 '08~'14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5~10인 미만	295,271	7.7	6,181	6.1	8,133	6.8	1,952	4.0
10~30인 미만	184,705	4.8	4,727	4.6	5,977	5.0	1,250	4.4
30~50인 미만	37,947	1.0	1,022	1.0	1,324	1.1	302	3.3
50~100인 미만	27,667	0.7	820	0.8	996	0.8	176	5.6
100~300인 미만	13,259	0.4	332	0.3	461	0.4	129	1.0
300~500인 미만	1,756	0.1	51	0.1	54	0.1	3	4.3
500인 이상	1,669	0.0	35	0.0	45	0.0	10	2.7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2008, 2014)

라. 산업별 종사자 현황

○ 2014년 충북지역 산업별 총 종사자 수는 620,557명이며 종사자 비중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으로 충북 사업체 종사자의 28.8%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178,424명)

- 제조업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76,267명, 12.3%) 〉 숙박 및 음식점업(63,869명, 10.3%) 〉 교육서비스업(48,906명, 7.9%) 〉 건설업 (34,259명, 5.5%)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음
- 2014년 제조업 분야 종사자 규모는 2008년 시점으로부터 41,319명 증가했으며 2008~2014년 동안 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연평균 4.5% 증가함
- 전국 평균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19.9%이고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74.0%인 것과 비교하면 충북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낮음

[표 Ⅱ-10] 산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전국		충북					
	2014		2008		2014		증감규모	연평균 증가율
	종자사 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계	19,899,786	100.0	498,337	100.0	620,557	100.0	122,220	3.7%
농업, 임업 및 어업	36,474	0.2	1,528	0.3	2,145	0.3	617	5.8%
광업, 제조업	3,973,705	20.0	138,043	27.7	179,334	28.9	41,291	4.5%
광업	16,311	0.1	938	0.2	910	0.1	28	-0.5 %
제조업	3,957,394	19.9	137,105	27.5	178,424	28.8	41,319	4.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70,593	0.4	2,176	0.4	2,191	0.4	15	0.1%
건설업	1,098,535	5.5	32,090	6.4	34,259	5.5	2,169	1.1%
서비스업	14,720,479	74.0	324,500	65.1	402,628	64.9	78,128	3.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2,216	0.4	2,591	0.5	3,865	0.6	1,274	6.9%
도매 및 소매업	2,998,923	15.1	65,569	13.2	76,267	12.3	10,698	2.6%
운수업	1,047,788	5.3	24,829	5.0	26,850	4.3	2,021	1.3%
숙박 및 음식점업	2,071,581	10.4	53,295	10.7	63,869	10.3	10,574	3.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33,297	2.7	5,220	1.0	5,243	0.8	23	0.1%
금융 및 보험업	698,516	3.5	16,223	3.3	15,938	2.6	285	-0.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4,750	2.5	10,316	2.1	12,301	2.0	1,985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29,655	4.7	11,294	2.3	14,713	2.4	3,419	4.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76,789	4.9	12,733	2.6	22,206	3.6	9,473	9.7%

	전국		충북					
	2014		2008		2014		증감규모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48,579	3.3	19,941	4.0	27,512	4.4	7,571	5.5%
교육 서비스업	1,509,046	7.6	41,917	8.4	48,906	7.9	6,989	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13,443	7.1	26,835	5.4	43,214	7.0	16,379	8.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5,964	1.8	8,786	1.8	11,760	1.9	2,974	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932	4.8	24,951	5.0	29,984	4.8	5,033	3.1%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2008, 2014)

3. 소결

○ 충북의 인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08~'17년 연평균 성장률 0.53%) 충북은 순전출인구 보다는 순전입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남성 인구의 증가율이 여성 인구의 증가율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국 단위 기준에서 여성인구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과 대조됨

- 특히, 20대 여성 역외전출자는 20대 남성 역외 전출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아서 충북은 정주환경 측면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충북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충북 지역내총생산(2010=100)은 50조 2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실질 GRDP가 50조를 돌파했으며 2008~2015년 충북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은 5.4%임

○ 충북지역의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종사자 수 등의 산업별 비중을 고려할 때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충북지역 총부가가치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충북지역 산업 총 종사자 수 620,557명의 28.8%(178,424명)가 제조업 종사자임

- 충북은 부가가치 비중, 종사자 비중 모두 전국 단위 기준과 비교할 때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2008년~2014년 동안 충북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8.1% 증가했고 종사자 규모 역시 연평균 4.5% 증가함

III. 충북 여성고용 현황 및 특성

1. 여성경제활동현황
2. 여성고용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여성고용의 산업구조적 특성
4. 충북 지역성평등지수 고용부분
5. 소결

CBWF

1. 여성 경제활동현황

○ 충북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852천명이며(여성 367천명, 남성 485천명)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4%,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2.8%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8.4%p임

- 충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보다 1.1%p 낮고,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보다 2.3%p 높음
  · 경제활동참가율 충북 남성 72.8% 〈 전국 남성 73.9% (격차 -1.1%p)
  · 경제활동참가율 충북 여성 54.4% 〉 전국 여성 52.1% (격차 2.3%p)
- 고용율 역시 여성 52.9% 남성 71.0%로 남녀격차가 약 20%p 수준이며 전국과 비교해서 충북 남성 고용율은 전국 남성보다 0.1%p 낮고, 충북여성 고용율은 전국보다 2.7%p 높음
- 충북의 남녀 실업률은 각각 2.5%, 2.9%이며 충북의 실업률은 전국에 비해서 낮음

[표 Ⅲ-1] 성별 경제활동 현황(15세 이상)(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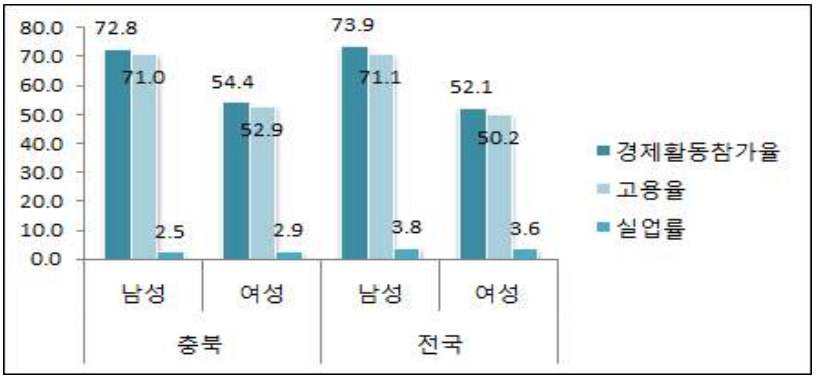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분	충북			전국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5세 이상 인구 (천명)	1,341	666	675	43,416	21,282	22,134
경제활동인구(천명)	852	485	367	27,247	15,718	11,529
비경제활동인구(천명)	489	181	308	16,169	5,564	10,604
경제활동참가율 (%)	63.6	72.8	54.4	62.8	73.9	52.1
고용률 (%)	61.9	71.0	52.9	60.4	71.1	50.2
실업률 (%)	2.6	2.5	2.9	3.7	3.8	3.6
경제활동참가율 성별격차	18.4%p			21.8%p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그림 Ⅲ-1] 경제활동참여율 현황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이후 더디지만 증가하는 경향이며 2008~2016년 동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임

- 충북여성은 충북남성보다 경제활동참가율 연평균 증가율이 더 높지만 (여성 1.3% 〉 남성 0.1%)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더디게 감소하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연평균증가율에서 충북여성은 전국여성 평균에 비해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아서 충북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임
- 전국 16개 시·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63.4%임

[표 Ⅲ-2]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2008~2016)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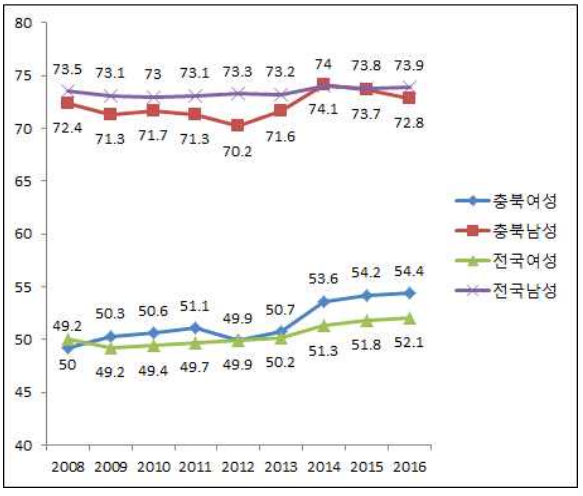
	충북						전국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8	726	301	425	60.5	49.2	72.4	24,347	10,139	14,208	61.5	50.0	73.5
2009	739	313	426	60.6	50.3	71.3	24,394	10,076	14,319	60.8	49.2	73.1
2010	753	318	435	61.0	50.6	71.7	24,748	10,256	14,492	61.0	49.4	73.0
2011	764	325	439	61.1	51.1	71.3	25,099	10,416	14,683	61.1	49.7	73.1
2012	766	324	443	59.9	49.9	70.2	25,501	10,609	14,891	61.3	49.9	73.3

	충북						전국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3	792	333	459	61.0	50.7	71.6	25,873	10,802	15,071	61.5	50.2	73.2
2014	835	355	480	63.7	53.6	74.1	26,536	11,149	15,387	62.4	51.3	74.0
2015	850	364	487	63.9	54.2	73.7	26,913	11,370	15,543	62.6	51.8	73.8
2016	852	367	485	63.6	54.4	72.8	27,247	11,529	15,718	62.8	52.1	73.9
연평균 증가율	2.0%	2.5%	1.7%	0.6%	1.3%	0.1%	1.4%	1.6%	1.3%	0.3%	0.5%	0.1%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http://kosis.kr

[그림 Ⅲ-2]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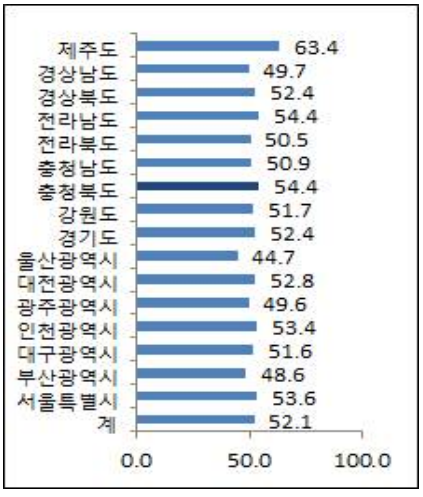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Ⅲ-3] 시·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 2016년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는 369천명, 남성 취업자 수는 477천명이며 15~64세 생산가능인구 기준 고용율은 여성 61.8%, 남성 76.5% 여성과 남성의 고용율 격차는 14.7%p임

- 15~64세 연령 기준 여성 고용율은 15세 이상 여성 인구 전체 고용률보다 더 높으며 남성과의 격차 역시 감소함
- 15~64세 충북 여성 고용율(61.8%)은 같은 연령 여성 전국 평균 고용율(56.5%)에 비해 5.3%p 높음

[표 Ⅲ-3]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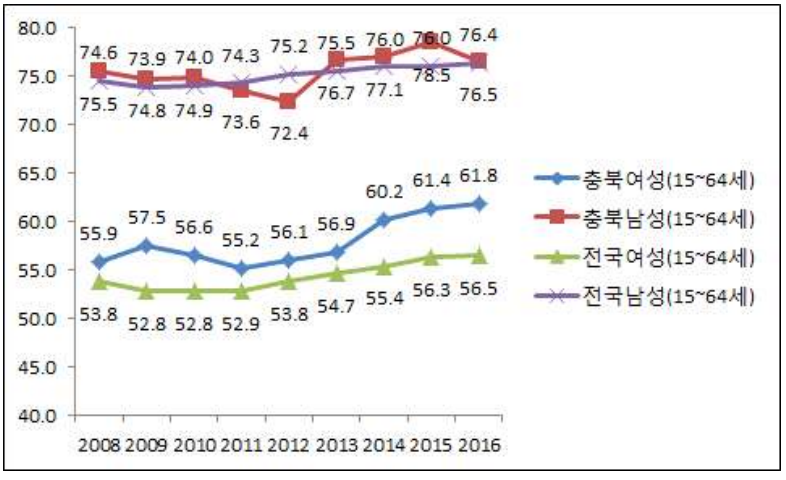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충북						전국					
	취업자 수			고용율(15~64)			취업자 수			고용율(15~64세)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8	735	311	424	65.9	55.9	75.5	22,014	9,208	12,806	64.2	53.8	74.6
2009	751	325	426	66.3	57.5	74.8	22,156	9,212	12,943	63.4	52.8	73.9
2010	756	322	433	65.9	56.6	74.9	22,353	9,285	13,068	63.4	52.8	74.0
2011	756	321	435	64.6	55.2	73.6	22,566	9,357	13,209	63.6	52.9	74.3
2012	773	334	439	64.4	56.1	72.4	23,033	9,585	13,448	64.5	53.8	75.2
2013	810	342	468	67.0	56.9	76.7	23,450	9,816	13,634	65.2	54.7	75.5
2014	838	365	474	68.8	60.2	77.1	23,769	9,981	13,788	65.7	55.4	76.0
2015	861	371	490	70.2	61.4	78.5	24,116	10,200	13,916	66.3	56.3	76.0
2016	846	369	477	69.4	61.8	76.5	24,279	10,248	14,030	66.5	56.5	76.4
연평균 증가율	1.8 %	2.2 %	1.5 %	0.6%	1.3%	0.2%	1.2%	1.3%	1.1%	0.4 %	0.6 %	0.3 %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각 년도) 원자료 분석

[그림 Ⅲ-4] 15~64세 인구 고용율 현황

(단위: %)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각 년도) 원자료 분석

○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지역은 괴산(59.9%) 음성(57.4%) 보은(57.0%) 순이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천(50.1%)임

-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지역이 음성(83.1%), 진천(80.3%), 증평(78.2%) 순이며,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지역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제천임(68.5%)
-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음성(25.7%p), 진천(24.9%p), 증평(23.8%p)으로 이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임

[표 Ⅲ-4] 충북 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격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
충청북도	860,536	64.1	498,044	74.6	362,492	53.7	21.0
충주시	111,583	63.4	62,975	72.5	48,608	54.5	18.0
제천시	68,815	59.1	39,297	68.3	29,518	50.1	18.1
청주시	446,724	63.4	259,195	74.3	187,529	52.7	21.6
보은군	19,190	66.6	10,657	77.1	8,533	57.0	20.1
옥천군	29,408	64.5	16,820	74.7	12,587	54.6	20.2
영동군	29,174	65.7	16,289	74.9	12,885	56.9	18.0
진천군	39,483	68.4	24,059	80.3	15,424	55.5	24.9
괴산군	22,355	68.7	12,536	77.7	9,819	59.9	17.9
음성군	56,905	70.8	34,708	83.1	22,197	57.4	25.7
단양군	16,683	64.9	9,497	75.3	7,185	54.9	20.4
증평군	20,217	66.4	12,011	78.2	8,207	54.4	23.8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2. 여성고용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연령대별 고용현황

○ 25~29세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중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충북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곡선의 우측이 발달하고 좌측이 꺼져있는 양상임 => 청년세대 여성 고용의 취약성 및 여성 경력단절 비율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2016년 기준)

- 충북 25~2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4.0%인 반면 전국 평균은 75.4%로 충북 여성 2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이 7.0%p 낮음
- 반면 35세 이후부터는 충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10%p 더 높아서 충북의 경우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음
- 여성고용률을 나타낸 [그림Ⅲ-5]은 25~29세 여성의 고용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25~29세 여성 고용율 62.7%) 연령대별 고용율 그래프는 좌측의 M자형 곡선이 무너져 있는 양태로 나타남

[표 Ⅲ-5]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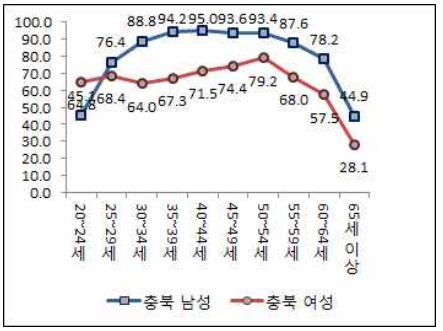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충북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0~24세	19	(45.1)	33	(64.8)	644	(45.4)	918	(55.7)
25~29세	42	(76.4)	30	(68.4)	1,356	(76.7)	1,200	(75.4)
30~34세	46	(88.8)	30	(64.0)	1,701	(91.3)	1,082	(62.3)
35~39세	51	(94.2)	36	(67.3)	1,892,	(94.6)	1,132	(58.7)
40~44세	56	(95.0)	40	(71.5)	1,960	(95.1)	1,275	(63.7)
45~49세	61	(93.6)	46	(74.4)	2,040	(94.4)	1,503	(70.4)
50~54세	62	(93.4)	48	(79.2)	1,948,	(92.3)	1,410	(68.2)
55~59세	59	(87.6)	41	(68.0)	1,761	(87.7)	1,205	(59.7)
60~64세	39	(78.2)	27	(57.5)	1,126	(76.6)	770	(50.3)
65세 이상	46	(44.9)	39	(28.1)	1,290	(43.6)	1,042	(25.8)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5] 충북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6] 전국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표 Ⅲ-6] 연령대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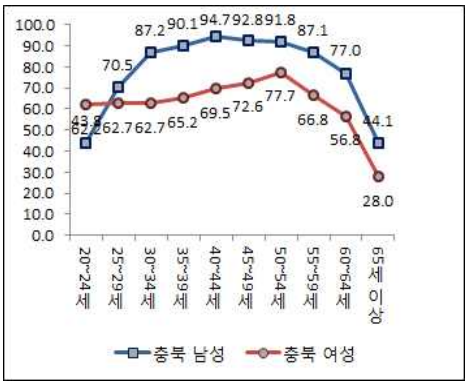
(단위: 명, (%))

	충북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취업자수	고용율	취업자수	고용율	취업자수	고용율	취업자수	고용율
20~24세	18,935	(43.8)	32,541	(62.2)	587,288	(41.3)	830,151	(50.4)
25~29세	39,158	(70.5)	28,339	(62.7)	1,232,399	(69.6)	1,121,197	(70.4)
30~34세	45,616	(87.2)	29,579	(62.7)	1,628,375	(87.4)	1,043,466	(60.0)
35~39세	49,479	(90.1)	35,332	(65.2)	1,843,410	(92.2)	1,099,665	(57.0)
40~44세	56,737	(94.7)	39,127	(69.5)	1,924,746	(93.4)	1,238,207	(61.8)
45~49세	60,839	(92.8)	44,965	(72.6)	2,005,269	(92.8)	1,475,680	(69.1)
50~54세	60,970	(91.8)	47,820	(77.7)	1,913,367	(90.6)	1,383,442	(66.9)
55~59세	59,047	(87.1)	40,558	(66.8)	1,716,060	(85.5)	1,181,885	(58.5)
60~64세	39,239	(77.0)	26,791	(56.8)	1,084,826	(73.8)	758,340	(49.5)
65세 이상	45,684	(44.1)	39,845	(28.0)	1,263,555	(42.7)	1,034,420	(25.6)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7] 충북 연령대별 고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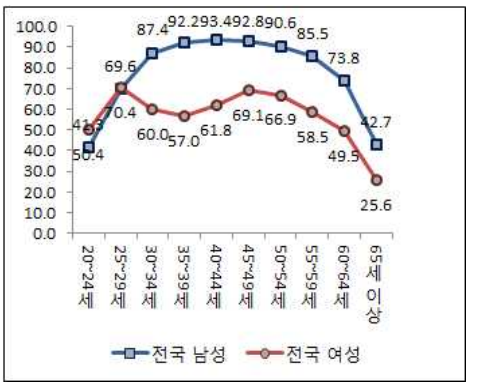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8] 전국 연령대별 고용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25~29세 충북 여성의 고용율은 중졸 이하, 고졸, 4년제 대졸 이상 각각에서 같은 연령대 동일 학력의 전국 여성 평균 고용률 보다 낮음

- 20~24세 여성의 고용율은 62.2%로 전국에 비해 낮지 않음을 고려할 때 25~29세 여성의 낮은 고용율은 여성의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부족의 측면일 수 있음

[표 Ⅲ-7] 20대 여성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명,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이상
충북	20~24세	취업자 수	32,541	168	14,663	8,543	9,168
		고용율	62.2	82.0	47.7	87.0	79.4
	25~29세	취업자 수	28,339	1,402	4,889	6,837	15,211
		고용율	62.7	50.1	46.2	75.4	66.9
전국	20~24세	취업자 수	830,151	6,204	382,545	224,989	216,413
		고용율	50.4	32.1	37.3	77.3	69.2
	25~29세	취업자 수	1,121,197	23,895	189,058	263,409	644,835
		고용율	70.4	53.8	57.4	74.1	74.8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나. 혼인상태별 고용현황 및 경력단절 여성 현황

○ 여성의 혼인상태별 고용율을 보면 미혼여성 50.5% 기혼여성 60.7%로 기혼여성의 고용율이 10.2%p 높음

- 미혼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의 고용율이 높은 것은 중장년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이 배경임
- 충북지역 30대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고용율을 비교하면 미혼여성 80.2%, 기혼여성 60.7%로 양쪽 간 19.5%p의 격차가 발생함 (2016)

· 격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30대 기혼여성의 고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표 Ⅲ-8] 혼인상태별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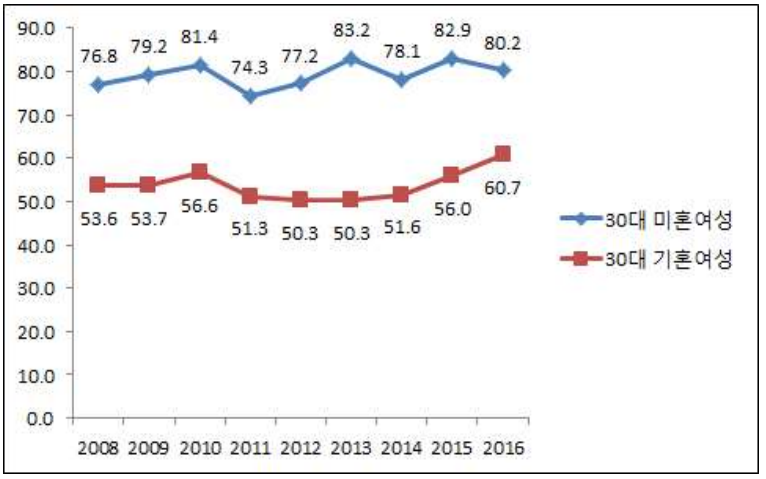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전체	미혼	기혼	이혼,사별
충북	전체	취업자 수(명)	846	175	581	89
		고용율(%)	63.0	50.2	72.1	47.8
	남성	취업자 수(명)	477	101	344	31
		고용율(%)	71.4	50.0	82.7	63.8
	여성	취업자 수(명)	369	74	237	58
		고용율(%)	54.7	50.5	60.7	42.1
전국	전체	취업자 수(명)	26,577	6,366	17,528	2,682
		고용율(%)	61.1	51.6	68.2	48.9
	남성	취업자 수(명)	15,294	3,590	10,775	929
		고용율(%)	71.7	52.3	82.8	63.9
	여성	취업자 수(명)	11,283	2,776	6,753	1,754
		고용율(%)	50.9	50.7	53.3	43.5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9] 충북 30대 여성 혼인상태별 고용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충북 15세 이상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296천명이며 20대 여성의 33.6% 30대 여성의 34.2%가 비경제활동인구임

[표 Ⅲ-9] 충북 성별 비경제활동 인구 연령대별 현황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천명)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5~19세	88	46	42	94.1	97.9	90.2
20~29세	70	37	33	35.5	37.3	33.6
30~39세	44	9	35	21.0	8.5	34.2
40~49세	39	7	32	16.0	5.7	27.0
50~59세	45	13	32	17.6	9.5	26.4
60~69세	60	22	38	38.0	27.7	48.5
70세 이상	131	46	84	70.4	61.7	76.2
전체	476	180	296	35.5	27.0	43.8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보면 20대 고졸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50.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30대은 고졸여성의 35.4% 대졸여성의 32.5%가 비경제활동인구임

- [그림 Ⅲ-10]을 보면 20대 고졸 여성은 미혼인 경우에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46.6%로 높아서 20대 고졸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 후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과 20대 고졸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표 Ⅲ-10] 충북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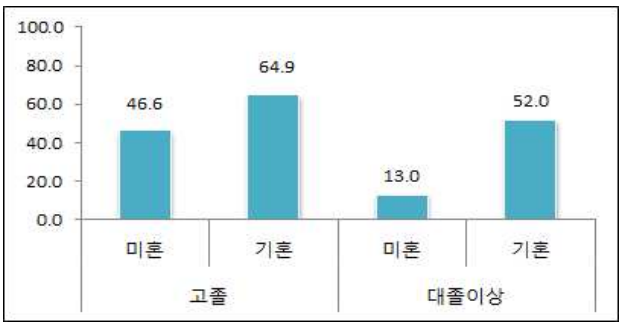
(단위: 명, %)

	비경제활동인구(명)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중졸	고졸	대졸이상	중졸	고졸	대졸이상
15~19세	33,248	8,808	.	97.3	70.8	.
20~29세	1,433	20,882	10,395	47.7	50.6	19.5
30~39세	1,843	13,648	19,233	50.1	35.4	32.5
40~49세	2,856	18,962	10,050	36.9	25.9	27.0
50~59세	13,364	15,812	3,079	27.8	27.7	18.0
60~69세	26,012	9,702	2,417	44.6	58.9	62.5
70세 이상	79,654	3,668	1,165	76.2	74.1	79.5
계	158,409	91,481	46,339	61.0	37.5	26.9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10] 충북 20대 여성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충북 비경제활동여성의 6%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망실업 상태이며 특히 20대 비경제활동여성의 22.9%가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상태로 청년여성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줌

- 충북과 전국 모두 20대 여성 실망실업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지만 충북은 전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임

· 20대 여성 실망실업자 비율 충북 22.9% 〉 전국 17.4%

[표 Ⅲ-11] 비경제활동여성 취업 희망 여부

(단위: %)

		전체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충북	원함	6.0	0.8	22.9	8.1	9.2	6.1	4.6	0.7
	원하지 않음	94.0	99.2	77.1	91.9	90.8	93.9	95.5	99.3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원함	5.4	1.3	17.4	7.3	7.6	5.2	3.1	1.0
	원하지 않음	94.6	98.7	82.7	92.8	92.4	94.8	96.9	99.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여성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충북지역의 경우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으며 전국과 비교해서도 이와 같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고, 20대의 경우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27.8%에 달함

-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대 여성의 경우는 이런 상황으로부터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Ⅲ-12]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여성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충북				전국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7.8	14.4	2.0	0.0	29.0	16.5	10.6	7.7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9.0	38.4	62.4	40.9	25.0	23.6	37.2	29.1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1	1.3	14.1	14.6	1.7	2.9	8.4	13.9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9.6	0.0	6.5	7.3	26.3	11.7	6.3	6.4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0.0	0.0	0.0	25.7	0.0	0.6	2.2	12.1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9.0	0.0	7.1	5.5	6.8	7.8	13.2	17.1
육아	3.6	31.5	0.0	0.0	2.6	25.6	5.9	0.1
가사	0.0	7.4	7.9	6.0	0.3	5.8	11.7	8.3
통학	9.0	0.0	0.0	0.0	5.9	2.8	0.4	0.0
기타	1.0	7.0	0.0	0.0	2.4	2.7	4.0	5.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구직활동은 지난 4주 이내에 직장(일)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지 기준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다. 학력수준별 고용현황

○ 교육 수준별 충북 여성의 고용 현황을 보면 교육수준에 따라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졸여성 70.5%, 고졸여성 60.6%, 중졸 이하가 38.6%이며 전국과 비교할 때 충북지역 고졸 및 대졸이상 여성의 고용율이 약 7%p 높음

- 남성 역시 교육수준에 따라 고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며 남성은 전국 수준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Ⅲ-13] 교육수준별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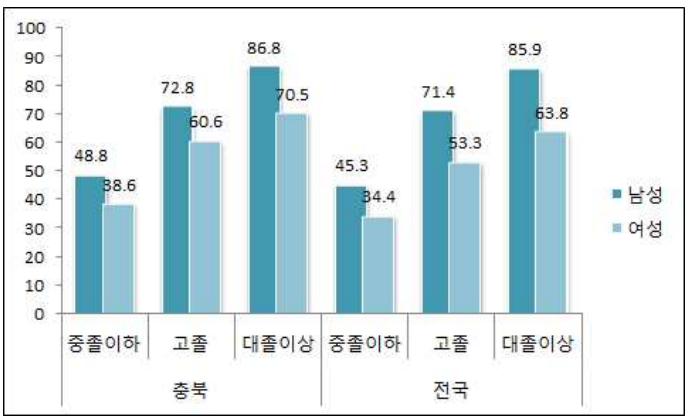
(단위: 명,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상
충북	전체	취업자수(명)	846	184	344	319
		고용율(%)	63.0	42.7	67.0	79.8
	남성	취업자수(명)	477	83	196	198
		고용율(%)	71.4	48.8	72.8	86.8
	여성	취업자수(명)	369	100	148	121
		고용율(%)	54.7	38.6	60.6	70.5
전국	전체	취업자수(명)	26,577	4,371	10,331	11,874
		고용율(%)	61.1	38.6	62.6	75.6
	남성	취업자수(명)	15,294	1,995	6,087	7,212
		고용율(%)	71.7	45.3	71.4	85.9
	여성	취업자수(명)	11,283	2,377	4,244	4,662
		고용율(%)	50.9	34.4	53.3	63.8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11] 교육수준별 고용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충북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L자형 곡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30대 이후에도 대졸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고졸여성들의 경우 20대에 경력단

절을 빠르게 경험한다는 특징과 30대 이후 고용률이 전국수준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동시에 나타냄

-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림 Ⅲ-12]의 전국 그래프의 경우 L자형 패턴으로 나타나서 대졸 여성들을 노동시장을 이탈한 후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충북의 경우 이와 달리 30대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 고졸 여성의 경우 25~29세 연령대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문제로 나타난 반면 30대 이후의 고졸 여성의 고용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14]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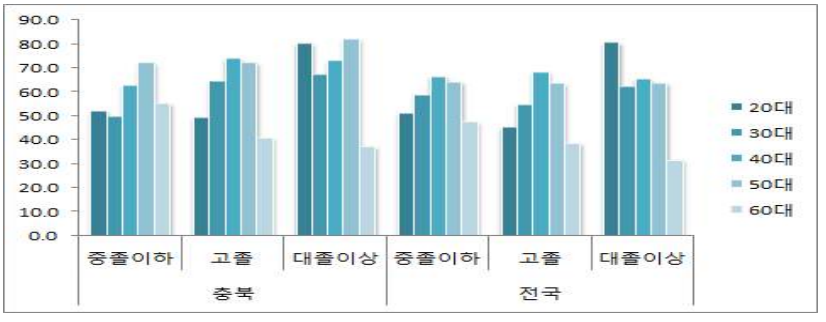
(단위: %)

	충북				전국			
	전체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체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체	56.2	39.0	62.5	73.1	52.6	34.9	55.2	66.5
15~19세	9.8	2.7	29.3	·	8.8	1.9	29.5	91.2
20~29세	66.4	52.3	49.4	80.5	65.4	51.2	45.3	80.8
30~39세	65.8	49.9	64.6	67.5	60.4	58.7	55.0	62.7
40~49세	73.1	63.1	74.1	73.0	67.1	66.6	68.4	65.7
50~59세	73.6	72.2	72.3	82.1	64.0	64.5	63.7	64.0
60~69세	51.5	55.4	41.1	37.5	44.0	47.6	38.9	31.9
70세이상	23.9	23.8	25.9	20.6	21.5	22.6	14.8	10.3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12]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3. 여성고용의 산업구조적 특성

가. 여성고용의 산업별 분포

○ 충북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 분야 종사자가 167,049명이며 전체 취업자의 1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여성과 남성에 차이가 있어서 산업의 성별 분리 양상이 나타남

- 취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종사하는 제조업의 경우 여성 취업자가 48,127명, 남성 취업자가 118,922명이며 제조업 내 취업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28.8%, 남성이 71.2%임
-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5,791명, 15.1%), 제조업(48,127명, 13.0%), 도매 및 소매업(45,605명, 12.3%), 숙박 및 음식점업(43,925명, 11.6%) 순으로 비중이 많음
- 반면, 남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118,922명, 24.9%), 건설업(50,600명, 10.6%), 도매 및 소매업(44,672명, 9.4%) 순으로 비중이 많음
- 충북지역 역시 여성은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고 남성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의 성별분리 양상이 나타남

[표 Ⅲ-15] 충북 산업별 고용 현황

(단위: 명, %)

	고용인원(명)			산업별 고용비율(%)		산업 내 성별 비율(%, 명)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	여성 (%)	남녀 고용인원 격차(명)
농업,임업및어업	96,781	54,149	42,632	11.4	11.5	56.0	44.1	11,517
광업	1,729	1,576	153	0.3	0.0	91.1	8.9	1,423
제조업	167,049	118,922	48,127	24.9	13.0	71.2	28.8	70,795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481	1,303	179	0.3	0.0	88.0	12.1	1,12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4,667	4,287	380	0.9	0.1	91.9	8.1	3,908
건설업	54,927	50,600	4,327	10.6	1.2	92.1	7.9	46,273

	고용인원(명)			산업별 고용비율(%)		산업 내 성별 비율(%, 명)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	여성 (%)	남녀 고용인원 격차(명)
도매 및 소매업	90,276	44,672	45,605	9.4	12.3	49.5	50.5	-933
운수업	37,247	33,857	3,390	7.1	0.9	90.9	9.1	30,467
숙박및음식점업	68,028	24,104	43,925	5.1	11.9	35.4	64.6	-19,821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717	7,926	2,790	1.7	0.8	74.0	26.0	5,136
금융및보험업	22,045	7,933	14,112	1.7	3.8	36.0	64.0	-6,179
부동산업및임대업	18,956	11,074	7,882	2.3	2.1	58.4	41.6	3,19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7,190	10,096	7,094	2.1	1.9	58.7	41.3	3,00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9,696	23,654	16,042	5.0	4.3	59.6	40.4	7,6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233	23,458	12,775	4.9	3.5	64.7	35.3	10,682
교육 서비스업	61,781	23,873	37,909	5.0	10.3	38.6	61.4	-14,03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5,950	10,159	55,791	2.1	15.1	15.4	84.6	-45,6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974	5,196	5,778	1.1	1.6	47.4	52.7	-582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477	19,806	17,671	4.2	4.8	52.9	47.2	2,13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923	25	2,898	0.0	0.8	0.8	99.2	-2,874
전체	846,129	476,671	369,458	100.0	100.0	56.3	43.7	107,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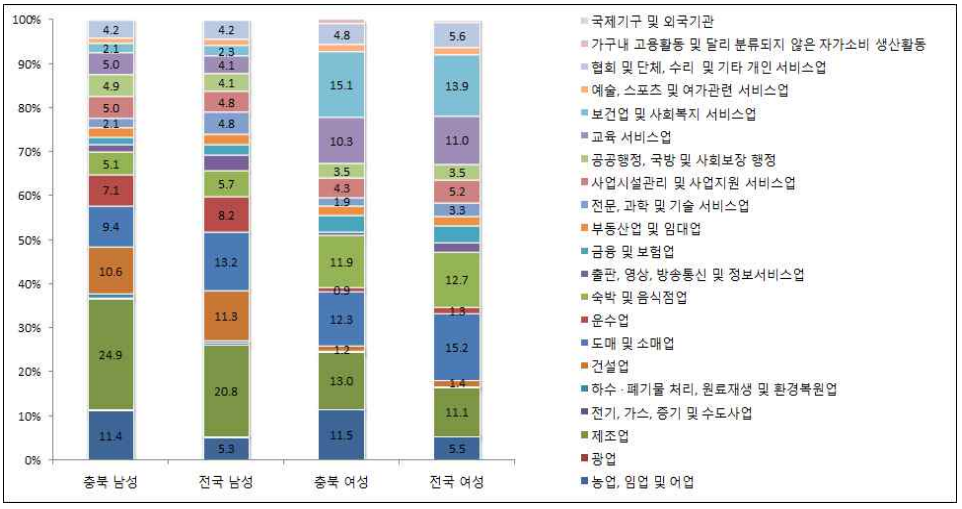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충북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전국과 비교하면 산업의 성별분리 양상이나 분포 비중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다는 특징이 있음

- 제조업 취업자 비중 (여성) 충북 13.0% 〉 전국 11.1%
  (남성) 충북 24.9% 〉 전국 20.8%

[그림 Ⅲ-13] 성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학력에 따라 종사하는 산업 분야에 차이가 있으며 고졸 여성들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자 비중이 많고, 대졸 여성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높음

[표 Ⅲ-16] 충북 여성 취업자 산업별 분포: 연령대별·교육수준별

(단위: %)

	고졸				대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농업,임업및어업	0.7	3.3	2.9	7.2	0.1	0.2	1.1	2.3
광업	0.0	0.3	0.0	0.0	0.0	0.0	0.0	0.7
제조업	21.8	25.5	18.8	15.2	11.1	9.2	5.8	3.6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0.0	0.0	0.0	0.1	0.1	0.1	0.0	0.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0	0.3	0.0	0.1	0.1	0.1	0.0	0.3
건설업	0.2	3.0	2.0	1.4	0.8	0.9	1.9	1.6
도매 및 소매업	16.7	17.4	19.4	19.0	7.9	11.3	4.2	10.1
운수업	0.8	1.2	2.7	1.1	0.6	0.6	0.3	0.0
숙박및음식점업	13.7	8.3	14.3	17.1	7.6	4.8	3.8	8.3

	고졸				대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0	0.0	1.0	0.7	1.9	0.4	2.3	0.7
금융및보험업	3.3	10.3	6.9	4.4	3.4	5.2	5.0	3.8
부동산업및임대업	0.0	2.7	3.7	3.9	0.4	2.0	3.7	0.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5	2.7	0.6	0.2	4.8	6.0	4.3	0.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9	2.5	4.2	6.8	1.2	4.9	1.9	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	1.9	1.9	2.5	5.5	5.9	5.4	0.8
교육 서비스업	8.2	2.1	3.2	4.6	21.0	26.9	29.7	2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0	12.3	8.0	7.0	27.7	20.1	25.7	3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	1.4	1.1	2.1	3.5	0.8	1.3	0.5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4.9	9.3	5.8	2.4	0.9	3.5	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3	0.0	0.1	1.0	0.0	0.0	0.2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면 고졸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대졸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제조업 사무직이 대졸 여성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냄

- 대졸 여성의 경우 교육 및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고 경력 지속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표 Ⅲ-17] 충북 여성 취업자 종사 주요 산업별 종사자 규모 : 연령대별·교육수준별

(단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고졸	제조업	4,252	5,983	9,949	6,146
	도매 및 소매업	3,273	4,088	10,261	7,670
	숙박 및 음식점업	2,670	1,955	7,534	6,908
	교육 서비스업	1,609	484	1,686	1,84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37	2,885	4,248	2,835
대졸	제조업	4,428	3,657	1,525	490
	도매 및 소매업	3,129	4,460	1,102	1,388
	숙박 및 음식점업	3,015	1,881	997	1,142
	교육 서비스업	8,334	10,665	7,849	3,42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999	7,943	6,774	4,278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2011~2016년 동안 산업별 종사자 증감 현황을 보면 농업·임업·어업은 여성과 남성 모두 종사자 수가 감소했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과 남성 모두 종사자 수가 증가했으며, 제조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규모가 7,519명 감소한 반면, 남성 종사자 규모는 2,465명 증가한 경우임

- 종사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이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종사자 수 증가가 가장 큰 산업임

[표 Ⅲ-18] 충북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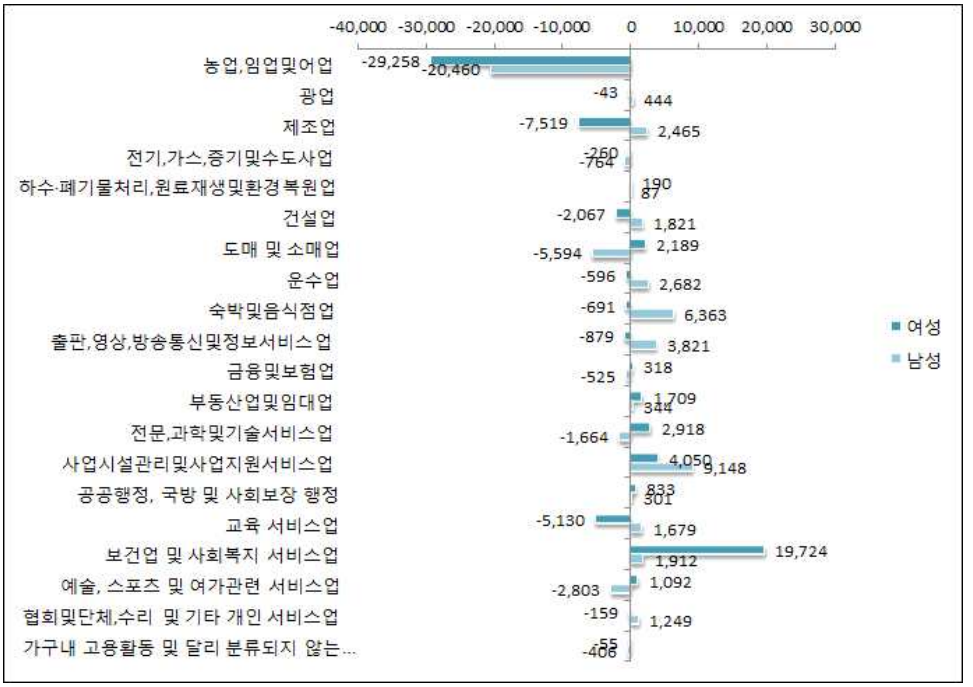
(단위: 명, %)

	여성			남성		
	2011	2016	증가 수	2011	2016	증가 수
농업,임업및어업	71,890	42,632	-29,258	74,610	54,149	-20,460
광업	196	153	-43	1,133	1,576	444
제조업	55,646	48,127	-7,519	116,457	118,922	2,465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439	179	-260	2,067	1,303	-76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90	380	190	4,200	4,287	87
건설업	6,394	4,327	-2,067	48,779	50,600	1,821
도매 및 소매업	43,416	45,605	2,189	50,265	44,672	-5,594
운수업	3,986	3,390	-596	31,175	33,857	2,682
숙박및음식점업	44,615	43,925	-691	17,741	24,104	6,363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669	2,790	-879	4,105	7,926	3,821
금융및보험업	13,794	14,112	318	8,458	7,933	-525
부동산업및임대업	6,172	7,882	1,709	10,730	11,074	34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176	7,094	2,918	11,760	10,096	-1,66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1,992	16,042	4,050	14,507	23,654	9,1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942	12,775	833	23,157	23,458	301
교육 서비스업	43,039	37,909	-5,130	22,193	23,873	1,6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067	55,791	19,724	8,247	10,159	1,9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85	5,778	1,092	7,999	5,196	-2,803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830	17,671	-159	18,557	19,806	1,24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2,953	2,898	-55	431	25	-406
전체	383,091	369,458	752,549	476,571	476,671	100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Ⅲ-14] 충북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11-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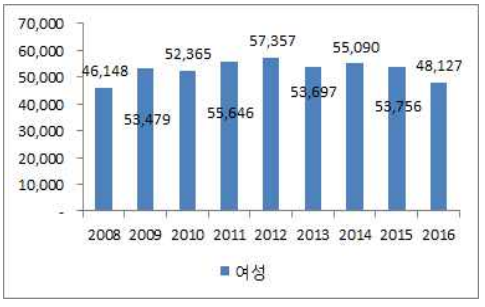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제조업 분야 여성 취업자 수는 2014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2012년 57,357명, 2016년 48,127명)

[그림 Ⅲ-15] 충북 제조업분야 여성취업자 수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각 년도) 원자료 분석

[그림 Ⅲ-16] 충북 제조업 분야 남성취업자 수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각 년도) 원자료 분석

나. 여성고용의 직업별 분포

○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1.8%), 서비스 종사자(17.4%), 단순노무종사자(16.8%), 사무종사자(15.9%) 순이고, 남성취업자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22.9%), 사무 종사자(14.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9%)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여성 집중 직업과 남성 집중 직업이 있어서 직업의 성별 분리 양상이 뚜렷이 나타남

-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1.5%로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직업인 반면,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남성 비율이 각각 92.2%, 85.7%로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직업임

[표 Ⅲ-19] 충북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고용인원(명)			직업별 고용비율(%)		직업 내 성별 비율(%)		남녀 격차 (명)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자	5,813	5,466	347	1.1	0.1	94.0	6.0	5,1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6,584	66,067	80,517	13.9	21.8	45.1	54.9	-14,450
사무 종사자	127,460	68,661	58,798	14.4	15.9	53.9	46.1	9,863
서비스 종사자	89,924	25,611	64,313	5.4	17.4	28.5	71.5	-38,701
판매 종사자	83,875	37,862	46,013	7.9	12.5	45.1	54.9	-8,15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9,440	54,490	34,950	11.4	9.5	60.9	39.1	19,54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5,673	51,331	4,342	10.8	1.2	92.2	7.8	46,98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7,197	108,974	18,223	22.9	4.9	85.7	14.3	90,750
단순노무 종사자	120,164	58,208	61,955	12.2	16.8	48.4	51.6	-3,747
전체	846,129	476,671	369,458	100.0	100.0	56.3	43.7	107,213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직업 분포를 제조업 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여성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4.0%), 단순노무종사자(31.1%), 사무종사자(22.3%) 순이고, 남성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9.8%), 사무종사자(24.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1.6%) 순으로 분포함

- 제조업 내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남성 비중이 70% 이상인 직업이고, 반대로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여성 비중이 70% 이상인 직업으로 제조업 내에서도 직업의 성별 분리를 확인할 수 있음

[표 Ⅲ-20] 충북 제조업 분야 취업자 직업별 분포

(단위: 명, %)

	고용인원(명)			직업별 고용비율(%)		직업 내 성별 비율(%)		남녀 격차 (명)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자	615	-	615	0.5	0.0	100.0	0.0	6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860	1,856	10,715	7.5	3.9	82.7	17.3	7,004
사무 종사자	28,926	10,737	39,662	24.3	22.3	72.9	27.1	18,189
서비스 종사자	84	1,072	1,155	0.1	2.2	7.3	92.8	-988
판매 종사자	1,717	655	2,372	1.4	1.4	72.4	27.6	1,06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837	2,513	16,350	11.6	5.2	84.6	15.4	11,32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9,168	16,343	75,510	49.8	34.0	78.4	21.6	42,825
단순노무 종사자	5,716	14,952	20,668	4.8	31.1	27.7	72.4	-9,237
전체	118,922	48,127	167,049	100.0	100.0	71.2	28.8	70,795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다. 여성고용의 고용형태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과 남성 모두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여성 42.9%, 남성 51.3%) 여성은 임시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남성은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종사상 지위의 성별화 된 경향이 나타남

- 각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 비율이 각각 65.6%, 88.5%로 여성이 집중된 특성을 나타내고,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는 남성 비율이 각 60.7%, 60.8%, 75.5%로 남성이 집중된 특성이 있음

[표 Ⅲ-21] 충북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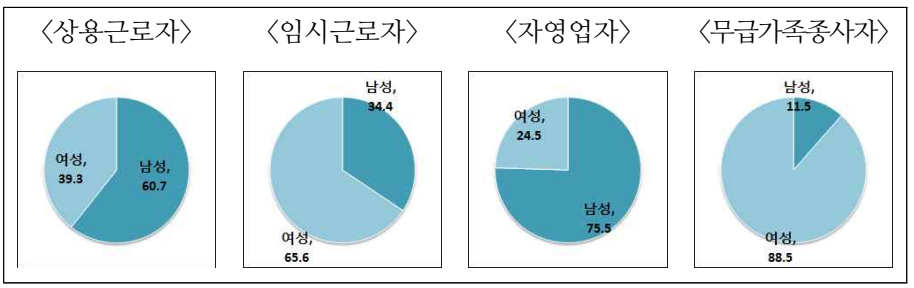
(단위: 명, %)

	고용인원 및 비율			성별 비율 및 성별 격차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성별격차(명) (남-여)
상용근로자	403,109 (47.6)	244,586 (51.3)	158,523 (42.9)	60.7	39.3	86,063
임시근로자	140,516 (16.6)	48,346 (10.1)	92,170 (25.0)	34.4	65.6	-43,823
일용근로자	43,359 (5.1)	26,343 (5.5)	17,016 (4.6)	60.8	39.2	9,327
자영업자	199,493 (23.6)	150,529 (31.6)	48,963 (13.3)	75.5	24.5	101,566
무급가족종사자	59,653 (7.1)	6,867 (1.4)	52,786 (14.3)	11.5	88.5	-45,919
전체	846,129 (100.0)	476,671 (100.0)	369,458 (100.0)	56.3	43.7	107,213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17] 충북 취업자 종사상 지위 성별 비율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성별분포를 전국 수준과 비교해 보면 종사상 지위의 성별 화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며, 충북의 경우 각 지위에 있어서 상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비중은 전국보다 조금 낮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8] 취업자 종사상 지위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충북 임시직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를 성별 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각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임시직 비율이 남성 종사자의 임시직 비율보다 높으며, 여성 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의 임시직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여성 취업자 집중도가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임시직 비율 26.6%), 숙박 및 음식점업(임시직비율 26.7%), 도매 및 소매업(임시직비율 20.9%), 교육서비스업(임시직비율 25.6%)은 임시직 비율 역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그림 Ⅲ-19]과 같이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은 전체 종사자 중 임시직 비율 역시 높은 경향을 나타냄

- 대부분 산업에서 임시직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크게 높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산업 임시직 종사자의 80% 이상이 여성임

[표 Ⅲ-22] 충북 임시직 종사자 산업별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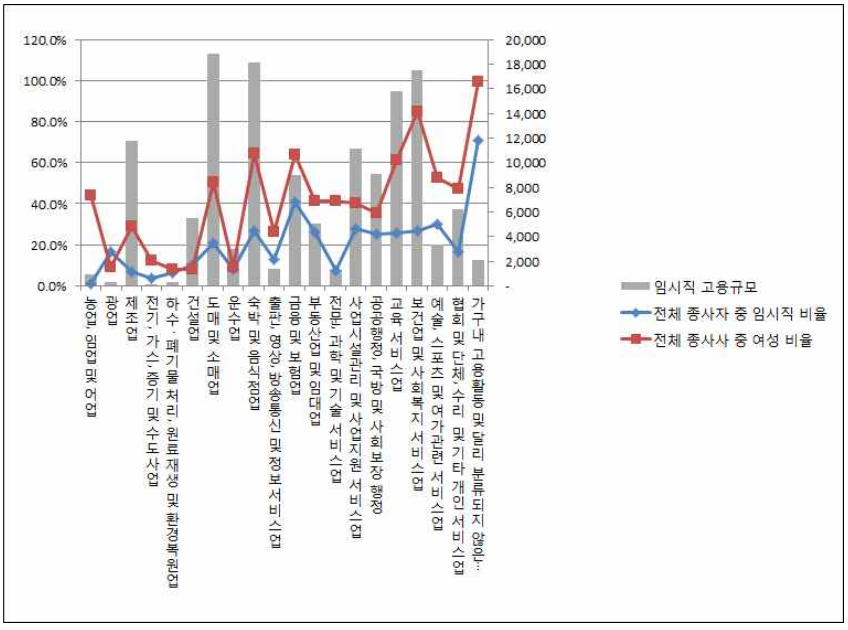
	전체 종사자 중 임시직 비율	임시직 종사자 규모(비율)			임시직 종사자 중 여성 비율
		전체	남성	여성	
농업,임업및어업	0.9%	911 (0.7)	416 (0.9)	495 (0.5)	54.3%
광업	16.4%	283 (0.2)	283 (0.6)	– (0.0)	0.0%
제조업	7.0%	11,758 (8.4)	5,583 (11.6)	6,174 (6.7)	52.5%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6%	53 (0.0)	53 (0.1)	– (0.0)	0.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3%	293 (0.2)	159 (0.3)	134 (0.2)	45.8%
건설업	9.9%	5,454 (3.9)	4,862 (10.1)	592 (0.6)	10.9%
도매 및 소매업	20.9%	18,827 (13.4)	6,668 (13.8)	12,159 (13.2)	64.6%
운수업	8.1%	3,006 (2.1)	1,888 (3.9)	1,118 (1.2)	37.2%
숙박및음식점업	26.7%	18,168 (12.9)	4,001 (8.3)	14,166 (15.4)	78.0%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3.0%	1,396 (1.0)	229 (0.5)	1,167 (1.3)	83.6%
금융및보험업	40.8%	9,003 (6.4)	1,990 (4.1)	7,013 (7.6)	77.9%
부동산업및임대업	26.5%	5,016 (3.6)	1,472 (3.0)	3,544 (3.9)	70.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4%	1,275 (0.9)	442 (0.9)	834 (0.9)	65.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8.0%	11,121 (7.9)	5,762 (11.9)	5,359 (5.8)	4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1%	9,082 (6.5)	3,438 (7.1)	5,644 (6.1)	62.2%
교육 서비스업	25.6%	15,789 (11.2)	4,961 (10.3)	10,828 (11.8)	6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6%	17,514 (12.5)	3,102 (6.4)	14,412 (15.6)	8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1%	3,307 (2.4)	1,266 (2.6)	2,040 (2.2)	61.7%

	전체 종사자 중 임시직 비율	임시직 종사자 규모(비율)			임시직 종사자 중 여성 비율
		전체	남성	여성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5%	6,185 (4.4)	1,770 (3.7)	4,415 (4.8)	71.4%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71.0%	2,074 (1.5)	- (0.0)	2,074 (2.3)	100.0%
전체	16.6%	140,516 (100.0)	48,346 (100.0)	92,170 (100.0)	65.6%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19] 충북 임시직 종사자 현황 및 임시직 고용 규모

(단위: 명,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라. 여성고용의 임금수준

○ 충북 여성 취업자 월평균 임금은 165만원, 남성 임금은 264만원으로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2.7%이며 충북지역 남녀 취업자 임금은 모두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음

- 남녀 월 평균임금에 있어서 충북과 전국 모두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2/3 수준이며,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충북은 62.7%, 전국평균은 59.9%로 충북이 2.8%p 높음

[표 Ⅲ-23] 충북 취업자 월평균 임금 현황

	충북		전국	
	월평균임금	표준편차	월평균임금	표준편차
전체	219만원	(125.24)	238만원	(160.7)
남성	264만원	(131.38)	289만원	(175.4)
여성	165만원	(92.5)	173만원	(109.7)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	62.7%		59.9%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월평균 임금 구간분포를 보면 충북 여성 취업자의 임금은 200만원 미만에 70.4%가 분포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8.9%에 불과함

- 여성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미만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반면 남성 임금은 더 넓은 범위로 분포함
-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8.8%인 반면 남성은 36.9%가 300만원 이상 임금 소득자임

[표 Ⅲ-24] 충북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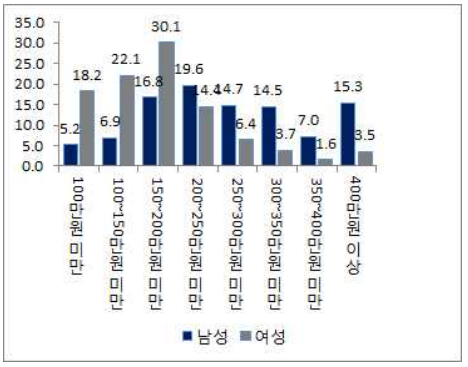
	근로자 수(명)			비율(%)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100만원 미만	65,256	48,817	16,439	11.1%	18.2%	5.2%
100~150만원 미만	81,211	59,255	21,956	13.8%	22.1%	6.9%
150~200만원 미만	134,104	80,564	53,540	22.9%	30.1%	16.8%

	근로자 수(명)			비율(%)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250만원 미만	101,000	38,486	62,514	17.2%	14.4%	19.6%
250~300만원 미만	64,198	17,153	47,045	10.9%	6.4%	14.7%
300~350만원 미만	56,407	10,023	46,383	9.6%	3.7%	14.5%
350~400만원 미만	26,647	4,158	22,489	4.5%	1.6%	7.0%
400만원 이상	58,160	9,252	48,908	9.9%	3.5%	15.3%
전체	586,984	267,709	319,275	100.0%	100.0%	100.0%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20] 충북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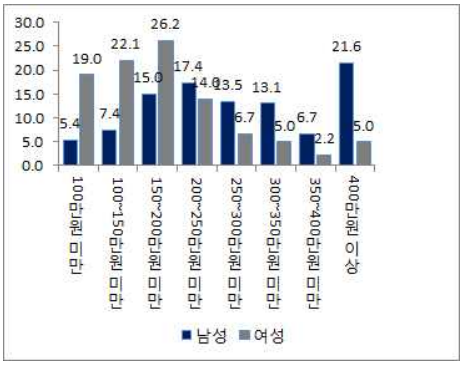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21]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포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산업별 남녀임금 현황을 보면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250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78만원), 교육서비스업(190만원), 제조업(170만원) 순이고 여성 월평균임금이 낮은 산업은 농업·임업·어업(73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113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138만원) 순임

- 남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393만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만원), 교육서비스업(304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04만원) 순이며, 남성 월평균임금이 낮은 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148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165만원), 도매 및 소매업(192만원) 순임

[표 Ⅲ-25] 충북 산업별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현황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농업,임업및어업	91	70	148	160	73	60	49.5	37.5
광업 주1)	249	270	240	250	340	380	141.8	152.0
제조업	258	232	289	270	181	170	62.6	63.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34	350	353	380	194	150	55.0	39.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59	250	270	270	149	140	55.2	51.9
건설업	224	200	230	200	162	150	70.4	75.0
도매 및 소매업	163	150	192	190	144	140	74.8	73.7
운수업	231	200	249	200	145	150	58.1	75.0
숙박및음식점업	125	120	165	180	113	120	68.5	66.7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87	300	304	310	244	178	80.5	57.4
금융및보험업	306	260	393	400	260	250	66.2	62.5
부동산업및임대업	204	180	239	248	161	150	67.4	60.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53	210	295	300	206	200	69.7	66.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70	160	188	170	144	150	76.5	8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3	260	324	310	181	150	56.0	48.4
교육 서비스업	244	200	304	300	205	190	67.3	6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0	155	203	200	153	150	75.3	7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9	160	230	200	150	150	65.3	75.0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4	180	216	200	138	140	64.2	70.0
전체	219	200	264	250	165	150	62.7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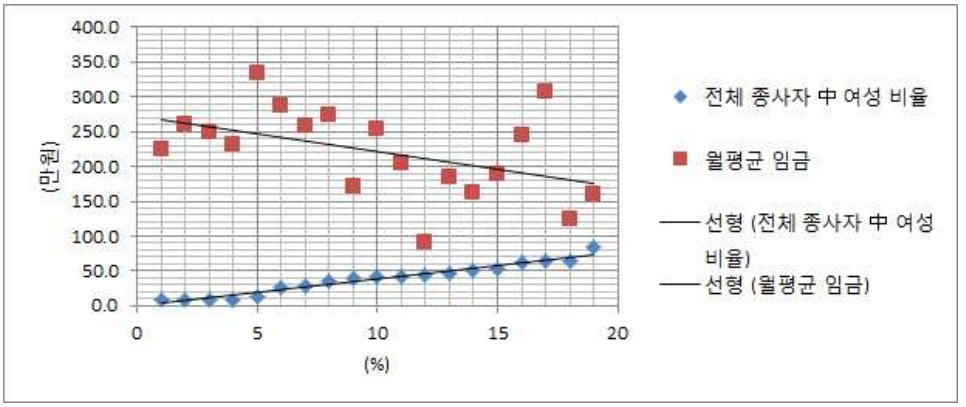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산업별로 월평균 임금과 해당 산업 종사자 중 여성 비율 간의 관계를 보면 산업별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경향으로 나타남

-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성별 분리 양상에 대한 극복과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임금가치 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그림 Ⅲ-22] 충북 산업별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 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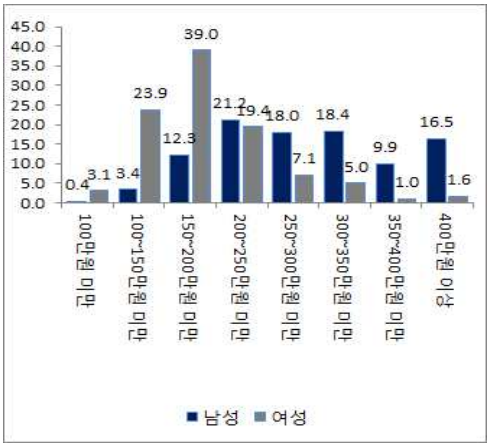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충북지역 취업자의 약 20%가 종사하는 제조업에 국한하여 성별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여성 월평균임금은 181만원, 남성 월평균임금은 289만원으로 남성임금과 여성 임금은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며 월평균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은 62.6%이고, 전체 취업자의 임금분포와 제조업 취업자의 임금분포를 비교하면 제조업 취업자는 최하위 소득 그룹의 비중이 낮음

- 여성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임금분포를 비교하면 제조업의 경우 100만원 미만 임금소득자가 3.1%로 전 산업의 해당 구간 비중보다 낮으며, 150~200만원 미만(39.0%) 소득 구간과, 200~250만원 미만(19.4%) 소득 구간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
- 남성의 경우 전체 임금분포와 보다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제조업 종사자는 200만원 미만 그룹 비중이 줄어들고 200만원 이상 그룹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음

[그림 Ⅲ-23] 충북 제조업 성별 임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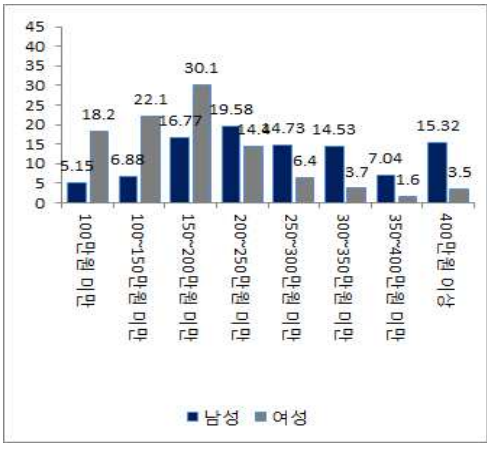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Ⅲ-24] 충북 근로자 성별 임금 분포

(단위: %)



*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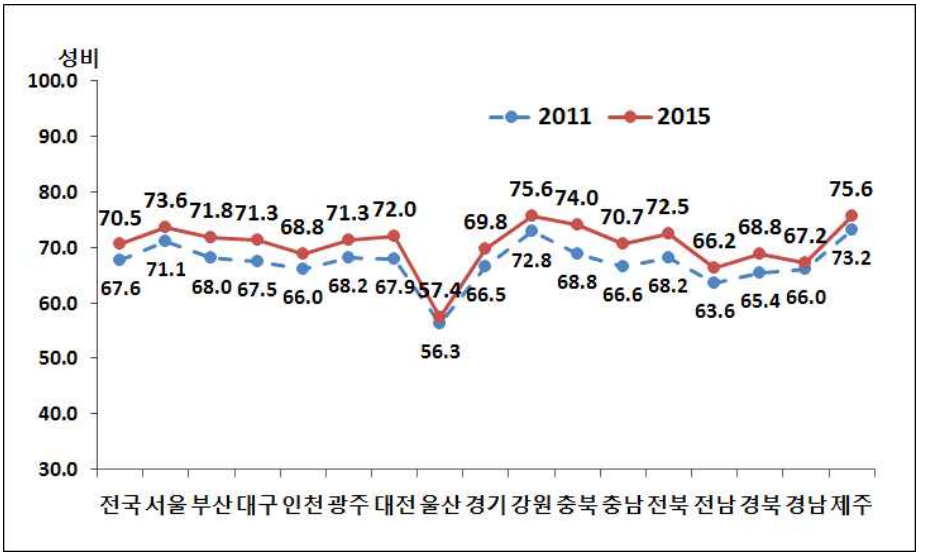
4. 충북 지역성평등지수 고용부문

○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충북의 경제활동 분야 점수는 74.0점으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3위이고,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서 경제활동분야 성평등 지수점수가 5.2점 상승함 (주재선 외, 2016)

- 경제활동분야 성평등지수 전국 평균 점수는 70.5점이고 충북은 74.0점으로 충북은 지역 성평등지수 경제활동분야에서 상위 그룹에 위치해 있으며, 성평등지수 경제활동분야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공동 1위 지역임
-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별 경제활동분야 지수는 울산의 지수 값이 크게 낮은 것 외에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음
- 지역별 성평등지수 경제활동분야에서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지역은 인천,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여섯 개 지역임

[그림 Ⅲ-25]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단위: 완전평등수준=100)



*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자료: 주재선 외(2016),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연구』, 34쪽

○ 지역성평등지수 경제활동분야 세부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지표 모두 5위 안에 들어 있어서 16개 시·도 중상위권에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성별격차가 크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상위에 있다고 해서 성평등점수가 크게 높다고 말할 수 없음 (74점/100점 만점)

- 경제활동참가율성비 지수값과 상용근로자 지수값의 경우 1위 지역과 충북지역이 각각 4.6점, 6.7점의 격차가 있음

[표 Ⅲ-26] 충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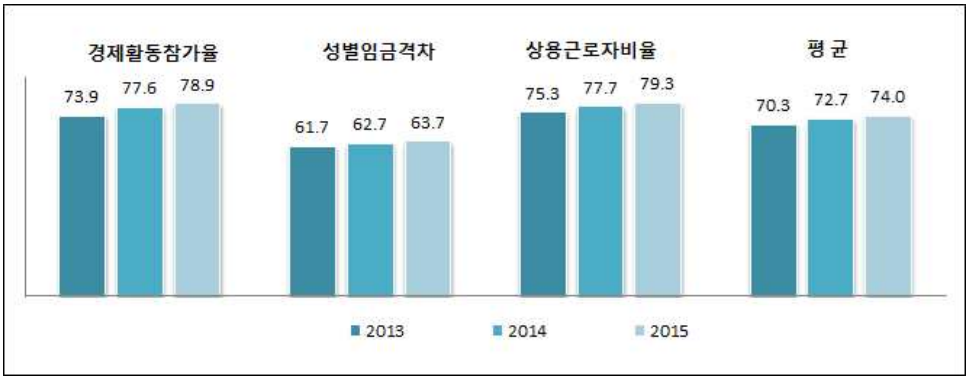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충청북도	78.9	63.7	79.3	74.0
지표 1위 지역	83.5 (제주도)	66.0 (제주도)	86.0 (강원도)	75.6 (제주도)
전국 평균	74.1	59.6	77.9	70.5
충북 순위	3	4	5	3

* 자료: 주재선 외(2016),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120쪽, 224쪽

○ 충북지역 경제활동분야 세부지표 점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성별임금격차는 세 가지 지표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수이고 증가폭 역시 낮게 나타남

[그림 Ⅲ-26] 충청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단위: 완전성평등=100)



*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자료: 주재선 외(2016),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연구』, 121쪽

5. 소결

○ 충북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격차는 18.4%p (남성 72.8%, 여성 54.4%)이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경제활동참가율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격차는 여전히 더디게 감소하고 있음

-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단위 평균에 비해 2.3%p 높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충북은 1.3% 전국은 0.5%임
- 15~64세 생산가능인구 기준 고용율은 여성 61.8%, 남성 76.5% 여성과 남성의 고용율 격차는 14.7%p임

○ 25~29세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중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때문에 충북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곡선의 우측이 발달하고 좌측이 꺼져있다는 특징이 있음

- 25~29세 충북 여성의 고용율은 중졸 이하, 고졸, 4년제 대졸 이상 각각에서 같은 연령대 동일 학력의 전국 여성 평균 고용률 보다 낮음

○ 충북 15세 이상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296천명이며 20대 여성의 33.6% 30대 여성의 34.2%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보면 20대 고졸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50.6%로 높고, 20대 비경제활동여성의 22.9%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로 청년여성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냄

- 충북 여성의 고용률을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미혼여성 50.5% 기혼여성 60.7%로 기혼여성의 고용율이 10.2%p 높으며, 이는 중장년층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함
- 여성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음

○ 충북지역 여성고용률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졸여성 70.5%, 고졸여성 60.6%, 중졸 이하가 38.6%이며,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L자형 곡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30대 이후에도 대졸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은 전국의 대졸여성의 연령대별 고용패턴과의 차이점임

- 고졸여성들의 경우 20대에 경력단절을 빠르게 경험한다는 특징과 30대 이후 고용률이 전국수준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동시에 나타냄

○ 충북 취업자의 19.7%는 제조업 분야 종사자이지만(167,049명), 여성과 남성이 종사하는 산업분야 차이가 있어서 산업의 성별 분리 양상이 있으며, 지난 2011~2016년 동안 제조업은 여성 종사자 규모가 7,519명 감소한 반면, 남성 종사자 규모는 2,465명 증가함

- 제조업의 경우 여성 취업자가 48,127명, 남성 취업자가 118,922명으로 제조업 내 취업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28.8%, 남성이 71.2%임
- 고졸 여성의 경우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자 비중이 많고, 대졸 여성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대졸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제조업 종사 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제조업 사무직 및 전문직이 대졸여성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냄

○ 충북 서비스 종사자의 71.5%는 여성,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남성 비율이 각각 92.2%, 85.7%로 직업의 성별분리 양상이 있으며, 제조업 내에서도 여성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4.0%), 단순노무종사자(31.1%), 사무종사자(22.3%) 순으로 비중이 높고, 남성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9.8%), 사무종사자(24.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1.6%) 순으로 분포함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과 남성 모두 상용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여성 42.9%, 남성 51.3%) 여성은 임시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남성은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종사상 지위의 성별화 된 경향이 나타나며, 각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임시직 비율이 남성 종사자의 임시직 비율보다 높으며, 여성 집중

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의 임시직 비율이 높음

- 여성 취업자 집중도가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임시직 비율 26.6%), 숙박 및 음식점업(임시직비율 26.7%), 도매 및 소매업(임시직비율 20.9%), 교육서비스업(임시직비율 25.6%)은 임시직 비율 역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충북 여성 취업자 월평균 임금은 165만원, 남성 임금은 219만원으로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2.7%로 충북지역 남녀 취업자 임금은 모두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경향으로 나타나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성별 분리 양상에 대한 극복과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임금가치 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충북 여성 취업자의 임금은 200만원 미만에 70.4%가 분포하며 남성 취업자 임금은 200만원 이상에 71.1%가 분포함
- 제조업 취업자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181만원, 남성 월평균임금은 289만원으로 제종부문 역시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은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타남

Ⅳ. 지역산업육성 추진 및 여성고용 현황

1. 지역산업 육성 추진현황
2. 지역 육성산업 여성고용현황
3. 소결

CBW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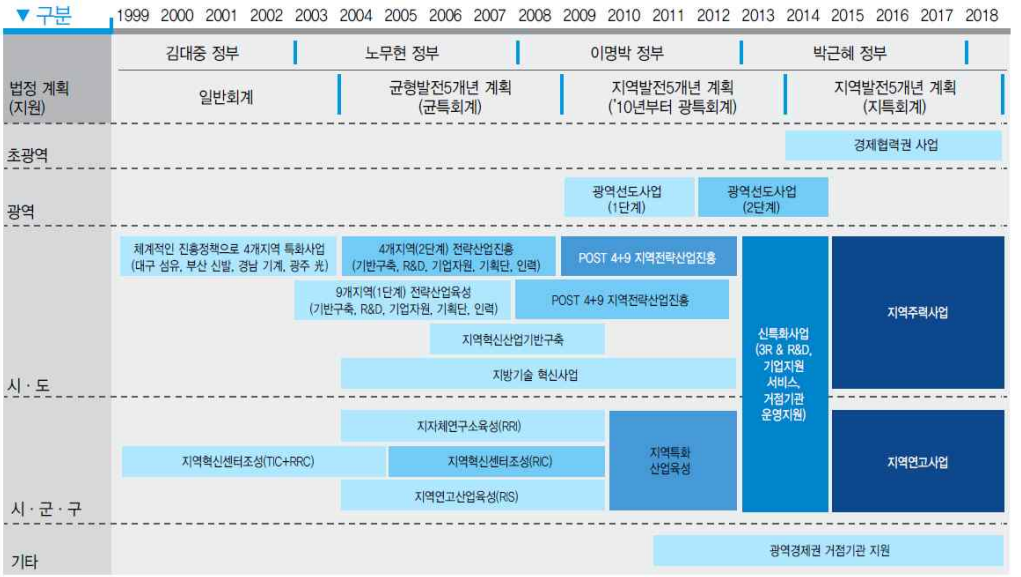
1. 지역산업 육성 추진현황

가. 지역산업육성정책 전개과정

○ 90년대 후반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다양한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산업육성정책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됨 (「충청북도 산업발전 전략」(2016) 참조)

-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처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직후로 김대중 정부(1998~2002)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함
  ·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근거한 '지역산업진흥사업' 시범 추진함
- 참여정부(2003~2007) 역시 자립적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참여정부 시기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시·도별로 4개씩 지역전략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인프라, 인력양성, 공동R&D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산업집적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함
- 이명박 정부(2008~2012) 시기는 지역산업정책의 확산기 및 광역경제권 기반 지역산업정책 추진 시기로 이 시기에는 시·도 중심의 지역정책을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광역경제권 전략을 기획·추진함
  · 광역경제권 기반 지역산업정책은 6개 지방자치단체를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후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단위로 사업을 추진함
- 박근혜 정부(2013~2016)는 창조경제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했으며 지역산업정책을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지역 특화 발전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년)을 수립했으며,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과 신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사업, 연고(전통)사업으로 재편함

[그림 Ⅳ-1] 우리나라 지역산업 육성사업 연혁



* 주 : 광역은 5+2개 지역, 시.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군구 226개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6); 「충청북도 산업발전 전략」(충청북도, 2016, 64쪽)에서 재인용

❍ 충북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및 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북의 1단계 전략산업은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임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2015) 참조)

- 전략산업육성사업의 사업유형은 기술혁신, 정책지원, 네트워크 육성 중심으로 추진되었었으며 1단계 전략산업육성사업에는 약 1,868억원의 예산이 투입
- 1단계 충북전략산업 육성사업은 생산 유발효과 4,73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47억원, 취업 유발효과 6,167명로 추정됨

[표 Ⅳ-1] 1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사업

구분	대상산업	사업유형	프로젝트
전략산업	① 바이오 ② 반도체 ③ 차세대전지 ④ 전기전자융합부품	기술혁신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 장비구축 및 활용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특허, 논문, 실용신안, 사업화, 기술이전
		정책지원	기업지원서비스사업 :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지식서비스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 지역산업 기획 및 평가지원
		네트워크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 지역산업육성거점강화, 기술기업육성

*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충청북도, 2015)

○ 2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사업은 전략산업(기술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인력양성)과 특화산업(RIC, RIS)으로 이원화하여 약 1,534억 원이 투입되었음(「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2015) 참조)

- 지역특화산업(RIC, RIS)은 지역 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 신산업화,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됨
- 2단계 사업에서는 약 1,534억 원이 투입되었고 생산 유발효과 3,66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79억 원, 취업 유발효과 4,738명으로 추정됨

[표 Ⅳ-2] 2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사업

구분	대상산업	사업유형	프로젝트
전략산업	① 바이오 ② 반도체 ③ 차세대전지 ④ 전기전자융합부품	기술혁신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 장비구축 및 활용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특허, 논문, 실용신안, 사업화, 기술이전
		정책지원	기업지원서비스사업 :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지식서비스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 지역산업 기획 및 평가지원
		네트워크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 지역산업육성거점강화, 기술기업육성
특화산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RIC)		대학 특성화분야 장비 구축 및 활용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RRI)		연구소 건축 및 장비 구축

*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충청북도, 2015))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이명박 정부 시기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충청권에서 추진된 것으로 1단계 충청권 선도산업은 New-IT(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와 의약바이오(의약바이오허브연계, 신약실용화)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1단계 사업에 약 1,657억원이 투입됨

[표 Ⅳ-3] 1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산업	프로젝트	유망 품목
의약바이오	의약바이오허브연계	저분자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의약품
	신약실용화	저분자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의약품, 의료소재
New IT	차세대무선통신	초소형 정보저장부품, 단말기용 디스플레이부품, 융합통신용 고주파부품
	그린반도체	실리콘 솔라셀/모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에너지절감형 반도체 부품

* 자료 : 2015년 충북산업진흥계획」(충청북도, 2014);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충청북도, 2015)

○ 2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는 미래성장동력산업 부문으로 의약바이오와 차세대에너지 산업, 대표 주력산업으로 New IT와 융합기계부품 산업을 선정함

-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시·도 전략산업간 비교우위 산업에 대해 세 가지 기준(집적도, 특화도, 성장유망성)을 적용하여 선정했으며 사업비로 약 1,752억원이 투입됨

[표 Ⅳ-4] 2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구분	산업	프로젝트	유망 품목
미래성장동력산업	의약바이오	차세대 의약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의약바이오 소재 (의약용, 진단용, 의료용), 동물의약품
	차세대에너지	태양광	셀/모듈 구성 부품, 시스템/설치 구성부품 (글라스, 기판, 타겟, 백시트, 리본, 필름, 케이블, 정션박스, 프레임, 인버터 부품, 트랙커부품, 전력제어부품)
		이차전지	이차전지 구성소재, 단위셀 및 구성부품
		나노융합소재 (화학소재기반)	나노코팅, 고기능 멤브레인, 나노 정밀화학제
대표주력	New IT	무선통신융합	무선통신융합정보기기,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 RFID/USN 시스템, 차량/선박용 무선기기, 무선원격계측시스템

구분	산업	프로젝트	유망 품목
산업		반도체	시스템반도체(화합물반도체 포함), 반도체제조장비
		디스플레이	차세대D/P, D/P용 부품/모듈, D/P제조장비, OLED
	융합기계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제어부품 및 기기, 자동화모듈 및 시스템, 시트 및 능동 공조 부품

* 자료 : 2015년 충북산업진흥계획」(충청북도, 2014);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충청북도, 2015)

○ 주력산업 중에서 지역 산업여건과 특화자원, 광역선도전략산업과의 역할분담,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해 전력에너지부품산업, 금속가공산업, 기능성화장품산업, 바이오·한방식품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함

[표 Ⅳ-5] 충북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구분	대상산업	사업유형		프로젝트
특화산업	① 전력에너지부품 ② 금속가공 ③ 기능성화장품 ④ 바이오·한방식품	R&D	기술개발	전력에너지부품산업 기술개발(자유공모)
				금속가공산업 기술개발(자유공모)
				기능성화장품산업 기술개발(자유공모)
				바이오·한방식품산업 기술개발(자유공모)
			기존특화(3R)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RIC)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비 R&D	기술지원	전력에너지부품산업
				금속가공산업
				바이오·한방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사업화지원	전력에너지부품산업
				금속가공산업
				바이오·한방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통 합	충북신특화산업 인력양성사업
			공 통	테크노파크운영지원사업
				지역사업평가지원사업

* 자료 : 「2015년 충북산업진흥계획」(충청북도, 2014).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충청북도, 2015)

○ 지역 전략산업은 여러 정부에서 다양한 사업명과 대상산업 선정을 교차하며 발전해 왔으며, 2017년 지역산업육성계획은 지역특화 주력산업으로 5개 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산업으로 3개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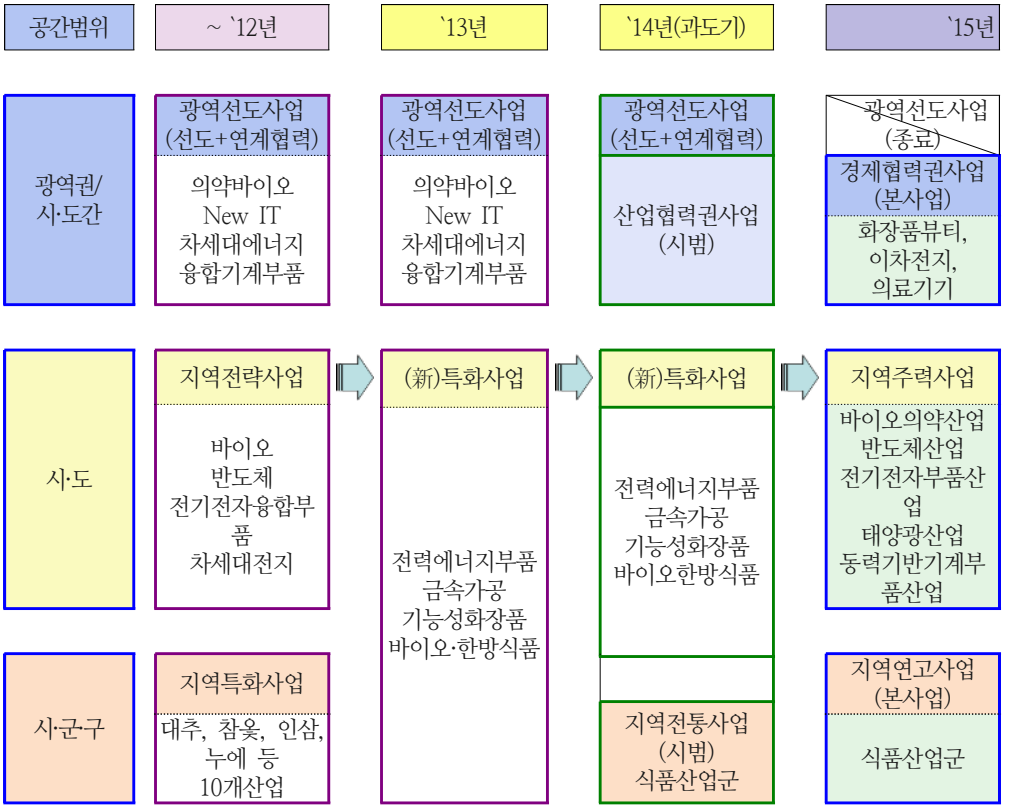
- 주력산업 : 반도체산업, 바이오의약산업, 태양광선옵, 전기전자부품산업,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 경제협력권산업: 화장품뷰티산업(주관), 이차전지산업(참여), 의료기기산업(참여)

[표 Ⅳ-6] 충청북도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구분	대상산업	유망품목
주력산업	반도체	System on Chip, Microcomponent IC, Analog IC, PMIC, Optical IC
	바이오의약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단백질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저분자의약품
	태양광	잉곳 및 웨이퍼, 셀, 모듈, 제조장비, 시스템, 셀/모듈용 소재
	전기전자부품	전력제어용 지능형센서, 스마트 전력량계 부품, 유무선 통합 모듈, Data압축/처리 Device, 초고용량 커패시터
	동력기반기계부품	파스너 및 베어링, 금속와이어, 절삭공구제품, 단조금형용공구, 휠/조향장치 및 구조부품
협력산업	화장품뷰티 (주관-충북,참여-제주)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천연화장품, 메디컬화장품, 모발화장품, 색조화장품, 기타 일반화장품
	이차전지 (주관-강원,참여-충북)	셀, 커패시터, 양·음극 물질, 전해액, 집전체, 팩, 분리막, 파우치
	의료기기 (주관-충남,참여-충북)	의료용경 및 생체분자, 영상시스템, BT생체인터페이스 기반 신경조절 시스템, 치과 및 정형용품, 바이오기술 기반 체외 진단기기, 의료용 영상진단장치, 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치료용의료기기, 나노기반 진단기기, 미래지능형응급의료기기

* 자료 :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충청북도, 2017)

[그림 Ⅳ-1] 지역전략산업 변화



* 자료 : 「2015년 충북산업진흥계획」(충청북도, 2014).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충청북도, 2015)

○ 각 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성과는 측정기준을 정하기 어려워서 측정이 쉽지 않지만 1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사업, 2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사업의 성과는 다음 [표 Ⅳ-7]와 같이 보고됨

- 1단계 충청전략산업육성사업(2002~2007)에 투입된 예산은 1,868억원, 생산유발효과 4,73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47억원, 취업유발효과 6,167명임
- 2단계 충청전략산업육성사업(2008~2012)에 투입된 예산은 1,534억원, 생산유발효과 3,6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79억원, 취업유발효과 4,783명임
- 1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2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는 각각 1,657억원과 1,752억원이 투입되었음[6)]

[표 Ⅳ-7] 충북 지역산업육성 투입 및 산출

사업명	사업시기	투입예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1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산업	2002~2007	1,868억원	4,733억원	1,047억원	6,167명
2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산업	2008~2012	1,534억원	3,660억원	679억원	4,738명

나. 현 단계 산업육성 정책 현황

○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지역단위에서는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 「충청북도 지역산업발전계획」, 「충북산업발전전략」 등의 중장기 계획이 실행됨

[표 Ⅳ-8] 지역산업육성정책 현황

중앙	지역발전 5개년 계획	개요	•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해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지역발전 관련 종합계획 • 5년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과제를 총 망라한 종합계획		
		계획기간	2014년 ~ 2018년	수립주체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요내용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13.7)를 발표하여 지역행복생활권과 주민삶의 질 개선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제시 –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정책추진으로 방향 대전환		
지역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 전략	개요	• 민선6기 충북도의 정책방향과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지역 경제발전 관련 실행계획 • 충북경제 4% 실현과 도민소득 4만불 조기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 제시		
		계획기간	2014년 ~ 2020년	수립주체	충청북도
		주요내용	• 투자유치 45조원 달성 경제비중 확대 ➔ 신수도권 경제성장 주도 • 도민소득 4만불 달성 전략 강화 ➔ 도민 경제행복도 제고 • 지역고용률 72% 달성 일자리 창출 ➔ 창조경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충북 수출 230억불 달성 추진 ➔ 충북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6) 1, 2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정확한 성과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현재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단이 해체됨에 따라 투입예산만 기술함

충청북도 지역산업 발전계획	개요	• 5년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과제를 총 망라한 종합계획 • 시·도 단체장 주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중장기 계획 - 지역 내 산업생태계, 지원역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지역산업·기술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계획기간	2014년 ~ 2020년	수립주체	충청북도
	주요내용	• 충청북도 대표산업 선정 및 발전비전, 중장기 로드맵, 실행전략 수립 • 기업특성조사 근거, 대표산업별 타깃기업군 설정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효율적 전개와 세부 지원사업의 실행 전략 마련		
충북산업 발전전략	개요	• 미래 충북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계획 • '지속가능 성장, 행복충북 건설'을 비전으로 신성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확정 및 육성방안 마련		
	계획기간	2016년 ~ 2025년	수립주체	충청북도
	주요내용	•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미래유망산업 선정, 육성전략 도출 - 6대 신성장산업 : 바이오산업, 태양광·신에너지산업, 화장품뷰티산업, 유기농식품산업, 신교통·항공산업, ICT융합산업 - 3대 미래유망산업 : 기후·환경산업, 관광·스포츠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 자료: 충청북도(2017),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충북산업발전전략」(2016~2025년)을 통해 추진되는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미래유망산업은 민선 6기 충북이 육성 추진하는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충북산업발전전략」, 2016)

- 기존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미래 먹거리 선점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역의 현안이 되었음

❍ 6대 신성장산업 특화 분야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Ⅳ-9] 6대 신성장산업 특화 분야

구 분	특 화 분 야
바이오산업1)	바이오의약, 한방바이오, 의료기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당뇨바이오, 감염병대응 건강친화산업(웰니스 산업 등)
태양광·신에너지산업	-재생에너지 : 태양광, 바이오매스 -신에너지 : 이차전지, 연료전지, ESS
화장품·뷰티산업	-화장품산업 : 항노화물질, 기능성화장품 -뷰티산업 : K-뷰티산업, 뷰티헬스 등
유기농·식품산업2)	유기농산물 생산, 유기농 가공식품 및 발효식품, 기능성음료 등
신교통·항공산업	-신교통산업 : 미래철도, 자율주행자동차 -항공산업 : 항공MRO, 드론, 공항교통서비스 -서비스산업 : 복합운송물류서비스
ICT융복합산업	IT,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스마트센서, 웨어러블디바이스

주1 : 고령친화산업을 건강친화산업(웰니스산업) 형태로 바이오산업에 흡수 통합하였음
주2 : 기존의 유기농산업에 식품산업을 추가하여 유기농·식품산업으로 재편하였음

❍ 3대 미래유망산업 특화분야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Ⅳ-10] 3대 미래유망산업 특화 분야

구 분	특 화 분 야
기후 · 환경산업	기상산업, 물산업, 환경복원산업(오염방지설비, 수질측정 및 관리), 자원 리싸이클링산업(폐기물 처리 및 활용)
관광 · 스포츠산업	- 핵심관광인프라, 의료관광 등 - 스포츠테마연계 창조관광(산악, 수상, 스포츠파크) - K-뷰티 서비스(에듀팜, 밀레니엄타운 활용)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등 뿌리기술 산업 (특화응용분야 :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2. 지역 육성산업 여성고용현황

가. 제조업 여성고용현황

○ 충북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119,499개, 제조업 사업체 수는 11,564개이며 2008~2014년 동안 각각 연평균증가율 2.7%, 4.7%로 사업체 수가 증가함

-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사업체 수 증가에 비해 제조업 사업체 수 증가율이 2.0%p 높으며 제조업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9.7%를 차지함
- 여성 대표자 사업체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39.1% (46,761개), 제조업 사업체의 20.4%(2,363개)로 제조업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율이 낮음

[표 Ⅳ-11] 충북 사업체 수 현황(2008~2014)

(단위: 개, %)

사업체 수			2008	2010	2012	2014	비율(%) ('14년 기준)	CAGR
전산업	전체		101,861	105,756	112,650	119,499	100	2.7%
	대표자 성별	남성	63,223	65,115	68,427	72,738	60.9	2.4%
		여성	38,638	40,641	44,223	46,761	39.1	3.2%
제조업	전체		8,801	9,073	9,813	11,564	100	4.7%
	대표자 성별	남성	7,198	7,343	7,862	9,201	79.6	4.2%
		여성	1,603	1,730	1,951	2,363	20.4	6.7%

*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 제조업 사업체의 75.7%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이며(8,751개)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46개이며, 2008~2014년 동안 100~300인 미만 사업체가 176개 → 253개로 증가하여 6.2%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임

- 충북 제조업 사업체의 약 95%는 종사자 규모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임
-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종사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한 개도 없으며 100~300인 미만 사업체 가운데 6개 사업체가 여성 대표자임

[표 Ⅳ-12] 충북 종사자 규모별 제조업 사업체 현황(2008~2014)

(단위: 개, %)

		전체	10인 미만	1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2008		8,801	6,721	1,568	288	176	48
2010		9,073	6,724	1,789	310	208	42
2012		9,813	7,470	1,766	314	219	44
2014		11,564	8,751	2,144	370	253	46
비율(%) ('14년 기준)		100.0%	75.7%	18.5%	3.2%	2.2%	0.4%
연평균 증가율(%) ('08~'14)		4.7%	4.5%	5.4%	4.3%	6.2%	-0.7%
대표자 성별 ('14년 기준)	계	11,564	8,751	2,144	370	253	46
	남성	9,201	6,656	1,897	355	247	46
	여성	2,363	2,095	247	15	6	0
	여성대표비율	20.4%	23.9%	11.5%	4.1%	2.4%	0.0%

*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 충북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620,557명이며 제조업 종사자 수는 178,424명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28.8%를 차지하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41.6%가 여성이고 제조업 종사자의 27.9%가 여성으로 제조업 분야의 여성 비중이 적음

- 종사자 수 증가율에서도 2008~2014년 동안 제조업 남성 종사자는 연평균 5.1%로 증가하면 반면 여성 종사자는 3.0%로 증가하여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낮음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성별 특성을 보면 상용직의 경우 여성 비율이 27.1%인데 반에 임시직 및 일용직은 여성 비율 37.7%,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비율 57.6%로 불안정한 고용지위에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경향임

[표 Ⅳ-13] 충북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2008~2014)

(단위: 명, %)

			2008	2010	2012	2014	비율 ('14년 기준)	CAGR
전산업	종사자 전체	전체	498,337	533,545	569,550	620,557	100	3.7%
		남성	295,140	314,872	333,251	362,410	58.4	3.5%
		여성	203,197	218,673	236,299	258,147	41.6	4.1%
제조업	종사자 전체	전체	137,105	143,580	155,553	178,424	100	4.5%
		남성	95,358	101,360	111,397	128,715	72.1	5.1%
		여성	41,747	42,220	44,156	49,709	27.9	3.0%
	상용직	전체	120,945	125,966	138,217	161,756	100	5.0%
		남성	85,388	90,173	99,764	117,904	72.9	5.5%
		여성	35,557	35,793	38,453	43,852	27.1	3.6%
	임시 및 일용직	전체	7,560	9,290	7,643	7,404	100	-0.3%
		남성	4,320	5,676	4,845	4,609	62.3	1.1%
		여성	3,240	3,614	2,798	2,795	37.7	-2.4%
	자영업	전체	6,116	6,074	6,316	7,030	100	2.3%
		남성	4,703	4,611	4,742	5,228	74.4	1.8%
		여성	1,413	1,463	1,574	1,802	25.6	4.1%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2,067	2,035	2,117	2,097	100	0.2%
		남성	712	770	870	889	42.4	3.8%
		여성	1,355	1,265	1,247	1,208	57.6	-1.9%
	기타	전체	417	215	1,260	137	100	-16.9%
		남성	235	130	1,176	85	62.0	-15.6%
		여성	182	85	84	52	38.0	-18.8%

*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그림 Ⅳ-2] 제조업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여성비율

(단위: %)



*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 충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08년 대비 2014년 24.5% 증가한 반면 (498,337명 → 620,557명) 제조업 종사자 수는 30.1% 증가해서(137,105명 → 178,424명)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 증가율이 더 높지만 남성 종사자 수 증가율이 35.0%인데 반해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은 19.1%로 고용 증가율의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2008~2014년 동안 전체 사업체 종사자 고용 증가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도는 8.3%이고, 이를 성별로 나누어서 보면 남성 고용에 대한 제조업 고용 증가율이 11.3%, 여성 고용에 대한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3.9%로 여성고용 증가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율은 남성에 비해 낮음

[표 Ⅳ-14] 충북 제조업 고용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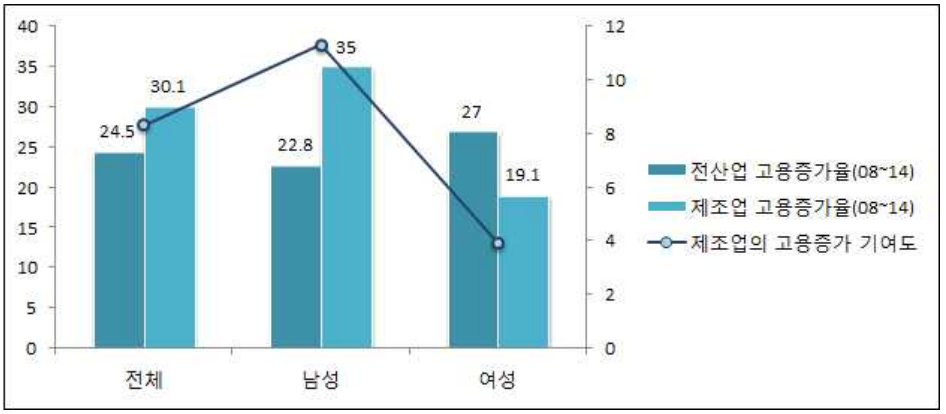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전산업	고용인원 (명)	2008년	498,337	295,140	203,197
		2014년	620,557	362,410	258,147
	'08~'14 증가율(%)		24.5	22.8	27.0
제조업	고용인원 (명)	2008년	137,105	95,358	41,747
		2014년	178,424	128,715	49,709
	'08~'14 증가율(%)		30.1	35.0	19.1
제조업의 고용증가 기여도(%)			8.3	11.3	3.9

*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그림 Ⅳ-3] 제조업의 고용증가율

(단위: %)



*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나. 지역 특화 상위산업

○ 생산액, 부가가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 순위가 5위 이상인 산업군으로 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13개 범주 산업군이 있으며,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된 상위산업군의 여성 고용현황을 분석함

- 13개 산업군 가운데 11개가 제조업이고(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전기장비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그 외에 비금속광물광업,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있음
- 그 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은 생산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사자수가 모두 상위에 있는 산업군임

[표 Ⅳ-15] 충북지역 전국 상위 산업군 현황

(단위: 십억원, 개, 명, %)

산업군 (중분류코드)	생산액		부가가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십억원)	전국비중/전국순위	(십억원)	전국비중/전국순위	(개)	전국비중/전국순위	(명)	전국비중/전국순위
비금속광물광업(07)	169	7.6/6	128	8.5/5	31	9.4/5	610	9.5/5
식료품제조업(10)	8,134	12.8/2	2,931	13.9/2	404	8.6/4	18,981	11.3/2
음료제조업(11)	1,237	23.2/2	818	29.1/1	31	11.9/2	1,737	21.6/2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15)	204	3.8/5	42	2.2/6	11	1.4/6	350	1.9/6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17)	1,614	8.3/4	644	9.9/2	109	6/4	3,947	7.4/3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0)	5,218	3.6/7	2,161	5.5/6	223	8.3/4	9,096	8/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21)	2,782	19.5/2	1,416	17.2/2	66	14.6/2	5,025	17.1/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4,771	7.8/5	1,694	8.1/5	359	6/6	14,201	7/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3,340	11.3/4	1,355	10.4/4	206	8.1/5	7,036	9.6/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26)	15,164	6.3/4	6,831	6.1/4	156	3.7/5	29,417	7.8/4
전기장비제조업(28)	5,682	8.6/5	1,587	7.8/4	191	4.5/8	10,498	6.2/6
기타제품제조업(33)	211	5.5/4	71	4.4/4	24	2.4/7	685	3.2/6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3)	134	2.7/4	-	-/-	330	2.1/10	1,083	1.9/10

* 주: 생산액, 부가가치, 사업체, 종사자 등의 분석기준에 따라 충북의 산업이 4가지 기준 어느 하나라도 상위 5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산업 모두를 현황 결과표에 제시함
* 주: 이 결과는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도소매업 조사 원자료, 운수업 조사 원자료, 서비스업 조사 원자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것으로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에 한정한 결과임
* 자료: 충청북도(2016), 「충북산업발전전략」,46~49쪽

○ 전국 상위산업군에 해당하는 13개 산업군 사업체는 2014년 기준 7,367개이며 이 가운데 여성 대표자 사업체가 21.8%(1,667개), 남성 대표자 사업체가 69.6%(5,700개)이며 식료품제조업은 사업체 수가 2,796개로 가장 많으며 여성 대표자 비율도 33.4%로 가장 높은 산업군임

- 식료품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은 여성 대표자 비율이 대부분 10~20%를 차지함
- 2008~2014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군은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28개→51개, 1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67개→276개, 8.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517개→842개, 8.5%) 순임

[표 Ⅳ-16] 충북지역 전국 상위산업군 사업체 현황(2008~2014)

(단위: 개, %)

	2008	2010	2012	2014	CAGR (%)	여성 대표자 비율(%)
비금속 광물 광업(07)	58	65	71	90	7.6	11.3
식료품제조업(10)	2,576	2,549	2,540	2,796	1.4	33.4
음료제조업(11)	98	110	116	123	3.9	15.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28	35	39	51	10.5	17.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167	177	193	276	8.7	15.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20)	376	436	476	572	7.2	13.7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72	89	88	96	4.9	5.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517	553	634	842	8.5	1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505	532	599	673	4.9	13.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26)	246	247	287	335	5.3	9.0
전기장비제조업(28)	400	422	493	623	7.7	11.9
기타제품제조업(33)	432	422	410	455	0.9	15.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428	421	423	435	0.3	20.5
계	5,903	6,058	6,369	7,367	3.8	21.8

* 주: 산업분류 옆에 표시된 ( )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코드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분석(각 년도)

○ 전국 상위산업군 사업체 가운데 85.4%(5,535개)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이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35개 사업체가 있으며, 특히 사업체 수가 많고 여성 대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식료품제조업은 총 2796개 사업체 가운데 2,389개 사업체가 종사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임

[표 Ⅳ-17] 충북지역 전국 상위산업군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현황

(단위: 개)

	계	10인 미만	1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비금속 광물 광업(07)	90	58	31	1	0	0
식료품제조업(10)	2,796	2,389	304	56	44	3
음료제조업(11)	123	92	20	5	5	1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51	40	10	0	1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276	167	87	13	8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20)	572	347	180	30	11	4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96	29	32	18	15	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842	481	284	50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673	467	173	17	14	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26)	335	179	78	28	34	16
전기장비제조업(28)	623	431	135	35	18	4
기타제품제조업(33)	455	432	15	4	4	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435	423	10	1	1	0
계	7,367	5,535	1,359	258	180	35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분석(각 년도)

○ 13개 전국 상위산업군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5,826명으로 충북지역 전체 사업체 종사자 620,557명의 20.2%에 해당하며, 여성종사자는 38,191명(30.4%), 남성종사자는 87635명(69.6%)임

- 여성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식료품제조업(43.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0.9%),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35.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35.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5.4%) 순임('14년 기준)
- 반면, 여성종사자 비율이 낮은 산업은 비금속 광물 광업(8.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6.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2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2%) 등임('14년 기준)

- 여성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군은 전기장비제조업으로 2008년~2014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이 11.4%이며 여성종사자 수는 1,704명에서 3,248명으로 증가함

[표 Ⅳ-18] 충북지역 전국 상위산업군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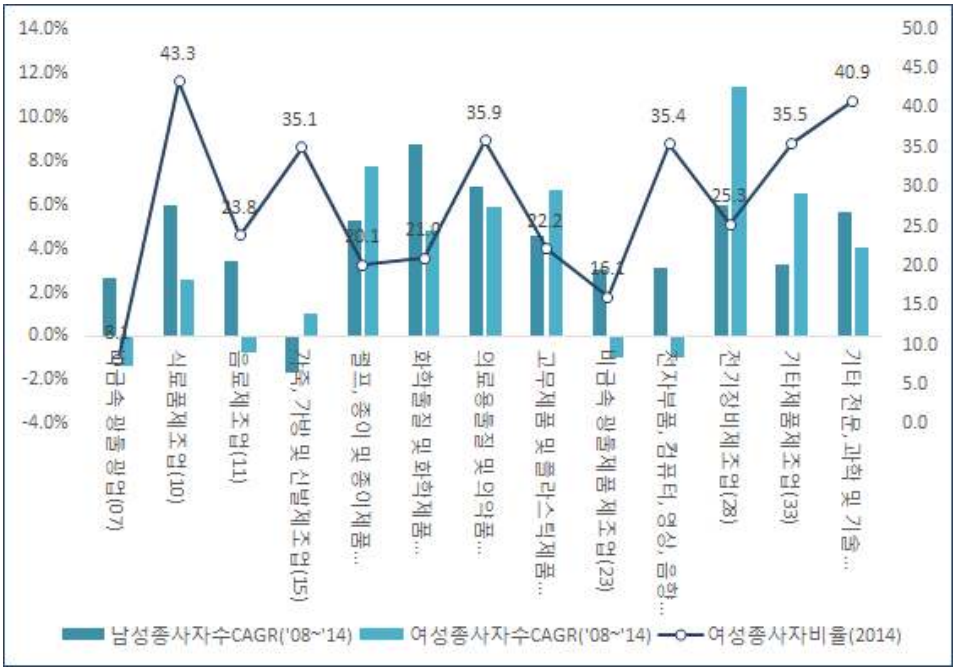
		2008	2010	2012	2014	비율 ('14기준)	CAGR
비금속 광물 광업(07)	전체	768	850	707	880	100.0	2.3%
	남성	691	777	642	809	91.9	2.7%
	여성	77	73	65	71	8.1	-1.3%
식료품제조업(10)	전체	19,603	20,327	22,188	25,377	100.0	4.4%
	남성	10,173	10,873	12,028	14,389	56.7	5.9%
	여성	9,430	9,454	10,160	10,988	43.3	2.6%
음료제조업(11)	전체	2,145	2,532	2,197	2,458	100.0	2.3%
	남성	1,531	1,974	1,722	1872	76.2	3.4%
	여성	614	558	475	586	23.8	-0.8%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전체	508	570	519	485	100.0	-0.8%
	남성	348	381	338	315	64.9	-1.6%
	여성	160	189	181	170	35.1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전체	3,698	4,015	4,456	5,164	100.0	5.7%
	남성	3,033	3,275	3,615	4,125	79.9	5.3%
	여성	665	740	841	1,039	20.1	7.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2	전체	7,737	9,014	10,065	12,160	100.0	7.8%
	남성	5,810	7,041	7,902	9,602	79.0	8.7%
	여성	1,927	1,973	2,163	2,558	21.0	4.8%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전체	3,601	4,435	4,959	5,250	100.0	6.5%
	남성	2,266	2,789	3,170	3,367	64.1	6.8%
	여성	1,335	1,646	1,789	1,883	35.9	5.9%

		2008	2010	2012	2014	비율 ('14기준)	CAGR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전체	12,500	11,963	13,350	16,761	100.0	5.0%
	남성	9,978	9,480	10,240	13,047	77.8	4.6%
	여성	2,522	2,483	3,110	3,714	22.2	6.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전체	8,449	9,257	9,114	9,683	100.0	2.3%
	남성	6,797	7,648	7,532	8,124	83.9	3.0%
	여성	1,652	1,609	1,582	1,559	16.1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체	28,703	28,358	28,296	31,486	100.0	1.6%
	남성	16,886	16,839	18,226	20,335	64.6	3.1%
	여성	11,817	11,519	10,070	11,151	35.4	-1.0%
전기장비제조업(28)	전체	8,498	9,378	10,321	12,863	100.0	7.2%
	남성	6,794	7,556	7,936	9,615	74.7	6.0%
	여성	1,704	1,822	2,385	3,248	25.3	11.4%
기타제품제조업(33)	전체	1,574	1,703	1,876	2,030	100.0	4.3%
	남성	1,081	1,098	1,195	1,309	64.5	3.2%
	여성	493	605	681	721	35.5	6.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전체	919	849	878	1,229	100.0	5.0%
	남성	522	501	531	726	59.1	5.7%
	여성	397	348	347	503	40.9	4.0%
계	전체	98,703	103,251	108,926	125,826	100.0	4.1%
	남성	65,910	70,232	75,077	87,635	69.6	4.9%
	여성	32,793	33,019	33,849	38,191	30.4	2.6%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분석(각 년도)

[그림 Ⅳ-4] 충북지역 전국상위산업군 종사자수 증가율 및 여성종사자 수 비율

(단위; 명, %)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분석(각 년도)

○ 전국상위산업군 해당 사업체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대부분 산업군이 상용직 비율이 90%이상인 반면에, 식료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상용직 비율이 90% 미만이고 동시에 이들 기업은 여성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임

- 식료품제조업은 여성종사자 비율이 43.3%로 가장 높은 산업군이지만 상용직종사자 비율이 80.3%이고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이 6.7%, 자영업자가 8.2%로 구성됨
- 기타제품제조업 역시 여성 종사자 비율이 35.5%로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종사자지위 구성은 상용직 68.4%, 임시직 및 일용직 7.1%, 자영업자 19.9%로 상용직 비율이 낮음

[표 Ⅳ-19] 충북지역 전국상위 산업군 종사상지위 구성

(단위: 명, %, 만원)

	종사자수 (명)	종사상 지위 구성 바율(%)					여성 비율 (%)
		상용직	임시직 및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비금속 광물 광업(07)	880	92.3	6.1	1.5	0.1	-	8.1
식료품제조업(10)	25,377	80.3	6.7	8.2	4.7	0.1	43.3
음료제조업(11)	2,458	92.4	3.3	2.6	1.7	0.0	23.8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485	85.6	4.1	9.1	1.0	0.2	35.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5,164	94.6	2.6	2.4	0.3	-	2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2	12,160	94.8	3.7	1.2	0.2	0.0	21.0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5,250	97.2	2.5	0.2	-	0.2	35.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16,761	95.0	2.6	2.1	0.3	0.0	2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9,683	91.1	4.8	3.0	0.7	0.4	16.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1,486	98.6	1.0	0.4	0.0	0.0	35.4
전기장비제조업(28)	12,863	93.7	3.4	2.5	0.4	0.0	25.3
기타제품제조업(33)	2,030	68.4	7.1	19.9	4.3	0.3	35.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1,229	51.7	5.8	33.5	8.8	0.2	40.9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분석(각 년도)

○ 충북지역에 소재한 전국상위산업군 13개 가운데 '08~'14년 동안 여성 종사자 수가 1,000명 이상 증가한 산업군은 식료품제조업(1,558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1,192명), 전기장비제조업(1,544명)임

- 여성종사자 수가 감소한 산업군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666명), 비금속 광물 제조업(-93명), 음료제조업(-28명) 등임

- 남성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업군 식료품제조업(4,216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3,792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449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3,069명) 순임

[표 Ⅳ-20] 충북지역 전국 상위 산업군 종사자 수 증감(2008~201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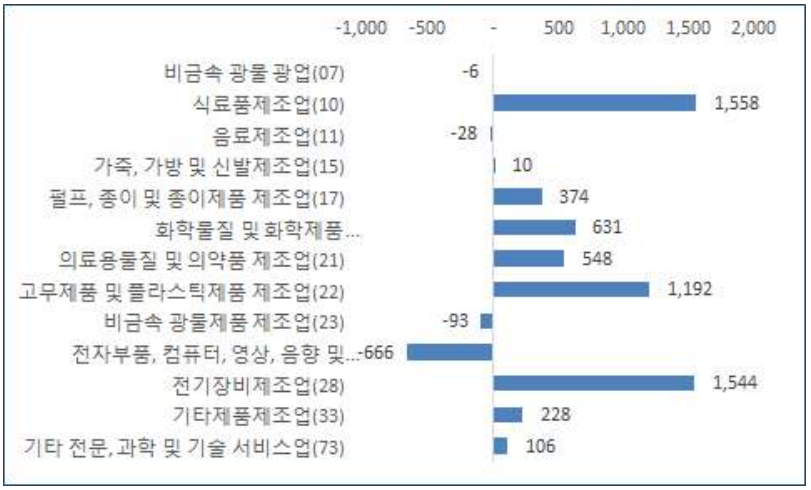
	종사자 수	전체	남성	여성
비금속 광물 광업(07)	2008년	768	691	77
	2014년	880	809	71
	증가 인원	112	118	- 6
식료품제조업(10)	2008년	19,603	10,173	9,430
	2014년	25,377	14,389	10,988
	증가 인원	5,774	4,216	1,558
음료제조업(11)	2008년	2,145	1,531	614
	2014년	2,458	1,872	586
	증가 인원	313	341	- 28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2008년	508	348	160
	2014년	485	315	170
	증가 인원	- 23	- 33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2008년	3,698	3,033	665
	2014년	5,164	4,125	1,039
	증가 인원	1,466	1,092	37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20)	2008년	7,737	5,810	1,927
	2014년	12,160	9,602	2,558
	증가 인원	4,423	3,792	63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2008년	3,601	2,266	1,335
	2014년	5,250	3,367	1,883
	증가 인원	1,649	1,101	548

	종사자 수	전체	남성	여성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2008년	12,500	9,978	2,522
	2014년	16,761	13,047	3,714
	증가 인원	4,261	3,069	1,1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2008년	8,449	6,797	1,652
	2014년	9,683	8,124	1,559
	증가 인원	1,234	1,327	- 9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008년	28,703	16,886	11,817
	2014년	31,486	20,335	11,151
	증가 인원	2,783	3,449	- 666
전기장비제조업(28)	2008년	8,498	6,794	1,704
	2014년	12,863	9,615	3,248
	증가 인원	4,365	2,821	1,544
기타제품제조업(33)	2008년	1,574	1,081	493
	2014년	2,030	1,309	721
	증가 인원	456	228	22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2008년	919	522	397
	2014년	1,229	726	503
	증가 인원	310	204	106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그림 Ⅳ-5] 충북지역 전국상위산업군 여성종사자 증가수('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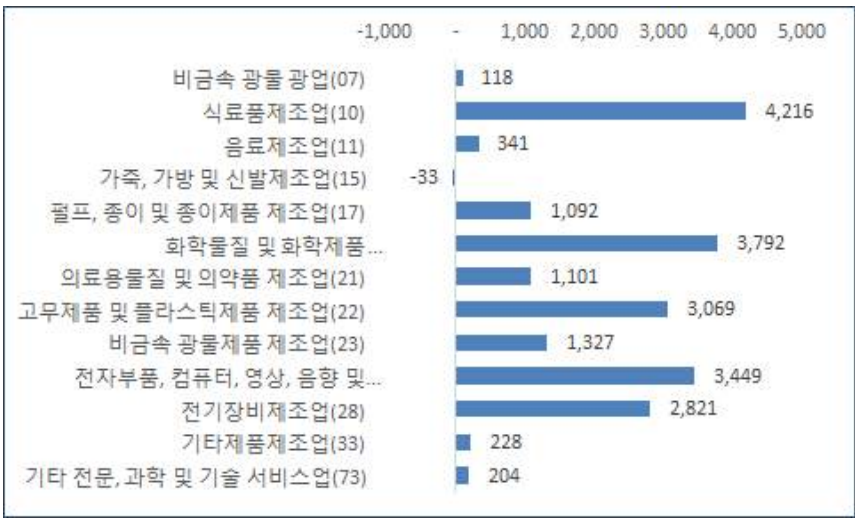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2008, 2014)

[그림 Ⅳ-6] 충북지역 전국상위산업군 남성종사자 증가수('08~'14)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2008, 2014)

다.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여성고용현황

○ 충북도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5대 주력산업과 3대 경제권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육성은 대표산업 집적을 통해 지역고용 및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함

- 5대 주력산업: 반도체산업, 바이오의약산업, 전기전자부품산업, 태양관산업,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부록1〉 참조)
- 3대 협력산업: 화장품뷰티산업, 이차전지산업, 의료기기산업 (〈부록2〉 참조)

○ 육성산업분야로 선정하는 경우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지원 성과를 신규고용 성과, 사업화매출액 성과 등을 통해 측정하며 산업 성장을 모니터링하고 육성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2015년의 경우 5대 주력산업, 연고산업 등에 총 153억 9천만원의 R&D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19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으며 ([표 Ⅳ-21] 참조), 45억2천만원의 사업화 매출액 성과가 발생함

[표 Ⅳ-21] 2015년 충북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투입예산 및 고용성과

(단위: 억원, 명, %)

구 분	사 업 명	지원 예산 (A)	기여율 미적용 신규고용인원 (B)	기여율 평균 (C)	기여율 적용 신규고용인원 (D=BxC)	1억당 신규고용인원 (E=D/A)
R&D	반도체산업	17.9	14	80.6	11	0.63
	바이오의약산업	28.0	26	70.1	18	0.65
	전기전자부품산업	17.5	20	88.9	18	1.02
	태양광산업	12.9	7	97.1	7	0.53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16.1	24	71.9	17	1.07
	연고(전통)	42.6	106	37.0	39	0.92
	공공기관연계사업	8.9	5	58.0	3	0.33
	창의융합R&D	10.0	9	69.8	6	0.63

* 주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년 지역사업 고용성과 자료 기준으로 분석
* 주2 : 특화산업(주력산업, 창의융합R&D 등)의 비R&D사업은 2015년 중 시작된 사업으로 성과 미측정
* 자료: 충청북도(2017),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32쪽

[표 Ⅳ-22] 2015년 충북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투입예산 및 사업화매출액성과

구 분	사 업 명	지원 예산 (A)	기여율 미적용 사업화매출액 (B)	기여율 평균 (C)	기여율 적용 사업화매출액 (D=BxC)	1억당 사업화매출액 (E=D/A)
R&D	반도체산업	17.9	0.27	59.3	0.16	0.01
	바이오의약산업	28.0	93.52	22.8	21.32	0.76
	전기전자부품산업	17.5	5.6	56.6	3.17	0.18
	태양광산업	12.9	-	-	-	-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16.1	16.66	35.0	5.83	0.36
	연고(전통)	42.6	19.96	73.2	14.61	0.34
	공공기관연계사업	8.9	0.19	31.6	0.06	0.01
	창의융합R&D	10.0	0.24	8.3	0.02	0.002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년 성과분석 데이터 활용
* 주: 특화산업(주력산업, 창의융합R&D 등)의 비R&D사업은 2015년 중 시작된 사업으로 성과 미측정
* 자료: 충청북도(2017),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32쪽

○ 충북 5대 주력산업 사업체는 2014년 기준 1,282개이고,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으로(544개) 2008~2014년 동안 동력기반기계부품 산업은 연평균성장률 14.1%로 증가했으며, 5대 주력산업 사업체 가운데 여성대표자 사업체는 10.9%(151개)임

- 충북 3대 협력산업 사업체는 2014년 기준 812개이고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이 화장품 뷰티산업이며(343개), 의료기기 산업은 세 개의 협력산업군 가운데 지난 2008~2014년 동안 연평균증가율가 가장 커서 사업체 수가 12.2%의 증가율로 성장했음 (2008년: 101개 → 2014년 202개)
- 충북 5대 주력산업과 3대 협력산업 대부분이 사업체의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는 전체 사업체의 약 10% 정도이며 여성 대표자가 가장 적은 산업은 반도체산업(9개, 5.7%), 바이오의약산업(6개, 6.3%)임

[표 Ⅳ-23] 충북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사업체 현황(2008~2014)

(단위: 개, %)

		2008	2010	2012	2014	CAGR	여성 대표자 사업체 ('14년 기준)	
							개수	비율
주력산업	반도체	97	102	137	159	8.6%	9	5.7
	바이오 의약	72	89	88	96	4.9%	6	6.3
	전기전자부품	109	127	161	175	8.2%	22	12.6
	태양광산업	121	140	164	226	11.0%	29	12.8
	동력기반기계부품	246	282	346	544	14.1%	85	15.6
	소계	645	740	896	1,200	10.9%	151	12.6
협력산업	화장품 뷰티산업	237	268	289	343	6.4%	48	14.0
	이차전지산업	158	161	200	267	9.1%	34	12.7
	의료기기산업	101	113	167	202	12.2%	22	10.9
	소계	496	542	656	812	8.6%	104	12.8
계		1,141	1,282	1,552	2,012	9.9%	255	12.7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분야 사업체는 약 60%가 종사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력산업에 22개 협력산업에 8개가 있음

- 의료기기산업은 종사자 수 10인 이하 사업체가 약 80%이며, 동력기반기계부품, 태양광산업, 반도체산업, 화장품뷰티산업, 이차전지산업은 10인 이하 사업체가 약 60%임
- 전기전자부품산업, 바이오의약 산업은 주력 및 협력산업의 다른 산업군에 비해 종사자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체가 많은 편임

[표 Ⅳ-24] 충북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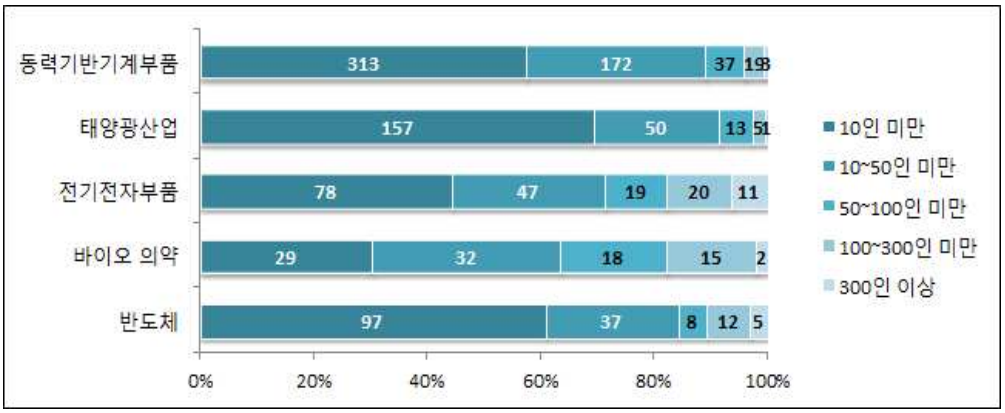
(단위: 개)

		계	10인 미만	1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주력산업	반도체	159	97	37	8	12	5
	바이오 의약	96	29	32	18	15	2
	전기전자부품	175	78	47	19	20	11
	태양광산업	226	157	50	13	5	1
	동력기반기계부품	544	313	172	37	19	3
협력산업	화장품 뷰티산업	343	187	122	26	5	3
	이차전지산업	267	131	96	21	15	4
	의료기기산업	202	156	31	8	6	1
	계	2,012	1,148	587	150	97	30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그림 Ⅳ-7] 5대 주력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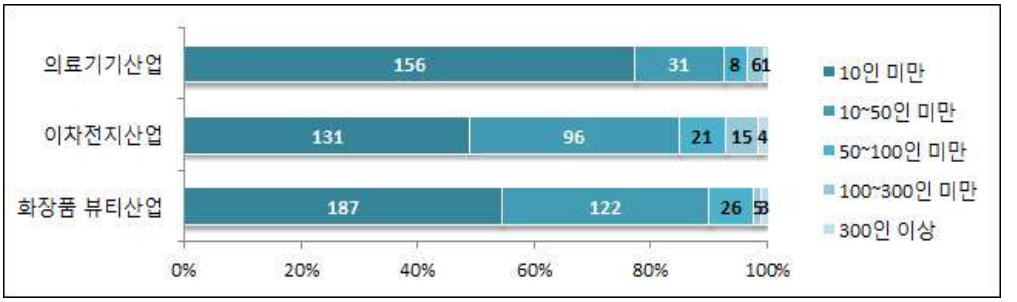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그림 Ⅳ-8] 3대 협력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 충북 5대 주력산업 및 3대 협력산업 종사자는 2014년 기준 74,215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178,424명)의 41.6%에 해당하며, 여성 종사자가 30.5%(22,651명) 남성 종사자가 69.5%(51,564명)이며, 여성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반도체산업으로 2014년 기준 여성 종사자가 45.0%를 차지함

- 여성 종사자 비율은 반도체 45.0% 〉 바이오의약 35.9% 〉 의료기기산업 35.3% 〉 태양광산업 33.2% 〉 전기전자부품 26.8% 〉 이차전지산업 23.0% 〉 동력기반기계부품 22.3% 순임
- 반도체 산업 여성 종사자 수는 6,476명으로 반도체는 여성종사자 수가 주력 및 협력산업 가운데 가장 많고 여성비율 역시 45.0%로 높은 편임
- 지난 '08~'14년 동안 남성 종사자 증가수에 대비 여성 종사자 증가수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산업은 전기전자부품산업으로 남성종사자 수가 4,571명 증가한 반면 여성 종사자 수는 975명 증가함

· 이외에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화장품 뷰티산업 역시 남성종사자 증가수와 여성종사자 증가수의 차이가 2,000명 이상인 경우임

[표 Ⅳ-25] 충북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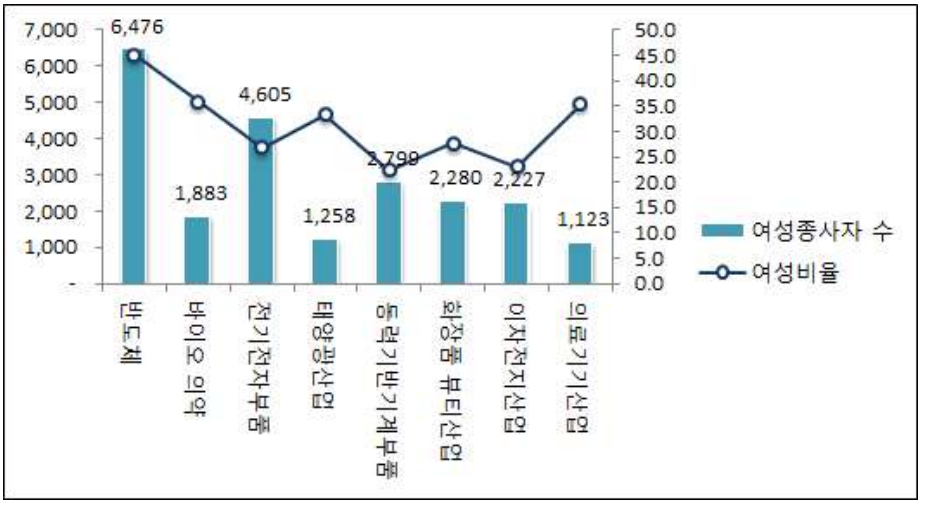
(단위: 명, %)

			2008	2010	2012	2014	증감('08~'14)		비율 ('14년 기준)
							증감(명)	CAGR	
주력산업	반도체	전체	11,040	11,667	12,333	14,389	3,349	4.5%	100
		남성	5,626	6,071	6,859	7,913	2,287	5.8%	55.0
		여성	5,414	5,596	5,474	6,476	1,062	3.0%	45.0
	바이오 의약	전체	3,601	4,435	4,959	5,250	1,649	6.5%	100
		남성	2,266	2,789	3,170	3,367	1,101	6.8%	64.1
		여성	1,335	1,646	1,789	1,883	548	5.9%	35.9
	전기전자 부품	전체	11,649	14,313	16,597	17,195	5,546	6.7%	100
		남성	8,019	9,971	12,024	12,590	4,571	7.8%	73.2
		여성	3,630	4,342	4,573	4,605	975	4.0%	26.8
	태양광산업	전체	3,345	4,923	2,690	3,787	442	2.1%	100
		남성	2,428	3,754	1,843	2,529	101	0.7%	66.8
		여성	917	1,169	847	1,258	341	5.4%	33.2
	동력기반기계부품	전체	7,497	8,180	9,901	12,526	5,029	8.9%	100
		남성	6,140	6,792	7,849	9,727	3,587	8.0%	77.7
		여성	1,357	1,388	2,052	2,799	1,442	12.8%	22.3
	소계	전체	37,132	43,518	46,480	53,147	16,015	6.2%	100
		남성	24,479	29,377	31,745	36,126	11,647	6.7%	68.0
		여성	12,653	14,141	14,735	17,021	4,368	5.1%	27.7
협력산업	화장품 뷰티산업	전체	4,980	6,070	6,954	8,222	3,242	8.7%	100
		남성	3,300	4,426	5,009	5,942	2,642	10.3%	72.3
		여성	1,680	1,644	1,945	2,280	600	5.2%	27.7
	이차전지 산업	전체	6,130	4,979	7,977	9,668	3,538	7.9%	100
		남성	4,901	3,930	6,294	7,441	2,540	7.2%	77.0
		여성	1,229	1,049	1,683	2,227	998	10.4%	23.0
	의료기기 산업	전체	1,565	1,674	3,232	3,178	1,613	12.5%	100
		남성	764	865	2,258	2,055	1,291	17.9%	64.7
		여성	801	809	974	1,123	322	5.8%	35.3
	소계	전체	12,675	12,723	18,163	21,068	8,393	8.8%	100
		남성	8,965	9,221	13,561	15,438	6,473	9.5%	73.3
		여성	3,710	3,502	4,602	5,630	1,920	7.2%	26.7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그림 Ⅳ-9] 주력 및 협력산업 여성종사자수, 여성종사자 비율

(단위: 명, %)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 주력산업과 협력산업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대부분 산업에서는 90%이상이 상용직 비율이지만 동력기반기계부품 산업의 경우 상용직 비율이 89.5%로 떨어지고 대신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어서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짐

[표 Ⅳ-26] 충북 주력산업 및 협력산업 종사상지위 구성 및 임금수준

(단위: 명, %, 만원)

		종사자수 (명)	종사상 지위 구성 바율(%)					여성 비율 (%)
			상용직 비율	임식직 및 일용직 비율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주력산업	반도체	14,389	99.0	0.6	0.4	0.0	0.0	45.0
	바이오 의약	5,250	97.2	2.5	0.2	0.0	0.2	35.9
	전기전자부품	17,195	98.1	1.5	0.3	0.0	0.0	26.8
	태양광산업	3,787	94.7	2.1	2.7	0.4	0.0	33.2
	동력기반기계부품	12,526	89.5	8.2	2.1	0.2	0.0	22.3
협력산업	화장품 뷰티산업	8,222	95.1	3.0	1.5	0.3	0.0	27.7
	이차전지산업	9,668	96.2	2.7	1.1	0.1	0.0	23.0
	의료기기산업	3,178	92.9	3.1	3.6	0.3	0.0	35.3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분석(각 년도)

3. 소결

○ 9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추진되어왔으며 현재에도 지역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충북은 1·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산업, 1·2단계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대표산업 및 협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해왔고, 도 차원에서 지정한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미래유망산업 역시 중장기적 지역산업육성의 일환임

-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지정한 5대 주력산업 (반도체, 바이오의약,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과 3대 협력산업(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온 대표적인 지역의 산업임
- 지역육성산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1, 2단계 충북전략산업육성산업에 각각 1,868억원과 1,5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충북지역이 제조업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의 사업체 및 여성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충북 제조업 사업체는 11,564개이고 그 중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20.4%이며, 충북 제조업 종사자 수는 178,424명이며 여성 종사자는 27.9%이며(49,709명), 제조업 분야는 여성사업체 비율, 여성 종사자 비율,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에서 모두 충북지역 전산업 평균에 비해 낮음

- 여성 대표자 사업체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39.1% (46,761개), 제조업 사업체의 20.4%
-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41.6%가 여성이고 제조업 종사자는 27.9%가 여성임
- 제조업 분야 남성 종사자 수 증가율이 35.0%인데 반해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은 19.1%

○ 충북지역에 소재한 전국 상위산업군에 해당하는 13개 산업군의 사업체는 7,367개이며 이 중 여성 대표자 사업체가 21.8%(1,667개)이며, 13개 전국 상위산업군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25,826명이며 여성종사자는 38,191명(30.4%)이며, 13개 상위산업군 가운데 일부는 여성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식료품제조업(43.3%)이며, 이들 산업군 역시 여성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상용직 비율이 낮은 경향을 나타냄

- 여성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식료품제조업(43.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0.9%),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35.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35.1%), 기타제품제조업(35.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5.4%) 순임('14년 기준)
- 반면, 여성종사자 비율이 낮은 산업은 비금속 광물 광업(8.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6.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2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2%) 등임('14년 기준)
- 식료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상용직 비율이 90% 미만이고 동시에 이들 기업은 여성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임

- 충북지역에 소재한 전국상위산업군 13개 가운데 ’08~’14년 동안 여성 종사자 수가 1,000명 이상 증가한 산업군은 식료품제조업(1,558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1,192명), 전기장비제조업(1,544명)임

○ 충북 5대 주력산업과 3대 협력산업 사업체는 2014년 기준 1,282개이고 여성대표자 사업체는 12.7%(255개)으로 13개 상위산업군에서 보다 여성대표자 비율이 낮으며,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74,215명이며 여성 종사자가 30.5%이며, 충북 5대 주력산업 및 3대 협력산업 가운데 여성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반도체산업(45.0%), 여성 종사자 비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동력기계기반부품산업(22.35)임

- 여성 종사자 비율은 반도체 45.0% 〉 바이오의약 35.9% 〉 의료기기산업 35.3% 〉 태양광산업 33.2% 〉 전기전자부품 26.8% 〉 이차전지산업 23.0% 〉 동력기반기계부품 22.3% 순이고, 반도체 산업 여성 종사자 수는 6,476명으로 반도체는 여성종사자 수가 주력 및 협력산업 가운데 가장 많고 여성비율 역시 45.0%로 높은 편임
- 지난 ’08~’14년 동안 남성 종사자 증가수에 대비 여성 종사자 증가수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산업은 전기전자부품산업으로 남성종사자 수가 4,571명 증가한 반면 여성 종사자 수는 975명 증가했으며, 이외에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화장품 뷰티산업 역시 남성종사자 증가수와 여성종사자 증가수의 차이가 2,000명 이상인 경우임

○ 충북 지역 육성산업 중에서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미래유망산업은 이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했는데, 동일한 산업군인 경우에도 서비스업 산업 코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분석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으며, 6대 신성장산업의 경우 아직 청사진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도 그 이유임

- 하지만,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미래유망산업은 지역 육성산업을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려년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부분이 여성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V. 여성고용정책 추진 현황

1. 여성고용정책 추진 유형 및 전략
2. 충북 여성고용정책 추진 현황
3. 타 시·도 여성고용정책 추진 사례
4. 소결

CBWF

1. 여성고용정책 추진 유형 및 전략

○ 여성고용정책을 추진 내용을 고려하면 구분하면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 정책”, “고용상 성차별 구조 개선 정책”, “여성 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정책”,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정책“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음 ([표 Ⅴ-1] 참조)

-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 정책은 여성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거나 일자리 연결시킴으로써 현실의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키는 정책이며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 직업훈련, 창업지원, 여성기업 지원 등의 사업이 있음
- 고용상 성차별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은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현재의 노동시장을 교정하기 위해 전개되는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같이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대표적임
  · 이 외에도 고용차별상담지원, 양성평등 의식교육, 성별산업분리, 성별직업분리, 성별임금격차와 같은 성별 분리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불평등 효과를 만들어내는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사업 역시 성차별 구조 개선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여성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후에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로 범주화했으며, 여성근로자 경력개발 교육 정책, 여성경력단절방지를 위한 사업, 여성농업인 여성과학기술인 등 여성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여성관리자 리더십 강화 사업 등이 있음
- 끝으로 여성고용문제를 만드는 배경적 구조에는 일과 가정의 영역을 성별로 구분하는 1인 생계부양자 프레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여성고용정책의 주요 부분임
  ·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정책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강화, 고용형태의 다양성 및 유연성 확대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터문화 조성 정책을 들 수 있음

[표 Ⅴ-1] 여성고용정책 유형

정책 유형	분류	세분류
[1]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	[1-1] 여성일자리 창출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 중고령자 여성 일자리 창출 □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1-2]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 여성취업지원서비스
	[1-3] 여성직업훈련교육	□ 여성직업훈련교육
	[1-4] 여성 창업 지원	□ 여성 창업 지원
	[1-5] 여성 기업 지원	□ 여성 기업 지원 □ 여성 사회적 기업 지원
[2] 고용상 성차별 구조 개선	[2-1] 성차별적 고용환경 개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성평등 고용제도 구축 □ 성별 고용실태 등 통계 구축
	[2-2] 고용 차별 상담 지원	□ 고용차별상담서비스
	[2-3] 양성평등의식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 의식교육
	[2-4] 성별 분리 고용구조 개선 (산업분리, 직업분리, 임금격차 등)	□ 양성평등 직업교육 □ 성별분리구조 실태조사 □ 여성집중직종 일자리 질 개선
	[2-5]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 축소	□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축소
[3] 여성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3-1] 여성근로자 경력개발 및 경력단절 방지	□ 여성근로자 경력개발 교육 □ 여성 경력단절방지 모니터링
	[3-2] 여성 전문역량 강화	□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 □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3-3] 여성관리자 리더십 강화	□ 여성관리자 리더십 강화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4-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강화	□ 출산휴가/육아휴가 □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
	[4-2] 고용형태의 다양성 및 유연성 확대	□ 유연근무제 활성화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 스마트워크 활성화
	[4-3] 일가정 양립 위한 일터 문화 조성	□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2. 충북 여성고용정책 추진 현황

○ 이러한 분류에 따라 충북의 여성고용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음
- 충북 여성고용정책 유형 가운데 예산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책임
- 전반적으로 충북의 여성 고용정책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책과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정책에 보다 비중이 있음
- 반면, 고용상 성차별구조 개선 정책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정책은 사업의 시행 내용 및 예산 편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추진되고 있음

[표 Ⅴ-2] 충북 여성고용정책 추진현황

정책 유형	분류	2017년 시행계획 기준	예산 (백만원)
[1]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	[1-1] 여성일자리 창출	□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 □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100 168 9,129
	[1-2]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155
	[1-3] 여성직업훈련교육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70
	[1-4] 여성 창업 지원		
	[1-5] 여성 기업 지원	□ 여성기업 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10
[2] 고용상 성차별 구조 개선	[2-1] 성차별적 고용환경 개선	□ 여성 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비예산
	[2-2] 고용 차별 상담 지원		
	[2-3] 양성평등의식교육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5
	[2-4] 성별 분리 고용구조 개선 (산업분리, 직업분리, 임금격차 등)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여성 근로	비예산

정책 유형	분류	2017년 시행계획 기준	예산 (백만원)
	[2-5]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 축소	자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비예산
[3]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3-1] 여성근로자 경력개발 및 경력단절 방지	□ 여성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122
	[3-2] 여성 전문역량 강화	□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22
	[3-3] 여성관리자 리더십 강화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4-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강화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83
	[4-2] 고용형태의 다양성 및 유연성 확대	□ 유연근무제 활성화	비예산
	[4-3] 일가정 양립 위한 일터 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0

* 주: 충청북도 추진 정책 현황은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대한 충청북도의 2017년도 시행계획 가운데 여성고용정책 부분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며,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반영된 사업은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1595~1728쪽

3. 타 시·도 여성고용정책 추진 사례

○ 2017년 지역별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계획 가운데 충북에서 실행하지 않지만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고용정책을 검토함

- 일부는 충북에서도 실행하고 있지만 예산 중단으로 인해 기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추진하고 있지만 누락이 된 경우도 있음

1)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출,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있음

- 여성 고용정책 차원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기업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설립지원(울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대구)과 같이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을 지원하는 경우, 여성고용이 높은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경남), 보육 및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경우(대전) 등이 있음

[표 Ⅴ-3] 정책사례: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 지역	예산 (백만원)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 여성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여성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 공예 창업 및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서울	123,029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를 위한 판로지원 추진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지원	대구	5,065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보육 및 노인 돌봄서비스 관련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 여성 일자리를 위한 협동조합 교육 지원	대전	20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지역특화사업(광역·기초) 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강원	2,360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	전북	266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 내실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 ○ 우수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추진 ○ 지역인프라 구축(사회적기업 생태계)	전북	6,360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 지역	예산 (백만원)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근로인원의 여성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여성 취업확대 - 일리창출 인건비 지원 - 시설·장비비 지원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등	경남	1,347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및 사회적기업 지원확대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설립지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울산	1,559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 여성친화적 유형의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창업 및 공동사업 지원 ○ 협동조합설립 희망여성 대상 설립상담,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 여성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에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지원	제주	720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 사회적기업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순회설명회 등 홍보활동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제주	3,363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여성 창업 지원의 경우 여성 창업 지원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의 사례를 주목할 수 있음

- 대전은 여성 창업지원 시설을 운영하며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14실을 제공하고, 그 외에도 코워킹 공간, 창업디딤돌 스쿨, 공방별 전문가 과정, 프리마켓 행사 등을 통해 여성 창업 준비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표 Ⅴ-4] 정책사례: 여성 창업지원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여성 창업지원시설 운영	○ 창업준비·보육실(14실) - 여성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한 업체에게 전문분야 컨설팅	대전	49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및 비즈니스 전문교육 지원 등 ○ 코워킹 공간 및 창업공방 - 여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창업디딤돌 스쿨” 등 특강실시, 아이템 발표회 등 운영 - 공방별 전문가 과정 교육과 프리마켓 행사 등 운영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여성기업지원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광주의 정책 사례를 주목할 수 있음

– 광주의 경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시제품 지원, 전문가 컨설팅, 경영능력향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Ⅴ-5] 정책사례: 여성기업지원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여성기업지원 및 경영 인프라 확충 (여성기업 생산품 판로 확대)	○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	광주	8
여성기업지원 및 경영 인프라 확충(여성 창업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마케팅 비용 등) 및 경영능력 향상(전문가 간담회, 멘토링 등) 지원	광주	20
여성기업지원 및 경영 인프라 확충 (여성 소자본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준비부터 창업 사후관리까지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광주	20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2) 고용상 성차별 구조 개선

❍ 여성 이공계 인력 육성 사업은 WISET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시행해온 사업임

- 2017년의 경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시행이 안된 사업이며, WISET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이 장기화된 만큼 사업성과와 이공계 여성인려 육성정책 방향에 대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표 Ⅴ-6] 정책사례: 여성 이공계 인력 육성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지원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 공과대학 및 ICT대학 여학생 전공능력강화	대구	50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사업	광주	20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여대생, 여대학원생, 연구책임자와 연계를 통한 심화 전공 체험 학습기회 제공으로 중도탈락 방지, 학생지도 및 훈련기회 제공으로 고급여성공학인력으로 성장 지원	경남	10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 WISET제주지역센터 운영(진로개발, 과학친화, 전공체험, 진학 등)	제주	18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질 개선은 여성고용정책의 우선과제이지만 추진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한데, 경기와 경남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례가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여성 집중직종 일자리 인건비 추가지원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질 개선을 시도함
- 경남의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는 경우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산모신행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질 개선 정책은 여성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사업이지만 아직 정책 사업 모델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분야로 보다 다양한 정책 모델 개발이 필요함

[표 Ⅴ-7] 정책사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질 개선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 교사당 월별 처우개선비 지원 -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 월 60 ~ 150천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 월 60 ~ 200천원 -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월 30 ~ 0천원	경기	840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 발굴,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경남	501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표 Ⅴ-8] 정책사례: 양성평등의식교육 확산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지역사회 주민 및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운영 ○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무원 대상 여성폭력예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교육 운영	제주	82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공공부문 적극적 조치는 모든 시도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공공부문 적극적 조치를 추진하는 방식은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단순히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진예정인원 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 승진 임용하는 경우 (대구), 여성공무원에게 주요 보직 근무기회를 부여하고 기여도 높은 여성공무

원을 우선 발탁 승진(광주), 전문분야 보직관리제 시행을 통해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우선 전보하는 제도 운영(울산) 등이 있음

[표 Ⅴ-9] 정책사례: 공공부문 적극적 조치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 5급 이상 관리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17년 목표치 21.1%) ○ 승진 등 내부기준에 따른 관리자 확대 뿐 아니라, 개방형 등 다양한 관리직 충원에도 우수한 여성 인재가 선발되도록 인사운영	서울	92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 기회 확대 ('17년 목표치 15.8%) ○ 여성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부산	35
여성의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17년 목표치 14.5%)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승진예정인원 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 승진 임용	대구	-
여성 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대구	-
여성의 "4급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17년 15%)" 이행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확대(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 여성공무원에게 주요 보직 근무기회를 부여하고 기여도가 높은 여성공무원을 우선 발탁 승진 시키는 등 인사에 있어 여성 적극 우대 ○ 여성공무원 주요 보직 확대 지원으로 여성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	광주	-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확대 -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 5급 이상 12%, 6급 이상 26.2% ○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여성참여 확대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전진배치로 경쟁을 통한 승진기회 제공 - 전문분야 보직관리제 시행과 여성의 능력발휘를 위한 희망부서 우선 전보	울산	-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 여성의 특정부서 편중을 지양하고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실시로 개인 능력 발전 기여 - 중·장기교육과정에 희망 여성공무원 우선 선발 -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 여성의 교육참여 확대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3)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주로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예비 과학기술인 역량향상 지원, 경력단전 여성과학기술인 재취업 지원 등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전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훈령, 취업지원, 소그룹 활동지원, 공대 여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공능력강화 지원, 우수 여학생 진로 멘토링 등의 사업이 있음
- 경북의 경우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단절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 명칭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훈령, 연수 및 상담프로그램, 여성과학기술인단체 활성화 지원, 채용정보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강소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이 있음
- 서울의 경우는 새일센터 사업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Ⅴ-10] 정책사례: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	○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인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취업연계, 인턴십 등 지원 -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운영, 교육인원 96명 - 여성새일인턴 10명 연계	서울	73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정보지원 - 비정규직여성과학기술인 ICT융복합 기술교육 - 대경강원권역 R&D 기술교육, 커리어개발 리더십 교육, 산·학연계 취업역량강화교육	대구	70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실시 ○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관련 직종의 취업정보 제공 ○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 및 소그룹의 활동 지원 ○ 공대 여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공능력강화 지원 ○ 우수 여학생 이공계 진학 유도를 위한 전공체험 및 진로멘토링 지원	대전	70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 지원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강화 사업	울산	75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용·활성화 지원 ○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채용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강소기업 맞춤형 기술교육 및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경북	60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여러 시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지역에 따라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추진방식이 차이가 있음

- 세종시의 경우 '반농산어촌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확대를 권고하고 사업추진위원회를 재편할 때 여성농업인에게 중책권한을 부여하고 참여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세종, 경기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교육(충남), 여성농민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경남), 여성후계농업인육성,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여성우선선발(경기)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

[표 Ⅴ-11] 정책사례: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반농산어촌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의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 창의사업 신안) 추진 마을에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확대 권고 - 사업 추진위원회 재편 시 기존 여성농업인 중책 권한*부여 및 참여비율 제시	세종	430
여성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1개소 ○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 사업 : 3개소	세종	140
여성 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 여성 농업인 농업기계 사용교육 확대	세종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최고농업경영자과정)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20명 선발 예정('17.2월) - 교육대상자 중 여성농업인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운영	경기	144,259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후계농업인 선정)	○ (후계농업인 육성) 여성 우선 선발(15%까지) - 후계농업인 선정 시, 여성농업인에게 가점 부여 등 홍보 강화 ○ (여성농업인 교육) -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교육(1년 과정) 3명 이상 추천(35%선정)	경기	550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 : 9개 시·군 / 9개소 - 가공장비, 시설 등 가공기반 구축 및 제품개발, 가공기술교육 등 컨설팅 지원	경기	-
농어촌여성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센터를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활용 ○ 여성농업인센터 필수 및 임의사업 지속 추진	강원	22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선정 시 우대	충남	62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교육 추진)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 ○ 여성농업인에 적합한 소형, 승용형 농업기계 조작, 점검 교육 추진	충남	18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화 전문화 강화 (귀농여성들의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해 전북 농업·농촌 정보 취득 및 체험을 위한 강사비 등 교육비 지원	전북	284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 강화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 여성농업인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한 참여율 제고 - 여성농업인의 관심도가 높은 전통식품 제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 교육 강화 - 여성 농업인의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회계, 리더십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교육과정 확대 - 재촌·귀촌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활용을 위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교육실시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시	전북	593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	전남	2,024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업인 리더십 및 전문경영능력 증진 교육 실시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채용지원)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교육훈련(역량강화)	경남	501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 제품의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기반조성 ○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개선,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홍보 강화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경남	175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경남	675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4)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 제주도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적극 참여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함

[표 Ⅴ-12] 정책사례: 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운영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민간기업의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적극 참여를 위한 기반조성 위해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제주	300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대구는 가족친화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로 지정된 마을로서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을 희망하는 마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 가족 친화사업 추진을 지원함

[표 Ⅴ-13] 정책사례: 가족친화마을 지원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가족친화마을 지원	○ 마을공동체로 지정된 마을로서 가족친화프로그램 도입을 희망하는 마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대구	50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경기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질의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체 컨설팅을 추진함

- 양질의 여성고용우수기업의 경우 여성고용창출, 경력우지, 인재활용 3개 부분에 패한 평가를 통해 여성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함
- 근로시간 단축 후 전일제로 복귀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유연근무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인사·조직·노무 등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근로문화 개선 및 정착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함
- 경기도가 “양질의” 여성고용을 위한 여성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적 여성고용정책 사례임

[표 Ⅴ-14] 정책사례: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례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컨설팅)	○ 양질의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 여성고용창출, 경력유지, 인재활용 3개 부문별 우수기업 선정 -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우수 사례 확산으로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체 컨설팅 - 임신기, 육아기 등 근로시간 단축 후 전일제로 복귀 가능한 기업문화 확산 - 적합직무 개발, 인사·조직·노무 등 근무체계 개편, 근로문화 개선 및 정착지원	경기	-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사례는 아직 시청, 도청 공무원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거나 대외적으로는 홍보캠페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라는 사업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고용정책의 전환적 의미를 가짐

- 서울시의 경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 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개선대책,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제도 홍보 등의 사업이 있음
- 대부부의 시도에서는 가족의 날 운영을 주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및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함

[표 Ⅴ-15] 정책사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사례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17년도 조직문화 개선 대책 마련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조직문화 개선과제 추진 및 내실화 ○ 제도 관련 홍보	서울	0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조성 지원 ○ 교육자료 보급 및 캠페인 실시 ○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발굴 ○ 장시간 근로개선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대구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	○ 휴가 활성화 추진 ○ 가족사랑의 날 운영	대전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지원	○ 시기 및 대상 : 매주 수·금요일(연중), 전 직원 (본청 및 사업소) ○ 방법 : 정상근무 후 19 : 00이전 전직원 퇴근	울산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네트워킹 ○ 맞벌이 가정의 가정생활 지원 ○ 일·가정 양립 홍보	전북	14.6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조성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 매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 독려 - 유연근무제를 통한 조기 출·퇴근(예 : 08:30 ~ 17:30) 적극 활용	경북	0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육아휴직 활성화를 남성육아휴직 확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은 공공부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남성육아휴직 홍보 캠페인, 남성 서포터즈 운영 등의 사례들 또한 추진됨

- 충북의 경우 역시 내부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방향을 두고 있지만 아지 사업 과제 차원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전면에 두고 있지 않아서 이런 방향에 대한 적극적 제시와 추진 계획이 필요함

[표 Ⅴ-16] 정책사례: 남성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휴가 2개월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 대체인력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 근로기간 : 9개월 이내	서울	286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 남녀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가족문화 창조를 위한 남성의 의식 강화 ○ 공공부문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부산	0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대구	286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및 결원 보충을 통하여 육아휴직 공무원의 성비 균형 실현	인천	0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자 대체인력 지원	광주	0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육아휴직자 발생시 업무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적기 배치	대전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적극 지원하여 남성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울산	247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기업과 함께 하는 출산장려 지원(아빠랑 육아서포터즈 명칭 변경)	○ 2017년 상반기 2개 기업 선정, 기업 내 출산환경 조성 지원, 지원 대상 교육 후 육아 서포터즈 발굴	세종	118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남성의 육아휴직시 인력충원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 해소	충남	128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반기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홍보 추진	경북	3남성의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휴직 발령 지속	제주	0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 아버지 학교가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음

- 아버지교실, 아빠수첩 제작, 아빠캠프, 아빠요리대회 등의 사업이 있음

[표 Ⅴ-17] 정책사례: 아버지 학교 운영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아버지의 학교운영 참여 및 아버지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운영 - 집합교육: 아빠 자기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코치형 아버지 되기,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등 - 자녀동반 체험활동 : 자녀와 신체놀이활동, 레크레이션, 가족참여 만들기 등	서울	78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 아빠 수첩 발간, 생애주기별 아버지 교육과정 운영, 자조모임 활성화 등 맞춤형 정보 제공	부산	15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지역	예산 (백만원)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 학부모 교육 홍보(교육청 주관) ○ 학부모 교육 실시(대구시 주관)	대구	-
워킹대디교육 및 일·가정양립 남성서포터즈 양성	○ 워킹대디 가족사랑교육 - 행복한 가정과 직장에서 당당한 남성으로 인식 및 이미지 개선 ○ 아빠요리 경연대회	대구	25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아빠캠프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아빠캠프 운영(1박2일 체류형 프로그램) ○ 토요일 오후 아빠와 함께(4시간 체험 프로그램)	광주	10
아버지학교,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 기관·단체·군부대 등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 및 부모교육 특강	대전	34

* 자료: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7) 참조 및 재구성

4. 소결

❍ 여성고용정책을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 정책”, “고용상 성차별 구조 개선 정책”, “여성 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정책”,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정책“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음

❍ 이러한 분류에 따라 충북 여성고영정책 추진현황을 진단하면 충북 여성고용정책 유형 가운데 예산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충북의 여성 고용정책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정책과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정책에 보다 비중이 있으며, 고용상 성차별구조 개선 정책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정책은 사업의 시행 내용 및 예산 편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추진되고 있음

○ 2017년 지역별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계획 가운데 충북에서는 비중있게 실행하지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고용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있음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분야
  ·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출, 여성친화적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정책 (서울 등)
  · 여성 창업 지원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대전)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광주)
- 고용상 성차별 구조 개선 분야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정책 사례 (경기, 경남)
- 여성근로자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 방지 분야
  ·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사업 (대전, 경북 등)
  ·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세종 등)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분야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사례(제주)
  · 가족친화마을 지원사업 (대구)
  ·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컨설팅(경기)
  ·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사례 (서울 등)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아버지 학교 운영 사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요약
2. 제언

CBWF

1. 결론 및 요약

○ 충북의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충북은 인구 측면 경제성장 측면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지만 성장의 효과가 여성들에게 적절히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점이 있음

- 인구 증가 측면에서도 충북은 전국 평균과 반대로 남성의 인구 증가율에 비해 여성의 인구증가율이 낮고 특히 20대 여성 역외 전출자가 20대 남성 역외 전출자보다 2배 이상 많아서 충북의 정주 환경이 젊은 여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음을 시사함

○ 충북 여성고용 현황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형된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청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중장년층 여성의 높은 고용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 여성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냄

- 25~29세 여성의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중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런 특징은 20대 비경제활동여성의 22.9%가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라는 점에서도 나타남
- 이 외에도 대졸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L자형 곡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30대 이후에도 대졸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점 역시 충북 지역이 전국 평균 현황과의 차이점임

○ 충북 여성고용 현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의 성별화된 경향은 산업의 성별분리, 직업의 성별분리, 불안정 고용의 여성화, 성별임금격차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한 충북 지역의 산업 구조 특성은 이러한 산업의 젠더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과 완화시키는 측면이 동시에 있음

- 먼저 강화하는 측면은 산업의 성별분리와 직업분리가 성별화된 방식으로 공고히 유지되는 경향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충북지역 취업자의 19.7%가 제조업 분야 종사자이지만 제조업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은 약 7:3의 비중으로 분포하며, 제조

업 분야에 취업한 여성의 경우에도 여성들은 주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4.0%), 단순노무종사자(31.1%), 사무종사자(22.3%)로 종사하고 있어서, 남성들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9.8%), 사무종사자(24.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1.6%)로 종사하는 분포와 차이가 있음

- 완화하는 측면은 충북지역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측면은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여성들의 고용형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조금은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임금근로자는 소득의 최하위 구간 분포자가 적고 평균 임금도 전 산업 종사자 평균 임금에 비해서 높으며,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제조업 분야는 서비스업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 비율이 높음
- 이런 특성은 충북 여성고용정책 전략에는 제조업 분야의 산업별 성별분리, 직업별 성별 분리 양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임금 수준, 고용형태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요구됨을 시사함

❍ 충북지역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취·창업 지원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여성고용정책이 보완적 끼어들기 정책을 넘어서 산업구조와 고용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상 성차별구조 개선 정책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정책 분야의 확대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지역의 여성고용정책이 산업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는 경우 여성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 분야에 여성들이 더 평등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며, 여성들이 해당 육성 산업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기 어렵다면 해당 산업을 지역의 육성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이 논의 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하나마 이런 산업구조와 여성고용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런 문제인식을 제시하고자 했음

❍ 하지만 이 연구는 기존의 지역 육산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함에 따라 육성산업 분야의 젠더화된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했지만, 육성산업 선정 전략이 변화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는 이 연구에서 제조업와 서비스업의 융합을 고려해서 산업 코드를 확대해서 반영한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미래유망산업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며, 차후 연구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함

2. 충북 여성고용 우선 과제 및 정책 방안

○ 충북 여성고용의 특성을 검토했을 때 충북 여성고용의 우선과제로 “청년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 개선”, “여성경력단절 완화”, “중고령여성 열악한 고용여건 개선”, “성별임금격차 해소”, “산업의 성별분리 완화”,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 완화”를 우선 문제로 도출함

- 아래에 각각의 문제와 관련된 산업구조 특성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표 Ⅳ-1] 충북 여성고용 문제진단 및 정책과제

문제진단 및 우선과제		산업구조 특성	정책과제
인적 자원 특성	청년여성 일자리 부족	- 생산위주 사업체 운영되고 있어서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 부족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력 지속이 필요한 일자리에 여성에 대한 비선호 강함 - 괜찮은 일자리에는 지역 외 출신이 채용되는 경향	- 전략산업 분야 기업지원시 고용지표 제출 의무화 (고용 지표에 여성인력 고용, 청년 세대 고용, 정규직 인력 고용 현황 등 지표 포함) - 산업별 여성고용 리포트 작성 및 여성 고용율이 낮은 전략산업 분야의 경우 해당 산업분야 여성 인력 고용 확대 정책 마련 - 청년세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인사운영 컨설팅 및 청년세대 채용 기업 인증제 - 청년 창업/청년 농업/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
	여성 경력단절	- 제조업 사무직 등 여성 인력 경력지속 어려움 -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운영 및 인력대체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제한	- 여성 경력지속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일터 문화 조성 컨설팅

문제진단 및 우선과제		산업구조 특성	정책과제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산단형 어린이집 확대 - 중소기업형 육아휴직 모델 개발 -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 여성 경력 지속 지원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농업/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중고령 여성 열악한 고용 여건	- 제조업의 경우 단순노무직 중심의 직무 투입 - 서비스업 중고령 여성 일자리의 낮은 고용의 질	- 사업체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및 캠페인 - 고용상담 지원
산업 구조 특성	성별임금격차	- 여성 집중 산업, 여성 집중 직업의 낮은 임금 - 돌봄, 복지 등 여성 집중 직종의 낮은 가치 평가	- 여성 집중 직무 직무가치 평가 조사 - 고용상담 지원 - 충북형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 서비스업 일자리 임금 향상 지원
	산업의 성별분리	- 제조업 기술 공정 여성 진입 어려움 - 산업 특성에 따라 여성 수용성 높은 산업과 수용성 낮은 산업이 있음	- 일자리 상황판에 성별 고용격차 해소를 포함하고 성별분리 해소를 위한 도 자체 지표 수립 - 전문직, 기술직 분야에 대한 여성 진입 수월성 평가 및 관련 인력육성 플랜 수립 - 여성 수용성 낮은 기술공정의 여성인력 정착 사례 발굴 (* 여성인력이 해당 분야 기술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체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자원 활용이 어려운 문제 -> 기업 지원금 제공을 바탕으로 여성 기술자 정착 및 경력개발 사례 개발) - 중고생 대상 성별직업분리, 산업분리 고정관념 개선
	여성의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보건업, 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 등 임시직 일자리 비중 높음 - 제조업의 경우 상용직 일자	- 고용불안정성 보상가치 개념 확산 - 산업별 고용의 질 평가 후 고용의 질 우선 개선 산업 선정 및 대책 마련

문제진단 및 우선과제		산업구조 특성	정책과제
		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제조업의 경우도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산업은 임시직 비율이 높음	-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금지 -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고용의 질 개선 방안 수립

가. 과제 1 : 청년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 개선

○ 문제진단 배경: 충북 지역은 20대 중반 여성의 낮은 고용률 문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서 청년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시급한 과제임

○ 산업구조 특성: 생산위주 사업체 운영되고 있어서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인력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여성인력에 대한 기피가 있으며,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에는 지역 외 출신이 채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20대 여성 고용이 어려운 배경임

○ 정책과제 제안:

- 전략산업 육성 관련 기업 지원시 고용지표 제출 의무화: 지역산업 육성부문 해당 기업의 고용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용지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용지표에는 여성인력 고용, 청년세대 고용, 정규직 고용 현황 등을 포함함

- 전략산업 분야 산업별 여성고용 리포트 작성 및 여성고용이 낮은 산업에 대한 민관 협력 개선 계획 마련: 전략산업 분야별로 직무, 고용형태, 직업 등을 고려한 여성고용현황 리포트를 작성하고 동력기반기계산업 등 여성인려고용율이 현저히 낮은 산업의 경우 여성고용개선을 위한 계획을 민관 협의를 통해 작성하고 추진

- 청년세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인사운영 컨설팅 및 청년세대 채용 기업 인증제: 채용 공고 게시, 홍보, 면접 등 채용과정 공정성 향상을 통한 여성고용개선을 기대하기 위한 인사운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청년세대 채용 기업 인증제를 통해 공

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청년 고용을 실시하는 기업 대상으로 청년세대 채용기업 인증

- 청년 창업/청년 농업/ 청년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괜찮은 사무직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산업 외의 전략을 통해 청년 창업, 청년 농업, 청년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방안을 지원

나. 과제 2: 여성 경력단절 완화

○ 문제진단 배경: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나라 공통적인 여성고용정책 과제이며 충북 지역 역시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들의 경력단절 경향이 나타남

○ 산업구조 특성: 도내 기업은 인력규모 50명 미만 중소기업이 대다수로 육아휴직을 통한 인력 공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제조업 사무직에 취업한 20대 여성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이 되는 패턴이 있음

○ 정책과제:

- 여성경력지속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는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경력단절 상황을 고민하는 여성인력들이 출산, 육아휴직 사용, 근무시간 단축제도 활동 등 모/부성 보호를 위한 제도 사용, 개인적인 경력지속 여건 관련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일터문화 조성 컨설팅: 여성가족부 시행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기업들이 증가하도록 하고, 도내 기업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일터문화 조성 컨설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일터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직문화 개선, 인사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컨설팅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는 남성의 참여를 통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공통적 인식으로 도내 기업 대상, 일반 도민 대상, 공공기관 대상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산단형 어린이집 확산: 도내에 중소기업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산단형 어린이집 통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

- 과학기술 분야 경력단절 여성 경력지속 지원 : 과학기술 분야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 복귀할 수 있도록, 도내 산업구조의 과학기술 분야 수요와 연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농업/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문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산업 구조 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 농업, 사회적 경제 등 경제활동 지원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필요

다. 과제 3: 중고령 여성 열악한 고용여건 개선

○ 문제진단 배경: 충북 지역은 4,50대 여성은 고용율이 전국에 비해 약 10%p 높은데 반해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아서 중고령 여성의 고용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 특성: 제조업 분야에 여성들은 주로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나 작업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고, 유해 물질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잔업 및 야근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음

○ 정책 과제 :

-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및 캠페인 : 제조업 기업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및 캠페인 진행하여 도내 기업의 작업환경 수준 향상

- 고용상담지원: 고용 상 작업 환경, 고용 상 차별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망을 점검하고 고용상담 지원 강화

라. 과제 4: 성별임금격차 해소

○ 문제진단 배경: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문제이며 충북 지역의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은 62.7%임

○ 산업구조 특성: 충북지역 여성취업자 임금은 200만원 미만에 70.4%가 분포하며 남성의 경우 200만원 이상에 71.1%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집중된 산업 및 직업의 임금 수준이 낮고, 제조업의 경우 전체 산업 임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향이지만 제조업 역시 여성 월평균 임금 181만원, 남성 월평균 임금 289만원이고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62.6%임

○ 정책과제:

- 여성 집중 직무 직무가치 평가 조사: 여성 집중 직무에 대한 임금가치 재평가를 위해 여성집중 직무 임금가치 재평가 추진하고 여성직무에 대한 낮은 임금가치를 문제화하는 사회 여론 조성

- 고용상담지원: 고용상담 지원망의 체계화를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

- 충북형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간 설립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어서 충북 차원에서도 충북형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업 일자리 임금향상 지원: 경기도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교육서비스업 일자리 임금을 보전한 사례가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임금 보전을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임금 향상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마. 과제 5: 산업의 성별 분리 해소

○ 문제진단 배경: 산업의 성별분리 양상은 충북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충북지역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한 특성을 배경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별 분리, 제조업 내에서도 여성집중 산업과 여성 고용이 낮은 산업이 있으며, 이런 산업별 분리는 여성고용을 확대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며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 산업구조 특성: 여성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5,791명, 15.1%), 제조업(48,127명, 13.0%), 도매 및 소매업(45,605명, 12.3%), 숙박 및 음식점엄(43,925명, 11.6%) 순으로 비중이 많으며, 남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118,922명, 24.9%), 건설업(50,600명, 10.6%), 도매 및 소매업(44,672명, 9.4%) 순으로 비중이 많고, 취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종사하는 제조업의 경우 여성 취업자가 48,127명, 남성 취업자가 118,922명이며 제조업 내 취업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28.8%, 남성이 71.2%임

○ 정책과제:

- 일자리 상황판에 성별 고용격차 해소를 포함하고 성별분리 해소를 위한 도 자체 지표 수립 : 현재 운영되는 일자리 상황판에 성별고용격차 해소 상황판을 추가하고 도 차원에서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지표를 설정한 후 성별고용격차 해소 추이를 모니터링

- 전문직, 기술직 분야에 대한 여성 진입 수월성 평가 및 관련 인력육성 플랜 수립 : 전문직, 기술직 분야별로 여성 진입 수월성을 평가하고 충북 도내 산업이 필요

로 하는 전문, 기술직 및 직무 역량 평가한 후 여성인력 육성 플랜을 수립하여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여성인력 육성 추진

- 여성 수용성 낮은 기술 공정의 여성인력 정착사례 발굴: 현장에서는 아직 여성이 할 수 없는 일로 분류되는 작업들이 많이 있고 국내의 경우 남성 집중 직무에 여성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추진된 바가 없어서 직무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강고함. 이런 문제로 인해 여성들이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해당 분야로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남성집중 직무에 여성 인력 진입의 사례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는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중고생 대상 성별직업분리, 산업분리 고정관념 개선: 대학 졸업자의 여성 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학계열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여전히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이런 특성은 산업 및 직업의 성별분리, 성별임금격차를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녀 중고생 대상으로 성별 직업분리, 산업분리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바. 과제 6: 여성 고용의 불안성정 완화

○ 문제진단 배경: 여성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누적된 문제이며, 충북지역의 경우도 전체 취업자 비율은 남성이 56.3%로 많지만 임시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 특성:

- 대부분 산업에서 임시직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여성 취업자 집중도가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임시직 비율 26.6%), 숙박 및 음식점업(임시직비율 26.7%), 도매 및 소매업(임시직비율 20.9%), 교육서비스업(임시직비율 25.6%)은 임시직 비율 역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충북 임시직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를 성별 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각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임시직 비율이 남성 종사자의 임시직 비율보다 높으며, 여성 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의 임시직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여성 취업자 집중도가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임시직 비율 26.6%), 숙박 및 음식점업(임시직비율 26.7%), 도매 및 소매업(임시직비율 20.9%), 교육서비스업(임시직비율 25.6%)은 임시직 비율 역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고, 제조업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서 높지만 제조업의 경우도 여성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임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책과제:

- 고용불안성 보상가치 개념 확산: 국내에는 고용이 불안정한 직업의 경우 고용이 안정적인 직업보다 시간당 보상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개념이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개념을 형성하고 여론 조성 지원

- 산업별 고용의 질 평가 후 고용의 질 우선 개선 산업 선정 및 대책 마련 : 도 차원에서 산업별 고용의 질을 평가한 후 불안정 고용이 낮은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의 고용구조를 분석하고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금지 : 도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서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 2016.3.
세계일보, 2017. 1. 15. “취업준비 하다가 페미니스트 돼요”
여성가족부(2017),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이주희(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윌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대안.” 『한국여성학』 28(3): 35-62.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주재선 외(2016),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연구』, 여성가족부
충청북도(2014), 「민선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충청북도(2015),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2020 발전전략」
충청북도(2016), 「충청북도 산업발전 전략」(2016, 12.)
충청북도(2017),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충청북도(2017), 「2017년도 충청북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
함창모(2009), 『충북지역 노동시장구조 분석』, 충북개발연구원

[부록 표 1]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5대 주력산업 개요

산업	구분	세부내용
반도체 산업	산업정의	비메모리반도체 및 소자에 대한 설계, 파운드리, 패키지, 테스트까지 전체 공정을 진행 하는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제조업
	산업범위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특화방향	반도체와 전자부품의 융합을 통한 신기술 시장 타킷 지능형 반도체
	산업특성	전체산업에서 수출 비중 10~15%를 차지하는 국가경제 주도 핵심 산업으로서, 다양한 산업과 연계성 높음
바이오 산업	산업정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주로 생물체 등을 이용한 의약품 소재 및 완제품
	산업범위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21300)
	특화방향	바이오기술 기반 바이오 의약품과 기 구축된 저분자 의약품 중심의 산업 생태계의 전후방 동반성장 지향
	산업특성	신약개발의 특성상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함
전기전자 부품산업	산업정의	스마트 그리드, 그린홈, 스마트네트워크, 무선통신 분야로서 전력, 통신, 센서, 전자제어 등 핵심 전기전자부품 산업
	산업범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26222), 전자저항기 제조업(26293), 전자카드 제조업(26294),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26322),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26329),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3039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특화방향	스마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向 핵심부품 특화
	산업특성	제4차 산업혁명의 공급기술 산업으로서 여러 제조업(자동차, 가전, 에너지 등) 및 서비스업(클라우드, 미디어 스트리밍, 원격 제어 등)과의 연계효과가 큰 산업

산업	구분	세부내용
태양광 산업	산업정의	반도체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 제조 밸류체인과 얻어진 전기를 제어해주는 전력변환장치, 그리고 전체 발전 시스템의 설치 및 운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산업
	산업범위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8111),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 기타 발전업(35119)
	특화방향	셀·모듈 생산단지 밸류 체인의 완성, 기존 조성되어 있는 특화단지의 네트워킹 그리고 구축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및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 지원
	산업특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미래에너지원의 다원화 목적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차세대 산업분야로써, 21세기 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임
동력기반 기계부품 산업	산업정의	기계공구 및 수송기계 부품모듈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써, 파스너, 금형, 절삭공구, 베어링 등 소성 및 절삭가공이 포함하는 분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코팅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
	산업범위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2594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30391),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31999),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25941),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30320),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9)
	특화방향	소성 및 절삭가공, 표면처리를 이용한 일반기계 및 차량용 기계요소부품 고부가가치화에 기반하여 원천기술 확보, 양산조달능력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수송기계의 초정밀부품 및 모듈제조기술 집중육성
	산업특성	기계, 기구, 구조물의 부품 및 제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한 소재, 금형, 표면처리 등의 전후방 공정제품의 총칭

* 자료: 충청북도(2017),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부록 표 2]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3대 경제권 협력산업 개요

산업	구분	세부내용
화장품 뷰티산업	산업정의	인체의 아름다움과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인공·천연 원료 및 소재를 개발하거나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고기능 화장품을 생산·사용하는 모든 산업
	산업범위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2011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화장품 제조업(2043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22232),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3399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72911), 피부미용업(96113)
	특화방향	고기능 제품 개발 중심 - 친환경, 효능 중심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고기능성 원천소재의 국산화 및 고기능 제품 개발 집중 지원 - 감성과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제품 개발로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산업특성	- 마켓에 미치는 브랜드파워의 영향이 가장 크며, 기술의 마케팅 활용도가 높은 산업 - 엔터테인먼트사업의 영향으로 트렌드에 민감하며 시장 내 제품 사이클이 짧음
이차전지 산업	산업정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 간 상호 변환이 가역적이며 충전과 방전이 반복 가능한 전지로 이와 관련한 산업
	산업범위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전기회로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2812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액체 여과기 제조업(29175) 알루미늄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2) 축전지 제조업(282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28902)
	특화방향	에너지저장 산업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대형전지분야 집중육성
	산업특성	전방산업인 전기자동차, 전력저장, 로봇, 모바일 IT 기기 등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며, 후방산업인 부품·소재 산업 및 생산설비 산업의 동반성장도 요구되는 산업임
의료기기 산업	산업정의	•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학제간 기술로 임상의학과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의 공학이 융합되는 응용기술 산업분야
	산업범위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산업	구분	세부내용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27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3)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27212)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2732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28519) 그 외 기타전기장비 제조업(28909)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31991)
	협력방향	바이오기술 기반 체외진단기기, 치과 및 정형용품, BT생체인터페이스 기반 신경조절시스템

* 자료: 충청북도(2017),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연구보고서 2017-04

충북 산업구조와 여성고용의 특성

발행일 : 2017년 12월 29일

발행인 : 권 수 애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2878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TEL 043) 285-2617
FAX 043) 285-2429

ISBN 979-11-962189-6-6 (93330)

인쇄처 : 수덕인쇄
TEL 043) 266-4627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충북여성재단에 있습니다.